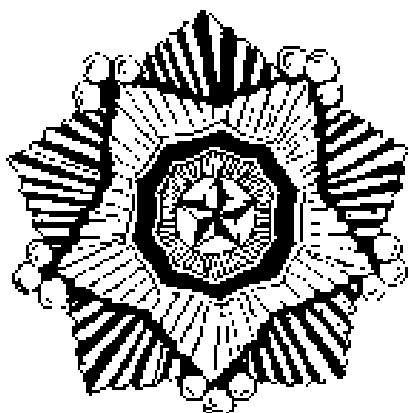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9

주체 91 (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1(2002)년 제9호

(루계 제 659 호)

◇◇◇◇◇◇◇◇◇◇◇◇

차례

◇◇◇◇◇◇◇◇◇◇◇◇

새 시대 문학예술건설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	4
오산덕	7
수령님과 조국(1)	8
어머니조국이여	8
과학중시	9
수령님과 조국(2)	13
시대에 대한 생각	13
서정의 진폭과 여운	14
번영하는 조국찬가	15
위대한 태양의 축복	16
뜨겁게 안아 보는 백두밀영고향집 서정	17
《고난의 천리》, 《행복의 만리》	18
영원한 추억의 노래	19
내 나라	20
나의 노래	32
방과제	33
명언해설	45

얼멩채 이야기 (외1편)	46
고향 샘물	46
고향, 조국	46
붉은 섬광	47
수령님과 조국(3)	54
세대	55
사향가 오늘도 울리고 있네	56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2)	57
배움의 길을 두고	65
스승에 대한 회상	66
《영어명수》가 되라	67
8월 한가위	80

새 시대 문학예술건설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

김정웅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으며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신 사상리론적재부들을 밑천으로,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주체61(1972)년 9월 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한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들을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로작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과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제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져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학예술분야에서 착취사회가 남겨 놓은 낡은 사상잔재와 시대에 뒤떨어진 창작경향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 투쟁은 문학예술부문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성과 순결성을 지키며 주체적문학예술의 위력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낡은 사상잔재와 시대 뒤떨어진 그릇된 창작경향을 극복청산하고 혁명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는가, 못 벌리는가에 따라 문학예술건설의 성과와 운명이 좌우된다.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관건적문제로 되는 이 문제는 선행시기 그 어느 문예리론에서도 해명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특성과 사명, 그 발전의 합법칙성, 우리 나라 문학예술창조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와 그릇된 창작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작품창작에서 근본적전환을 일가들의 창작활동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하시고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

에 기초하시여 작가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와 그릇된 창작태도를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주체문학예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조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창작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주체적문예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는 창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다음으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기 위한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종자를 바로 쥐여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종자에 관한 리론과 속도전에 관한 리론이다. 종자에 관한 리론과 속도전에 관한 리론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시된 독창적인 리론이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창작의 참다운 길을 열어 준 위대한 사상리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종자를 똑바로 잡고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종자는 작품의 기본핵이며 작품의 가치와 생명력,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종자를 바로 잡아야 창작가의 사상예술적의도를 정확히 전달할수 있고 작품의 철학적성을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종자의 본질과 특징,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는 작품창작의 원리와 합법칙적과정을 명철하게 밝히심으로써 창작가들에게 작품창작에서 의거하여야 할 귀중한 지침을 안겨

주시였으며 인류의 문예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시는 특출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밝혀 주시었다.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창작가들이 작품창작에서 속도가 빠르면 질이 떨어 지는것으로 여기던 그릇된 견해와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 나게 되었으며 새 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현실에 맞는 작품들을 제때에 훌륭히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문예사상성과 리론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데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는 안되며 두측면의 균형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량자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뚜렷이 밝혀 주시었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것이 작품창작의 근본원칙으로 명확히 천명되고 그 실현을 위한 미학적방도들이 뚜렷이 밝혀 짐으로써 창작가들이 작품창작에서 온갖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고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작해 낼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는 작품창작에서 리사성과 모방을 없애고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리론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독창성, 비반복성은 창작의 본성이며 창작가들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창작가적 자세이다.

작품창작에서 독창성, 비반복성의 원칙을 구현하고 견지할데 대한 원칙과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뚜렷이 밝혀 짐으로써 작품창작을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진행해 나가며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창의 실천적담보 마련되 나갈데 대한 문제, 아동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데 대한 문제, 평론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음악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창조발전시키며 그 종류와 양상을 다양하게 개척할데 대한 문제, 미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고 조선회화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등 새 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창조발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 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는 또한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자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 문학작품심의체제를 바로 세울데 대한 문제, 새로운 문학창작기지를 새로 내올데 대한 문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문예총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창작가들의 생활을 정규화할데 대한 문제 등 현실발전의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 제시되어 있는 이 모든 사상리론은 그 진리성과 독창성,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문학예술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과 변혁을 일으켰으며 새 세기 문학에

출창조와 건설에서도 항구적의의를 가지는 한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영원불멸할 기치로 되고 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0년간 문학부문에서 이루어 진 거대한 전환과 빛나는 성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력력히 과시해 주고 있다. 로작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임을 관철하는 과정에 문학부문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작가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대렬의 통일단결이 강화된것이다.

작가는 문학창작의 주체적력량이며 당사상전선의 초병이다. 문학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작품창작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려면 작가들이 사상예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하며 그 대렬이 순결하게 꾸려 져야 한다.

문학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됨으로써 작가들이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었으며 그것을 신념으로, 지침으로 하여 창작활동을 벌려 나가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 우리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제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자라나게 되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문학부문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로 되며 주체문학의 보다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로작에서 제시된 독창적인 문예사상 리론을 구현하는 사업에서도 거대한 성과작들이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게 됨으로써 작품창작에서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게 되었고 새 시대가 요구하며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종자리론이 창작실천에 구현되어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 진것이다. 종자리론이 제시된것은 작가들로 하여금 문학작품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리해를 확립하며 작품창작에서 근본적인 변혁과 혁신적성과를 일으키게 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작가들이 종자를 툇바로 잡고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는것을 작품창작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으로 삼게 됨으로써 기록주의적, 도식주의적 경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 의의 있는 사회적 문제, 뜻 깊은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풀어 나가는 새로운 창작의 길에 들어 시게 되었다.

지난 시기 작가들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제기되는 사회정치적문제들, 사람들의 생활과 운

명개척에서 나서는 절실하고 의의 있는 인간문제들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한 문학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수 있는것은 종자리론을 지침으로 창작활동을 벌린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종자리론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뿐만아니라 사회생활의 여러 부문에서 거대한 변혁과 빛나는 결실을 가져 왔다. 종자리론은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며 거대한 건인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에서 대상의 핵으로, 사상적알맹이로 되는 종자를 바로 쥐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모든힘과 열정을 기울여야 소기의 성과와 훌륭한 결실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

작가들은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 있게 벌리였으며 이 과정에 커다란 성과와 가치 있는 경험을 이룩하였다.

작가들이 속도전을 작품창작의 원칙으로, 창작전투의 기본형식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창작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작품창작에서의 부진상태를 1980년대에 작가들이 큰 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장중편형식의 작품들을 높은 사상에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해 낸것도, 더우기 1990년대 류례없이 간고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혁명적군인정신을 반영한 소설작품들과 시작품들, 영화문학작품들과 회고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된것도 창작에서 속도전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에 실천적경험은 속도전에 관한 리론이 작품창작의 본성적요구에도 맞으며 우리 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현실에 맞는 작품창작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위대하고 생활력 있는 리론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 있다.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이 창작실천에 구현됨으로써 소설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 시작품창작에서 산문화의 경향이 극복되고 서정성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극문학, 영화문학창작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현실을 여러모로 그려낸 다양한 주제의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어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 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들이 높은 사상에예술적수준에서 왕성하게 창작된것 이다.

작가들은 지난 기간 혁명적수령관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어느 때보다도 더 실속 있게 벌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거창하고도 어려운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례 없는 창작적결실을 가져 왔다.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사상 지음으로 되는 총서《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를 비롯한 수령형상시작품들,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을 비롯한 수령형상창조에 바쳐 진 영화문학작품들, 동시초《장군님과 아이들》을 비롯한 아동문학작품들...

우리 작가들은 모든 형태의 문학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하는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문학발전의 새 경지를 열어 놓았다.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들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 등 다양한 주제의 작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으로 적극 복무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그 어떤 작품창작에서나 당과 수령의 령도선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천명함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품성으로 하는 주체형의 인간들의 전형적성격과 고상한 정신 세계를 감명 깊게 그려 내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보람찬 새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이것은 문학부문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로선과 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창작활동을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을 구현한 결과에 이루어진 귀중한 성과이다.

또한 최근에 대성황리에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아리랑》은 예술의 종합체로서 주체예술의 발전력사를 보여주는 축도라고도 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창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창작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20세기 70년대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문학은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선군혁명의 기치밑에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 섰다. 오늘 우리 문학은 선군시대 인간들과 새로운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적군인정신을 깊이 있게 반영함으로써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기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 문학이 걸어 온 자랑스런 로정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이 새 시대 문학발전의 진로를 밝혀 주고 있으며 이 사상리론을 철저히 구현하고 고수해 나가는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주체문학을 성과적으로 창조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의 발구름소리가 하늘땅을 뒤흔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열망과 의지가 온 강산에 차넘치고 있는 격동적인 현

실은 우리 문학이 시대의 발걸음에 맞춰 비약적으로 발전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고 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제시하신 문예사상과 리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고수해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파리론은 작가들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작품창작에서 의거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인류의

진보적문학예술건설의 참다운 길을 밝혀 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 밝혀져 있는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선군시대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오산덕

박정애

오산덕

이 땅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그처럼 나지막한 언덕이건만
걸음걸음 오르는 내 마음은
어이하여 아득히 느껴 지는것인가

꿈결에도 그리움에 달려 오던 이곳
어머님 정든 고향언덕이여
여기서 백두의 군복 입고 환히도 웃고 계시는
김정숙어머님 뵈옵노라니
송엄히 다가설수록 눈굽은 젖어 들어라

말하여 다오 오산덕이여 .
세월의 추억 무거이 실려 있는 너 아니였더나
풀잎 같은 젊신자욱 촘촘히 찍으시며
어머님 오르시던 그 어린 시절
서리서리 가난이 실린 그 종달바구니마저
그득히 채워 주지 못하던 그 낮은 언덕은

해마다 꽃은 피고 열매도 맺는
그런 계절 나에게도 엇갈려찾아 왔다면
네 언덕에는 설음만 자라고 눈물만 맺혔으니
피 뿌리듯 아픈 가슴 부여잡고
선조의 넋이 깃든 땅 떠나야만 되었더라

그날에 그 종달바구니마저 채울수 없어
꽃은 폼터도 꽃속에서 한번 웃어 보지 못하신
우리 어머님
진정 그래서 이 언덕에
밝은 웃음 가득히 꽃속에 피여 안고 오시였구나

자욱자욱, 옹기던 걸음 멈추고
어머님 정겨이 눈길 보내시는 곳
내 바라보니 어려 오누나 보여 오누나
갈대숲 무성한 대사하의 언덕이
그날의 청봉밀영 그 좁은 오솔길
혈전의 눈보라 헤쳐 오신 백두산 즐기줄기가

이 언덕은 높지 않아도
광복의 새봄 위해 불타던
그 결전장들을 하나로 이어 놓고 천만을 깨우치
며
이 마음에 높이도 솟은 언덕이여

오 수령님을 한몸 서슴없이 받들던
성스런 백두의 어제이 여기서 숨쉬고
장군님 따라 끝까지 갈 우리 혁명의 래일이
어머님의 웃음속에 비껴 있는
오산덕 오산덕이여!

수령님과 조국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느라면 별의별 설음을 다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설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설음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며 망국노가 되어 조국을 떠나는 슬픔이다.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조국을 하직할 때의 비감에는 견주지 못한다. 고향을 친어머니에 비기고 라향을 이뻐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라향보다 몇곱절 더 생소한 이국은 무엇에 비길 것인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에 가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린 나로서도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조국을 떠나는 뼈저린 슬픔도 나라를 찾으려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묵묵히 참아야만 하였다.》

어머니조국이여

홍현양

잠시라도 떨어 저 있으면
저 하늘의 별과 바람과 함께
언제나 가까이 오는
가까이 와서는
내 베개머리에 꿈으로 깃드는
조국은 어머니 자장가이더라

자장자장
어머니의 그 다독임으로
지줄대는 시내물소리로
푸르른 버들의 설레임으로
병사들이 지새우는 전호가의 새벽빛
조국은 그 전호가의 빨간 산딸기로 안겨

아, 꿈에서 보는 모든것은
백배로 아름답고 황홀해
조국을 멀리 떠나
그리움이 안개비에 젖을 때면
그리움은 꿈속에 깃드는것인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기러기떼는 나래 더 찾아 가더라
해빛이 있는 곳으로
심장은 나래 퍼 꿈길을 가더라
조국은 그 사람 그 해빛
동구밖 설레는 한그루 버드나무
그 아래서 기다리시는 어머니

잠시라도 떨어 저 있으면

조국은 고향집 부엌 연기내와
나를 집으로 불러 들이던 어머니의 목소리
수령님 허물없이 앉으셨던 토방마루
그날에 보아 주신
내 학습장의 글줄로 비껴 오더라

나도 다 알수 없는것
멀리 저 멀리 떨어 저 있을수록
조국은 잊혀 졌던 그 모든것이
꿈속에 살아 나는 그 신비함
장군님 전선길에 들리서
문패를 달아 주신 새집들이 마을
조국은 그 전실의 프락에 뛰어 노는 아이들

아, 이렇듯 조국과 나의 숨결은
하나이기에
내 운명의 꿈길도 둘이 될수 없더라
조국과 사랑은
한피줄이기에
만리타향 외진 섬에 있어도
내 심장은 언제나 어머니의 피로 끓더라

멀리 저 멀리에서
병사들이 피우는 우등불로
령을 넘어 사라지는
기나긴 대오 철갑모의 번쩍임으로
내 운명 지켜 주는
사랑과 정으로 못 견디게 찾아 드는
아, 한시도 못 버릴 어머니조국이여

과학중시

리진철

《광명성1》호가 날아 오른 이 땅우에 뜨거운 열풍이 몰아 치고 있다.

동 트는 새벽을 불러 불빛 꺼질줄 모르는 과학 지구의 창가들마다에 뜨거운 심장과 번쩍이는 지혜로 내 조국의 앞길에 비약의 지름길을 마련해 가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의 열정의 모습이 비껴 흐르고 있으며 도처에 일떠선 수재양성기지들에선 귀여운 아이들이 컴퓨터전반우에 황홀한 미래를 펼쳐 가고 있다.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져 공장과 발전소, 협동전야에 틀고 앉은 경제일꾼들의 책상우에 키 높은 문서더미대신 컴퓨터가 놓여지고 그 어디에 가나 설계도면을 마주하고 열 띤 논쟁을 벌리는 모습들을 볼수 있다.

현대적기술개건의 격류속에 시련을 이겨 낸 공장기대들이 련이어 자동흐름선으로 바뀌어 지고 있는가 하면 최첨단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공장들이 81세기의 모습을 안고 앞을 다투어 일떠서고있다.사람들의 심장을 가열시키고 지대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세차게 몰아 치는 열풍—그것은 바로 과학중시의 열풍이다!

1

과학중시!

시대의 운명이 담겨 진 말이다. 이 말을 떼여놓고서는 오늘의 시대를 론할수 없으며 과학중시의 열풍이 식으면 전진이라는 말이 유명무실해 지고 다가울 래일이 어두워 진다.

도대체 과학이란 무엇이기에 이렇듯 운명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것이며 이렇게까지 중시되고 있는것인가?

우리 잠시 사색의 나래를 펼쳐 인류과학의 역사를 다듬어 보자. 인류과학의 첫 페이지를 폼을 때누구나 다 불의 발견을 생각한다.

아득한 태고의 원시림속에서 순간순간 목숨을 위협하는 맹수들과 함께 무섭게 타래쳐 오르는 불길도 원시인들에게는 불행의 화근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불은 공포심만 준것이 아니라 호기심도 자아냈으며 마침내 그들은 나무쪼박을 마주 비벼 불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불은 인류에게 보금자리를 주었고 암흑시대의 검은 장막을 벗기고 앞길을 밝혀 주었다.

비로소 인류과학의 력사가 시작되었다. 물론 그때까지는 《과학》이라고 정식화할것까지는 못

되었지만 자연의 비밀을 밝혀 내고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려는 두뇌의 활동이 시작된것이 다.

아마 인간이 불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원시상태에 있을런지 그 누가 알랴. ...

불의 발견으로 시작된 인류과학의 력사는 석기시대에 이어 철기시대를 거쳐 동력시대와 자동화시대로 줄달음쳐 왔으며 오늘에는 작게는 핵물리학, 정보시대에 처음에는 기고 다음에는 견고 그리고 달리고...

인간은 자기의 두다리로만 오늘에 온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더니 오늘은 위성으로 우주를 헤가른다.

컴퓨터를 길잡이로 세우고.

신비하여라!

미립자를 헤아리는 인간의 눈빛.

천체를 거머쥔 인간의 주먹.

오, 피와 땀으로 천년에 다듬던 력사를. 순간에 하늘끝에 세우는 과학이여!

세월은 1, 8, 3, 4... 이렇게 산수급수적으로 흘러왔지만 과학은 8, 4, 8, 16...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비약하여 왔으며 오늘에 와서 과학은 인간이 창조하고 발전시킨 모든것들가운데서 단연 《왕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20세기는 기계제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로 될것입니다.》

보라, 오늘의 세계를!

《정보》라는 고급한 언어가 범용어로 되었다.

한두개의 공장이 아니라 도시전체를 정보망에 끌어 들이고 기업활동뿐만아니라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충분한 정보봉사를 할수 있게끔 초대형병렬컴퓨터로 이루어 진 《정보처리기지》와 《정보창고》, 빛섬유카벨을 주요간선으로 방대한 정보를 순간에 전송할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갖춘 《정보도시》건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있다.

아직도 세상에는 악한들이 있어 정보산업과 《정보도시》들을 일격에 파괴할수 있는 《론리폭탄》, 《원거리정보망교란체계》와 같은 21세기의 《핵무기》들이 제작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루스》라고 하는 정보파괴무기가 정보사용자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다.

누가 더 많은 진보를 수집하고 더 빨리, 더 훌

통히 가공처리하는가, 누가 보다 완비된 《정보방
어시설》을 구축했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지나온 세기의 노예사냥에서는 건장한 육체가
목표로 되었다면 현 세기에는 고급한 두뇌가 만
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지난 세기에는 지하자원을 기본으로 공업이 발
전하였다면 오늘에는 과학과 기술을 기본으로 공
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 날에는 힘과 폭력을
위주로 한 군사적대결로 지배권쟁탈전을 벌였다
면 오늘날에는 과학과 기술로 국력을 다투고 승
패를 정하는 명실공히 정보전의 시대로 되었다.

그렇다, 지난 시대는 땀이 필요한 시대였다면
오늘은 땀보다도 두뇌가 필요한 시대이며 두뇌의
산물—과학은 시대의 운명을 안고 있다. 운명이
리론이 아닐진대 과학도 이제는 몇몇학자들의 소
유물, 공식과 법칙들로 이루어진 학문만이 아니
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운명의 무기로
되었다.

어제날 봉건통치배들이 인재를 무시하고 과학
을 천시한탓에 우리 조선이 베짖병이노예의 신세
를 면치 못했거늘, 어이 알라, 오늘에 과학을 홀
시하면 넥타이를 맨 노예의 신세가 질지—역사의
발전속도를 규제하고 그 발전높이를 규정하는 과
학, 국력을 평가하는 척도이고 민족의 흥망성쇠
를 결정하는 운명의 무기인 과학, 그렇다! 과학
중시는 운명이다!

2

과학중시! 이는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이었다.

승리의 심정이시고 애국의 상징이신 우리 수령
님의 한생은 총대와 함께 빛나는 강철의 령장의
한생인 동시에 주체과학을 창시하시고 그 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여 오신 위대한 과
학자의 한생이기도 하였다.

우리의 눈앞에 광복의 그날이 펼쳐여 진다.

유명한 한 시인이 표현한것처럼 일제의 칼탕질
에 장장 반세기 잠을 설쳤던 이 강산이 광복의
그밤엔 백두의 팔에 머리를 놓고 쿨쿨 단잠에 빠
지었다. 허나 그 밤, 유독 밝게 빛나는 하나의 불
빛이 있었으니 그것은 만시름 풀어 놓은 조국의
머리맡에 새 시름 또 무거우신 우리 수령님 건국
의 좌표를 찍으시며 잠 못 이루시던. 해방산기슭
의 불빛 이었다.

그 밤 우리 수령님의 마음을 몹시도 무거우시
였다. 가지고 오신것은 백두의 풀물 오른 배낭 하
나, 이땅이 그이께 넘겨 드린것은 텅 빈 금고,
눈에 보이는것은 폐허, 발에 밟히는것은 황무지
...

텅 빈 금고보다 더 안타까우신것은 새 나라를

일떠세울 인재가 부족한것이었고 폐허와 황무지
보다 더 분노를 자아낸것은 이 나라 인민에게 무
지와 몽매, 영원한 암흑을 강요한 일제의 죄악이
였다.

새 조국건설이란 곧 밝은 세상을 세우는것일진
대 길이 열렸다고 밝은 세상인가? 눈을 떠야 밝
은 세상인것이다.

이 땅에 기어이 인민의 밝은 세상을 일떠세울
역세인 의지들 가다듬으신 수령님께서서는 힘 주어
그리시였다. 붉은기에 마치고 낮과 함께 붓을 그
리고 그 기발을 높이 드시는것으로 새 조국건설
을 시작하시였다.

백두의 붉은기에 마치고 낮과 함께 수직으로
새겨진 못, 그것은 단순한 도안이 아니였다.

그것은 과학중시의 장엄한 선언이었다. 그 선
언은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라는 유명한 호
소로 메아리쳐 세상의 험악한 눈초리에 《친일본
자》로 몰려 뒤굴방에 숨어 있던 지식인들을 조국
의 대통로에 불러 댔으며 인생의 《구원증서》, 사
랑과 믿음의 《위촉장》이 되어 38선도 넘게 하였
다.

그 선언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의정으로 상
성된 연필문제에 자자구구 새겨져 국사중의 국
사로 채택되었으며 《삼흥중학교》의 종소리로 가
락눈들의 가슴을 흔들었고 《김일성종합대학》의
굵고 억센 기둥이 되어 조선의 미래를 떠받들었
다.

그 선언은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이름 없는
산골마을에서도 울리였으니 수령님께서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다는 거룩한 뜻을 새기신 그곳
에 오늘은 굴지의 대과학연구종합기지인 은정과
학지구가 수백수천개의 은빛창문을 번쩍이며 하
늘가에 우뚝 솟아 있다. ...

우리 해방후의 한페지를 다시 펼쳐 보자.

광복의 열기가 각양각색의 기발을 들고 제가끔
의 구호를 웨치던 그무렵, 수령님의 저택으로 몇
명의 청년들이 찾아 왔다.

《장군님! 총을 주십시오. 건국을 방해하는 반
동놈들을 모조리 싸잡기겠습니다!》

새 조국건설에 떨쳐 나선 열혈의 청년들을 대
견히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총보다 더 위력한
것을 주겠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한편의 책을 주
시였다. ...

그렇다! 책—과학은 이렇게 총대와 함께 중시
되었다.

하기에 가렬한 전화의 그날 총구앞에 원썩을
겨누었던 병사들이 고지를 내려 대학으로, 연구
소로 떠나가고 포탄 한발이 그리웠던 그때에 실
험기구를 만재한 자동차들이 후방으로 달려 갔다.
바로 그때문에 주체 41(1958)년 12월 1일 전쟁의

불길속에서 과학원창립이 선포되었던것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흘러 온 주체과학의 력사 얼마나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자기의 갈피에 아로새겨졌던가?

흘어 지고 묻혀 버린 인재들을 찾아 내고 어제날 까마눈들의 눈을 하나하나 티워 주체과학의 공간을 키워 온 1940년대 후반기.

전화의 불길과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며 주체과학의 터전을 닦고 억센 기둥을 한치한치 쌓아 올린 1950년대.

대규모의 화학공업의 창설과 비날론의 공업화로 조선사람도 세계적인 반영을 할수 있으며 조선의 두뇌를 함부로 무시 못함을 세상에 선언한 1960년대.

자력갱생을 생명으로 하는 기계공업의 토대화에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기계도 척척 만들고 또 만든것들마다 세계적인것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과시한 1970년대.

이미 마련된 과학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한편 일, 생물, 전자공학과 같은 첨단과학에 과학발전의 초점을 돌려 현대과학의 돌파구를 열어 나간 1980년대.

가장 어려운 속에서 《광명성1》호를 쏘 올려 세계를 경탄케 하고 우리 과학을 정보시대의 요구에 올려 세우기 위한 총 공격전을 벌려 온 1990년대.

불과 반세기가 조금 넘는 짧은 기간에 남들의 수백년로정을 도약하고 비약하여 오늘은 세계의 과학기술을 발밑에 굽어 볼 통쾌한 시각을 눈앞에 두었으니 아, 주체과학의 발전을 위해 우리 수령님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 과연 그 얼마랴!

사람들이여, 아시는가.

전후 우리 과학자들이 쓰던 청사가 수령님께서 집무를 보시던 내각청사였다는것을, 매일 일과처럼 진행되는 독서중 대부분이 과학기술도서였다는것을 그리고 인민들이 올린 산삼과 록용들이 그대로 과학자들의 가슴에 안겨 졌다는것을...

때로는 농업과학자가 되시여 저택의 시험포전에서 농작물을 연구하시고 때로는 과학지도일군이 되시여 연구사업의 막힌 고리마다 풀이 주시고 또 어느때는 건설주가 되시여 과학기지건설을 몸소 이끌어 주신 우리 수령님!

생명의 은인, 운명의 보호자가 되시여 반동놈들의 테로로부터 육체적생명을 지켜 주시고 종파놈들의 모해로부터 정치적생명도 지켜 주신 아버지수령님!

아, 과학은 수령님의 품에 안겨 숨 쉬고 조국은 그 과학의 등에 업혀 번영의 한길로 달려 왔으니 정녕 주체과학의 창시자, 령도자이신 수령

님을 모시여 우리 혁명은 언제 한번 주눅이 든적 없었고 바늘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내 조국은 자주, 자립, 자위로 세상에 그 존엄을 떨치였다.

사람들이여, 뜨겁게 새기시라.

우리 수령님의 과학중시의 한평생을!

그렇다! 과학중시는 애국이다!

3

과학중시!

이는 우리 장군님의 천품이고 의지이다.

게 체현하시고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해 나가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주체과학발전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말로나 글로써야 어떻게 다 전할수있으랴.

그러나 우리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조국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어떻게 주체과학의 생명을 이어 주고 활력을 부어 주시였는가를.

노래에도 있듯이 얼마나 준엄한 날이 이 땅에 흘렀고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 걸어 왔던가.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하고 검질긴 반사회주의책동으로 하여 이 땅엔 봉쇄와 압살의 울가미가 조여 졌고 고립과 질식의 검은 구름이 몰려 왔으며 보이지 않는 포물선을 그으며 생존수단과피의 《포탄》들이 련이어 날아 왔다.

불이 꺼지고 물이 마르고 쌀이 떨어 저 갔다.

인민의 허리띠가 조여지고 조국의 숨결이 높이의 백두산장군께서는 무적의 총대로 혁명의 붉은기를 휘날리시며 결사수호의 성전에 결연히 일떠서시였다.

초소에서 초소로, 최전연에서 최전연으로, 그 때에는 동서남북이 다 최전연이였고 하늘과 땅, 바다가다 치렬한 대결장이였다. 허나 결사수호의 그 자욱은 최전선길우에만 찍혀 진것이 아니였다

주체84(1995)년 4월 22일.

피눈물의 언덕에서 시작한 초소길에 이어 인민경제에 대한 현지지도의 첫 걸음으로 과학원을 찾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주체88(1999)년 1월 11일.

준엄한 포성이 울린 새해의 첫 걸음도 과학원으로! 사람들이여, 어이하여 결사수호의 결전장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께서 최전연의 이슬 젖은 발자욱을 공장이나 발전소가 아니라 과학원에 먼저 찍으셨던가.

어이하여 최고사령관이 매일 아침 첫 일과로 적정보고에 앞서 최첨단과학기술자료를 받으셔야 했고 최고사령부작전대우에 과학자들에게 줄 살

림집배정안이 놓여야 했던가.

어이하여 그 나날 것처럼 귀중한 식량이 과학자들에게 먼저 실려 갔으며 한푼두푼 아껴 온 지금이 과학발전에 선참으로 돌려 졌던가.

숨 죽인 공장, 싸늘한 부엌의 한 공기 죽을 보시는 그이의 가슴은 지지는듯 아프시었다. 그렇다고 발전기나 사오고 쌀이나 사와야 하겠는가? 아니다! 그것은 호구지책이었다.

공장들과 발전소들을 살리는것은 돈이 아니라 대지에 열매를, 무르익히는것도 민족의 운명은 총대가 지켜야 했다면 민족의 번영은 과학이 담보해야 했다. 총대의 위력도 과학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야 했다.

그렇다!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과학,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승패도 과학, 조국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존엄도 과학, 바로 과학, 과학에 모든것이 달려 있었다!

장군님의 심오한 사색은 선군의 길우에 과학중시의 열풍을 몰아 왔다.

총대와 함께 강성대국건설 과학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보배들이며 혁명의 재사들이다!

총대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과학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라!

장군님 일으키신 과학중시의 열풍속에 이처럼 어렵던 시기에 《광명성1》호가 날아 올라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도처에 최첨단과학연구기지들이 일떠서고 결사옹위의 심장에 불을 단 과학자대부대가 시련과 난관의 《암벽》들에 파렬구를 내기 시작했다.

힘겹게 돌아 가던 화력발전소들에 우리 식의 보이자가 도입되고 기계공업전선에서는 현대의 컴퓨터가 여러대의 공작기계를 척척 조종하며 무인화된 공장의 새 모습을 펼쳐 보이고 있다.

우리의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알곡종자들이 탐구되고 클론토끼며 염소가 축산업의 미래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가 하면 대동강에 바다물을 거꾸로 끌어 들여 영원히 가물을 모르고 농사를 지을수 있다는 확고한 담보가 농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과학이 활기를 띠니 나라가 흥성거렸다. 발전소들이 눈을 뜨고 공장들이 용을 쓰기 시작했고 대지가 움썹거린다. 수많은 공장들이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되고 첨단기술로 장비된 목장과 양어장들이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고 곳곳마다 일떠서는 기초식품공장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웃음을 돋구어 주고 있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것도 시련을 이겨 내기만 한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 오를 비약의 도약대
그렇다. 총대중시가 우리 장군님 휘몰아 쳐 가

신 조국수호의 열풍이라면 과학중시는 민족번영의 열풍이었다.

우리 장군님의 조국과 혁명에 대한 헌신이며 인민에 대한 사랑인 과학중시!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과학중시를 보여 주는 하루 일과가 있다.

그날도 깊은 밤에 최전연길에서 돌아 오신 장군님께서서는 과학기술도서를 보시는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였고 과학원에서 올린 문건을 보시는것으로 하루의 집무를 시작하시였다.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인민군군인들이 올린 보약제를 그대로 과학자들에게 돌려 주신 장군님께서서는 오후에는 점심식사도 미루시고 과학원에 줄 고급 뺨스와 화물자동차의 수송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이날에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일화가 천만사랑 베푸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 또 있는듯,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좋은 승용차가 있는가, 있으면 과학자들에게 주자고... 그러자 그 일군은 그 승용차는 상들만

이

라는 최신형고급승용차라고 말씀 올렸다.

순간 격하신 장군님의 음성이 수화기를 찌렁찌렁 울리였다.

...과학자들이 상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과학중시란말이요! 과학중시! 과학중시!...

장군님의 음성은 다섯번이나 울리였다.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 졌다. 아니, 끊어진것이 아니라 몇백몇천마디로 반복되고 증폭되어 천만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사람들이여! 과학중시란 이 말을 그 어느 사전에서 찾지 마시라!

우리 장군님의 숨결과 사색이 그대로 과학중시이고 장군님의 말씀과 실천이 그대로 과학중시이며 장군님의 낱과 달이 그대로 과학중시이다.

일찌기 유년시절에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더 큰 하나임을 발견하신분, 모든것을 과학으로 사색하시고 과학으로 정립될 때까지 파고 드시는 분.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총한발 쏘셔도 론문 하나 쓰셔도 백발백중, 혁명을 이끄시면 백전백승인것이다.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그대로 진리이고 승리의 담보이기에 그이 이끄시는 사회주의는 과학인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과학중시사상이 있어 천만시련을 이겨 낸 어제와 있고 보다 찬란한 미래를 향해 돌진해 나가는 우리 혁명의 오늘과 래일이 있는것이다.

오늘날 과학에 대한 태도는 곧 혁명에 대한 태도이며 과학중시를 떠난 충실성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가 그 누구이든 장군님을 따르고 장군님과 함께 혁명을 하려거든 장군님의 과학중시의 천품을 닮고 장군님의 과학중시의 의지를 따르자.

언제나 과학으로 숨 쉬고 과학으로 사색하고 과학으로 실천하자.

시련이 막아 서도 과학으로 돌파구를 열고 자력갱생을 하여도 과학에 기초한 자력갱생으로 강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시대정신의 기수이며 선각자들인 작가들이여!

과학중시의 시대에 사는 작가답게 과학중시로 자기의 정신을 가다듬고 과학중시로 사고하고 사색하며 과학중시의 의지로 붓대를 감아 쥐자.

하나의 서정 펼쳐도 과학중시의 열풍이 뜨겁게

맥박치게 하고 인간을 그려도 사랑과 지혜의 인간—뜨거운 조국애의 심장과 재능있는 두뇌를 소유한 81세기의 인간들을 자기 작품의 중심에 세우자. 하여 장군님 휘몰아 가시는 과학중시열풍의 열도와 맥박을 더욱 높이자.

우리 시대 혁명하는 인간들의 심장의 박동이며 진군과 비약의 나래인 과학중시!

바로 이 과학중시에 태양민족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존엄이 있거늘.

그렇다! 과학중시는 승리이며 미래이다!

조국이여, 인민이여! 과학중시의 열풍을 안고 달리자, 더 높이 더 빨리!

수령님과 조국(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망국 40년만에 조국을 찾고 리항 20년만에 고향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조국과 고향을 위해 너무도 많은 세월을 바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로정을 걸으면서 새긴 하나는 이 중요한 교훈이였습니다. 잃기는 험해도 찾기는 힘든것이 바로 조국이라는것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년,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입니다.》

추억에 남는 시

시대에 대한 생각

정문향

생각하는 사이에 어느덧
옛일로 되어 버린 생각을 버리며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여!

마치 아득한 옛말과도 같구나
초가집을 놓고
함석과 기와집을 이야기하던 일은

그렇듯 아찔하게 솟아...
가슴을 놀래우던 큰집도
어마어마하게 생각되던 큰일도
이제는 흔히 있는 보통일로 되었구나!

아, 제 한 일을 스스로 쳐다보며
먼 미래가 어느덧
먼 과거로 되어 떠오르는 모든 나날의 기쁨이여!

시간의 흐름으로도
밤과 낮으로도 헤아릴수 없다

젊음과 늙음도 오직 그의 한 일과
할 일에서 느껴 지나니-

심장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혁명의 나래
장백의 눈길과 밀영의 초막으로부터
오늘의 포도석을 깔고 사회주의를 건설한
이여!

마치 그 무슨 전류와도 같다
심장에서 심장으로
시간에서 시간을 불러 일으키며
세기를 뛰어 넘는 혁명의 나래여!

그 어떤 힘과 속도로도
비겨 말할수 없으리라, 천리마의 시대
그것은 바로 재일수 없는 당의 사상이며
바로 오늘에서 래일로 가는
우리의 나래 이기때문에...

-1960-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온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김정일

단평목록

서정의 진폭과 여운

리윤근

시는 불보다 뜨거운 시인의
심장의 분출이다. 의지로 지어
낼수 없는것이 심장의 노래이
고 권력과 강요로 얻을수 없는
것이 시대의 명가사이다.

선군시문학에 한송이 탐스러
운 꽃으로 피여 나 그윽한 향
기를 풍기는 백두산장군찬가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정
성환작사).

이 노래로 심장을 뚫이느라
면 위대한 령장, 위대한 빨찌
산의 아들만이 단행할수 있는
영웅적인 장거라고 세계가 격
찬하고 있는 우리 장군님의 판
문점시찰이 떠오른다.

력사의 그날 적들의 검은 총
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판문점구역으로 들어 서
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긴장
감에 싸여 있는 수행원들의 심
중을 헤아리신듯 침착하신 어
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빨찌산의 아들입니
다.》

그러시면서 나는 백두산에서
태어나 항일혁명의 총성을 들
으며 자라나고 부모님을 따라
해방전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신
념을 굳히였으며 조국해방전쟁
의 포연 속에서 의지와 담력을
키웠다고 힘 주어 말씀하신 경
애하는 장군님. 장군님의 이
말씀은 빨찌산일가의 혁명전통
과 애국의 력사를 이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
시려는 결사의 선언이시였다.
바로 이것이었다. 시인의 온넛
을 불태우고 사색의 대문을 팡
팡 두드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그 위대한 선언이 그대로
지심깊이 뚫던 용암인양 시
인의 가슴속 불덩이를 터쳐 주

지 않았던가.

시인은 웨쳤다. 온 세상을 향
해 지기의 심장을 쏟았다.

천고밀림 흰 눈우에 첫 자욱
새기시며

빨찌산일가의 뜻을 이은 장
군님

백두산 김대장의 붉은기 날
리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항일전의 그 나날을 장군님
추억할때

우리의 마음에도 밀림의 눈
이 내렸네

사회주의 지켜 서신 오늘의
김대장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적진에
번개치며

위대한 백두전범 전선길에
빛내시네

조국 위해 한평생 공격전에
게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시인이 터친 이 궁지높은 웨
침속에 도도히 굽이치고 있는
정서적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그것인가. 그것은 백두산을 그
대로 뚫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의 위인적 품모에 있다.

가사에서 노래하고 있는바와
같이 빨찌산일가의 뜻을 이으
시여 천고의 밀림속 흰 눈우에
첫 자욱을 새기신 우리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을 백두광명성
으로 높이 받들어 올리신 빨찌
산일가의 숭고한 뜻은 무엇이
였던가. 그것은 붉은기였고 총
대였다.

열백번 쓰러진대도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되찾고 이 땅,
이 하늘아래 반드시 주체의 사
회주의 조선을 일떠세우리라는
철의 신념과 의지가 빛발치는
빨찌산의 붉은기, 일제의 명줄
을 향해 반제항전의 첫 포성을
울렸고 백전백승의 기상이 번
뜩이는 백두산 가정의 총대.

기상과 배짱, 신념과 의지도
전범도 백두산을 뚫으신 빨찌
산 장군의 력사는 80세기를 넘
어 81세기에로 이어져 더욱 찬
란히 빛나고 있다.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
로 되는가 아니면 노예로 되는
가, 대결이나 굴종이나 하는
판가리 시각 우리 장군님께서
선택하신것은 퇴색을 모르는
붉은기였고 영원히 변함없이
높이 추켜 드신것은 백두에서
뿌리 내린 선군장정의 길 백두
산가정의 총대였다.

백두의 기상으로 빛발치고
빨찌산의 숨결로 뜨겁게 달아
오른 그 총대로 배심종게 놈들
의 코를 한손에 꿰시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백두산전범으
로 언제나 공격전에서 제국주
의아성을 짓부시는 우리 장군
님, 피눈물의 언덕에서 인민은,
세계는 보았다. 누구도 대신할
수없는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서시여 백두의 기상과 배짱으
로 조선을 이끄신 천출명장,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빨찌산아들의 거룩하
신 모습들. 정녕 경애하는 장
군님은 백두산이 낳은 또 한분
의 천출명장이시고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이시다. 바로 여기
에 이 가사에 어린 시인의 사
색의 세계, 심오한 사상정서적
의미가 있으며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거대한 진폭과 여운이 있다. 그것은 위인의 탄생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성상 빨찌산의 아들인 우리 장군님께서 엮어오신 붉은기의 역사, 총대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함축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앙양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가사는 첫 두개행과 세번째행의 서정론리적이 제인 맞물림 속에서 빨찌산아들의 위대한 탄생과 위대한 계승,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역사를 폭넓고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으며 매개 절의 후렴 구에서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주고 있다. 또한 《빨찌산일가의 뜻을 이은 장군님》, 《백두산 김대장의 붉은기 날리시는》, 《사회주의 지켜 서신 오늘의 김대장》 등 정제되고 함축된 시어들은 빨찌산장군의 위인적품모를 집약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이 송축에는 조선의 혁명가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환희롭게 굽이쳐 흐르고 영원히 그이만을 모시고 받들어 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용솟음치고 있다. 그것은 노래이기전에 빨찌산위인에게 바치는 군대와 인민의 사랑이고 정이며 믿음이다

번영하는 조국찬가

김선일

아름다운 강산에 아침노을
붉은데
푸른 하늘 저 높이 나래치는
천리마
수령님의 높은 뜻 이 땅우에
넘치니
번영하는 나의 조국 영광속
에 빛나라

이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주체51(1962)년에 창작된 가요 《번영하라 조국이어》(박세영작사)의 한구절이다.

인류문화사를 더듬어 보면 조국에 대한 노래는 수없이 많다. 그것은 조국이 모든 사람들의 진 정한 삶의 품이며 조국을 떠나 인생의 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라. 그리하여 오랜 세월 조국에 대한 시적 탐구와 사색은 다양한 각도에서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다.

일찌기 해방된 새 조선에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운 끝 없는 감격을 훌륭하게 노래한바 있는 이 시인도 천리마의 기상 이 나래 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두고 걱정을 금할수 없어 붓을 들었던것이다.

가요 《번영하라 조국이어》는 천리마시대 번영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찬가이다.

작품에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 힘 있게 노래되고 있다.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대지와 기계화의 동음이 드높은 공장 지구, 집집마다 넘쳐 흐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그칠줄 모르는 흥겨운 노래소리... 참으로 아름다운 강산이다.

작품은 바로 노래로부터 주인공으로의 위대한 변혁을 일으키며 천리마의 기상으로 줄달음치는 주체의 내 조국을 긍지높이 노래 하고 있다, 이렇게 펼쳐진 시적화폭속에서 서정은 한층 심화 된다. 즉 조국번영의 고귀한 진리를 밝히는데로 서정이 치달아 오른다.

무릇 조국의 부강번영은 바란다고 하여 결코 저절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신화와 전설에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 거인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위대한 거인의 손길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거룩하신 령도의 손길이다.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명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쇠퇴와 몰락,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에 일대 민족적통성과 번영의 새 시대를 안아오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하기에 작품에서는 《번영하는 나의 조국》은 《수령님의 높은 뜻 이 땅우에 넘치》여 영광속에 빛나는것이라고 걱정예 넘쳐 노래하고 있는것이다. 인민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끝없이 번영

하는 우리 조국! 그 품속에 안겨 사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의 노래, 행복의 노래가 온 강산에 울려 퍼진다.

가요는 천리마시대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에 대한 깊은 체험에 기초하여 풍만한 서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작품에서 시인은 구체적인 생활바탕으로부터 출발하여 한 시대를 통채로 안고 서정을 한껏 터쳐놓았다. 이로부터 작품에는 거창한. 시대적화폭이 펼쳐지면서 시원하게 탁 트인 장쾌한 정서가 넘쳐 흐른다.

이러한 장쾌한 정서는 번영하는 조국의 오늘에 대한 긍지높은 체현을 보다 휘황찬란할래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승화되면서 강렬한 미래지향적인 사상정서로 이끌어 간다.

오늘의 이 행복과 기쁨을 한 가슴에 안고 보다밝은 미래에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역센 기상, 그 기상 넘치여 내 조국은 무궁번영하리라라는 강렬한 주정은 얼마나 힘 있고 확정적인가. 이러한 시적정서는 비록 2개의 절로구성된 가사에서 1절의 전력을 2절에서 반복한 독특한 절구성수법과 생동한 시적표현, 호소성이 강한 시어들을 능숙하게 구사한것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작품이 나온 때로부터 벌써 40년세월이 흘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아래 가
요 《번영하라 조국이며》는 끝
없이 번영하는 오늘의 벅찬 현

실로 펼쳐 지고 있다. 천리마
시대에 태어난 가요 《번영하라
조국이며》와 더불어 길이 번

영할 선군시대 내 조국은 얼마
나 아름다운것이라.

위대한 태양의 축복

김영철

하늘의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들이 피어 나
듯이 인간의 삶은 인민의 참다
운 수령에 의하여 꽃 피난다.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축복
속에 사는 우리 민족, 우리 인
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행복을 풍만한
서정에 태워 격조높이 노래한
가요 《축복 받은 나의 삶》(최
준경작사). 이 가사에 심어 진
사상정서적 핵은 경애하는 장
군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참다운 삶에 대한 긍지와 행복
이다.

푸른 꿈 키워 준 그 손길 없
다면

내 마음 날개 없는 새와 같
으리

장군님 안겨 준 파사론 사랑
이

나의 희망 꽃 피웠네

아 축복 받은 나의 삶이며

나의 삶이며

가사는 1절에서 우리의 희망
과 푸른 꿈이 어떻게 꽃 피나
고 있는가에 대한 생활의 심오
한 진리를 날개 없는 새와의
비교속에 정서깊게 밝혀 냄으
로써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
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 뽐
이게 한다. 1절의 사상정서는 2
절과 3절에서 보다 다 고조를
이루고 있다.

내 숨결 이어 준 그 품이 없
다면

이 몸은 바람에 진 락엽 같
으리

장군님 안겨 준 영원한 삶있
어

나의 심장 불 태우네

아 축복 받은 나의 삶이며
나의 삶이며

내 앞길 비치는 그 해빛 없
다면

내 운명 등대 잃은 배와 같
으리

장군님 안겨 준 찬란한 미래
로

신념의 노를 저어 가네

아 축복 받은 나의 삶이며

나의 삶이며

위대한 태양의 축복! 그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영생하는 정
치적생명을 안겨 주시고 빛내
여 주시는 인간사랑의 최상의
축복이며 우리 인민모두를 사
람의 한품에 안으시고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태양의 축복이다. 그 파사론
축복속에 사는 우리 인민의 삶
은 얼마나 긍지롭고 환희에 넘
치는가. 위대한 태양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바람에
진 락엽》, 《등대 잃은 배》와
같았으리. 하기에 인민은 우리
의 운명을 지켜 주고 인민은
우리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
피고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찬란한 미래
로 장군님 안겨 주신 신념의
노를 저어 갈 맹세로 가슴 뽐
인다.

가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
랑의 축복을 우리 인민의 체험
세계와 결부시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노래함으로써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창창한 미래
를 안고 사는 인민의 긍지를
격조높이 더치고 있다. 이러한
가사의 사상정서적내용의 철학
적심오성은 정교하고 세련된
시적구성의 짜임새와 언어형상
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가사의 매 절의 전반부에서

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따
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 인
민이 어떤 운명에 처하였겠는
가 하는 형상적전제를 준데 기
초하여 후반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 있어 우리 인민
은 오늘날도 래일도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뚜렷
이 부각하고 있다.

또한 《푸른 꿈 키워 준 그
손길》, 《내 숨결 이어 준 그
품》, 《내 앞길 비치는 그 해빛》
과 같이 서정미가 풍만한 언어
표현들이 《날개 없는 새》, 《바
람에 진 락엽》, 《등대 잃은
배》와 같은 비유적인 언어표현
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사의
사상정서적알맹이를 부각시켜
준다.

가사는 후렴후에서 《나의 삶
이며》를 반복하여 줌으로써 위
대한 태양의 축복을 받은 우리
인민의 무한한 행복의 감정과
긍지, 자부심을 한껏 더치었
다.

《꿈》, 《숨결》, 《앞길》, 《나
의 희망》, 《나의 심장》, 《앞
길》, 《나의 희망》, 《나의 심
장》, 《신념의 노래》와 같이 인
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종자
해명에 적중한 생활적인 표현
들을 적극 탐구활용하였으며
《...다면...으리》와 같은 수사학
적표현수법을 형상적요구에 맞
게 잘 살려 쓰고 있다.

참으로 가사 《축복 받은 나
의 삶》은 위대한 태양의 축복
을 받은 우리 인민의 참다운
삶에 대한 심오한 시적 일반화
를 실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
민들로 하여금 수령숭배의 숭
고한 사상감정을 심장깊이 간
직하게 하는 시대의 성과작으
로 된다.

뜨겁게 안아 보는 백두밀영고향집 서정

리홍

인류문학사의 갈피를 펼쳐 보면 인간의 열렬한 사랑과 한 없는 추억에 깃든 고향과 고향집에 대한 노래가 무수하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고향집에 대한 노래는 인류력사가 창조한 모든 향토애적인 노래들 가운데서 인간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매혹시키고 정화시켜 주는 노래중의 노래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화력과 견인력이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

지난 뜻 깊은 2월의 명절, 당보 《로동신문》 지면에 우리 인민들이 항상 마음속에 안고 살며 못잊어 그리는 백두밀영고향집의 특출한 풍경을 생동하게 반영한 가요 《흰 눈 덮인 고향집》(오영재작사)이 다시 게재되었을 때 우리 인민모두는 위대한 장군님과 태양의 집-백두밀영고향집에 대한 못 잊을 추억에 휩싸여 있었다.

가요 《흰 눈 덮인 고향집》이 창작된지 10여년이 되어 오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을 그토록 격동시키고 있는것은 이 노래가 우리 장군님께서 나서 자라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의 특출한 풍경을 눈앞에 보는듯이 생동하게 그려 내어 우리 인민모두에게 백두고향집의 서정을 뜨겁게 안겨 주기때문이다.

가요는 백두밀영고향집의 특출한 풍경과 조선의 영원한 봄을 불러 온 고향집의 성스러운 뜻을 소박하고 꾸밈없는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재현시키고 있다.

제목만 불러 보아도 백두밀영고향집의 성스러운 정서가 함뼉 피여 오르고 최고사령부를 마음속에 안고 선군혁명천만리를 걸어 가는 우리의 행군자욱이 그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기쁨속에, 행복속에, 정서 깊은 눈물속에 새겨 안을

수 있게 한다.

백두밀영고향집, 조용히 눈을 감아도 백두산밀영고향집의 정다운 풍경이 삼삼히 떠오른다.

아득한 밀림은 눈에 덮이여
하늘땅 저끝까지 눈 부신 광야
아 하얀 눈속에
봄빛을 안은 고향집이여

시작과 끝이 없는 밀림이 눈에 덮이여 하늘땅 끝까지 눈 부신 광야엔 모습을 드러내고서 있는 봄빛 안은 백두고향집에 대한 생동한 형상.

부드러운 선물을 타고 흘러가는 노래속에 잠기면 마치 고향집뜨락을 걸으면서 흰눈 덮인 백두밀림의 아득한 광야를 눈앞에서 보는것만 같다.

그 어떤 미사려구나 직선적인 표현이 없이 자연현상 그대로의 형상은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 온다.

꽃들은 피어서 눈속에 웃고
별들도 내려 앉아 꿈을 지킨
집
아 조선의 봄을
따뜻이 키운 고향집이여
하얀 눈속에 봄빛을 안은 고향

집으로부터 조선의 봄을 따뜻이 키운 고향집으로 승화된 2절은 우리 마음 한복판에 언제나 높이 솟아 빛나는 백두산밀영고향집의 성스러운 뜻을 강조해 준다.

2절에서 풍기는 고향집서정, 고향집에 대한 표상은 또 얼마나 생생히 안겨 오는가?

이것은 가사이기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백두밀영고향집의 잊지 못할 그 뜨락, 그 밤이 그대로 살아 약동하는 현실이다.

그것은 또한 노래이기전에 그지없이 아름답게 출렁이는

고향집 정서의 생신한 화폭으로 안겨 오고 있다.

고향집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봄빛, 꽃, 눈, 별, 꿈 그리고 눈부신 광야며 아득한 밀림에 대한 표상이 참으로 깊이있게 그려 진다.

승엄한 정일봉의 기상을 안고
사나운 눈보라를 휘여 잡은
집
아 천고의 밀림에
백두가 세운 태양의 집이여
아 김정일동지
세기를 밝힌 고향집이여

3절에서는 정일봉의 기상을 안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의 력사적지위를 엄숙하게 천명해 주는것으로서 오늘의 선군시대의 숨결이 참으로 궁지높이 새겨 진다.

가요는 백두밀영고향집의 특출한 풍경을 통하여 우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 나가시는 선군혁명의 추억이 어디에 시원을 두고 있는가를 서정적으로 느끼게 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과 태양의 집, 백두밀영고향집을 그리는 우리 인민모두의 절절한 그리움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가요는 또한 백두밀영고향집의 서정을 통하여 우리모두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으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가 눈앞에 이러 오고 신심과 용기가 용솟음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고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역세게 걸어 갈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게 된다. 백두밀영고향집의 특출한 풍경을 노래한 가요는 고향집의 성스러운 뜻을 민족적인 부드러운 선물과 점점 세차게 물결치는 특색있는 리듬, 곡조로서 고향집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최고로 폭발시키

고 있다. 하여 가요는 우리 인민들에게 백두밀영고향집의 특유한 서정을 뜨겁게 안겨 준다. 실로 백두밀영고향집을 떠나

오늘의 21세기를 말할수 없고 백두밀영고향집을 떠나 오늘의 선군혁명천만리를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보여 준 여기에 가요

《흰 눈 덮인 고향집》의 감화력과 견인력이 있는것이다.

《고난의 천리》, 《행복의 만리》

한미영

시가문학에서 형상의 핵은 작품전반의 정서를 그려잡고 있으면서 구체적이고 생동한 생활화폭들을 가늠하게 한다.

가사 《승리의 길》(차영도작)에서 형상의 핵은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것이다. 오늘은 비록 어렵더라도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혁명의 붉은기 높이 들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가면 반드시 행복한 래일이 오리라는 희망과 신심이 이 하나의 형상적핵에 다 집약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붉은기혁명,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이 다 응축되어 있다.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인 이 핵은 열, 백의 생활적화폭을 안고있다.

그 생활적화폭은 다름아닌 《고난의 천리》와 《행복의 만리》이다.

《고난의 천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붉은기아래 우리 혁명이 헤쳐 온 눈보라만리, 피바다 만리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일체를 몰아 내고 조국을 광복하기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떠나셨던 혁명의 길, 그 숫눈길우에 뜻과 운명을 같이 하리라 발걸음 나란히 찍어간 열혈의 동지들로부터 시작한 우리 혁명은 얼마나 먼길을 걸어 왔던가.

피어린 두차례의 혁명전쟁, 새조국건설과 전후복구건설... 우리 혁명은 피로써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바로 그 《천리》

가 오늘을 안아 왔다.

《고난의 천리》는 또한 우리 사회주의운명을 관가리하는 력사의 대결전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붉은기를 끝까지 지킨 준엄한 나날들이다.

백두의 산발에 뿌리 내리고 삼천리 지심에 뻗은 우리 혁명의 역센 뿌리는 이 땅우에 세상에서 가장 강연하고 락천적인 인민을 자래웠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과 경제봉쇄, 몇해째 계속되던 자연재해... 사회주의가 생존의 모든 조건을 다 잃었으니 파멸은 시간문제라고 패채를 올리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인민은 신념의 붉은기로 대답하였다.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이 땀 그 어디서나 그리움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 울려퍼졌고 인민은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산다는 철의 신념 웨침이 울렸다.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절대의 신념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준엄한 《고난의 천리》를 헤쳐 오게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바로 《행복의 만리》를 믿는다.

《행복의 만리》, 그것은 고난을 헤치고 불사조마냥 일떠선 우리 인민이 이 세상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할 투쟁의 천만리, 승리의 천만리이다.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낸 인민에게 두려울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민은 그 나날에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붉은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거대한 사상전을 하였다.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뭉쳐 붉은기를 수호해 가

는 조선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온 세계에 증명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 백배, 천배로 강해 진 우리 인민은 지금 강성대국의 새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감자꽃 하얗게 피는 대홍단 삼천리와 천지개벽의 새 전설이 태어난 토지정리, 끝 모르게 뻗어 간 청년영웅도로, 현대적인 닭공장, 타조목장...

장군님 가시는 전선길 천만리를 마음속으로 따라 걸으며 《고난의 행군》길에 신들메를 조였던 우리 인민이 드디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 인민을 통강냉이와 산나물, 대용식품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투쟁의 화불을 놓지 않고 더 강인히 일떠서던 준엄한 나날을 값높게 추억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안아 온 《행복의 만리》여서 우리 인민은 더욱더 붉은기를 높이 추켜든다.

가사는 후렴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붉은기를 끝까지 수호하고 최후승리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해 갈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하여 붉은기로 안아 오고 붉은기로 지켜 가야 할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행복의 만리》임을 형상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이것은 가사에 심어 진 형상적핵으로서 생동하고 구체적인 생활을 펴내고 있는 정서를 깔아 준다.

《고난의 천리》와 《행복의 만리》에 대한 생활철학으로부터

우리 나오는 정서적감화력은
실로 크다.

가사 《승리의 길》은 형상의

핵을 바로 쥐고 사상적 의도를
형상으로 무르익힌 시대의 명
가사인것으로 하여 오늘도 래

일도 붉은기와 더불어 널리 불
리워 질것이다.

영원한 추억의 노래

안성

2년전, 조선인민군 공훈합창
단의 우렁찬 합창으로 고고성
을 터친 가요 《우리는 잊지 않
으리》(윤두근 작사)는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끝
없는 추억의 세계에 잠기게 한
다.

너무도 많은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세월의 지평선너머 사
라져 간 지난 세기 90년내의
《고난의 행군》,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그 나날에
엮여 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
명실록은 류례없이 가장 엄혹
한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
쳐나고 가장 성스럽고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위인
의 불멸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어 우
리는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
하였다는 력사의 진리를 정서
적으로 힘있게 확증하면서 불
멸의 혁명실록에 대한 깊이 있
는 예술적형상을 펼치고 있는
여기에 가요 《우리는 잊지 않
으리》의 심원한 시세계가 있다.

가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겨
보느라하면 우리의 마음은 《고
난의 행군》의 나날에 대한 소중
한 추억의 세계에로 조용히 들
어 선다.

그 추억의 세계속에 우렷이
안겨 오는것은 눈물겹도록 값
비싼 로고와 헌신의 장정을 이
으시며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엮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다.

피눈물 언덕에서 장군님 시
작하신

고난의 그 행군을 우리는 잊
지 않으리

여기에 스배여 있는 시대적
인 미는 실로 심오하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안고 우리 인민이 절통의 몸부
림을 치던 《피눈물 언덕》, 그
언덕우에 휘뿌려 지던 세월의

비바람은 얼마나 모질었던가.

그 누구보다도 쓰라린 가슴
을 안으시였건만 수령님 맡기
고 자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숭고
한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 태우
신 경애하는 장군님, 하여 그
《피눈물 언덕》에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붉은기를 지키는 길,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선군혁
명의 길에 결연히 나서시었나
니, 인민은 그이의 신념과 의지
를 새겨 안으며 새로운 투쟁에
떨쳐 나섰다. 이렇게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었다.

가사의 글줄과 함께 우리의
추억도 이어 진다. 절세의 위인
의 《고난의 행군》사가 글줄마
다에서 어려 와 모두의 눈굽을
찌릿이 적서 준다.

《조국의 운명 지키려 철령을
넘어 몇천리》, 이 구절우에 우
리 장군님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철령을 넘어 대덕
산, 오성산, 판문점, 초도... 끊
입없이 찾으신 전선길 천만리
가 실려 온다. 그 전선길에서
제국주의의 압살책동은 여지없
이 짓부셔 지고 내 나라는 사
회주의성세로 빛나는것이 아닌
가.

《락원의 길을 여시려 강계를
찾아 몇천리》, 이 글줄에 우리
장군님께서 강계를 찾아, 대흥
단을 찾아,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 쉬임없이 헤쳐 가신 현지
지도의 장정이 비껴 있다. 그
장정에서 인민의 행복은 나날
이 늘어나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군로가 새 세기를 향하여 활
짝 열려 진것이 아닌가.

허나 그 길은 결코 탄탄대로
가 아니었다. 때로는 그 누가
내 마음 몰라 준대도 희망 안
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
래를 조용히 부르시며 때로는
달게 여기시던 쪽잠마저도 뒤
로 미루시며 때로는 전사들과
《한 공기 죽도 나누며 장군님

헤쳐 가신 시련의 그자욱》으로
뻗어 간 길이였음을 가사는 감
동깊이 깨우쳐 준다. 이런 추억
속에 우리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장군님 없었다면 조선은 숨
졌으리

그이가 계시였기에 우리는
승리했네

...

이 걱정속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주신 위대한 수호
자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
마움의 정이 가득 차넘치고 있
다. 세기의 상상봉에 우뚝 서서
세계를 굽어 보는 승리자의 커
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나
래치고 있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김일성**민족의
무한한 행복과 자랑이 세차게
물결치고 있다.

이 걱정을 안고 우리의 신념
과 의지는 백배해 진다.

...

총대를 앞세우고 언제나 그
날처럼

장군님 한분만을 우리는 믿
고 따르리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 다
시 한대도 경애하는 장군님만
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불변의 의지가
맥박치는이 구절을 되새기며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대의 위력으로 더욱 부강번
영해 나갈 내조국의 래일을 확
신하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가
사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의 추
억은 끝나지 않았다. 먼먼 래일
에도 끝없이 울려 퍼질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를 대를
이어 합창하며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은 잊을수 없는 《고난의
행군》을 길이길이 추억할것
이다.

내 나라

로정법

술고개에서 시작되는 시내물은 도시의 복판을 지나며 풍치수려한 운하가 된다.

할머니가 사는 고층살림집의 현관문을 나와 층층 계단을 얼마간 내려 오면 인차 실버들이 휘날려진 운하의 유보도가 시작된다.

손자가 다니는 예술학원은 운하를 따라 반시건 길이 실히 된다.

할머니는 오늘 아침도 어린 손자의 손목을 잡고 등교길에 나선다.

출근길에서 만나는 낯익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정겹게 미소를 보낸다.

《국성인 예술학원 학생인데 아직 할머니의 손목에 잡혀 가나요.》

책을 보며 마주 걸어 오던 대학생처녀가 귀여워 못 견디겠는지 아이의 볼을 살짝 건드린다. 아이는 손목이 잡혀서도 자꾸 결눈을 팔며 잘 걸지 않는다. 매미, 잠자리, 종이배, 물우로 쏙 솟구쳤다가 철썩 떨어 지는 잉어...

운하기습엔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것이 하도 많아 혼자 내버려 두면 영낙없이 지각이다.

돌아 올 때도 시간을 맞추어 정문앞에 지켜 섰다가 데려 오지 않으면 어두워서야 돌아 온다.

일찍 돌아 와서 할머니앞에서 피아노훈련을 해야 하는것이다. 두번이나 지각을 해서 전공과목 담당 교수한테 《신소》를 받았다.

예술학학사인 부교수 김유미는 예술앞에 성실하고 량심적이며 헌신적인 교육자로서 50대에 이르는 오늘까지 후대교육에 자기를 바쳐 오는 여성이다. 그의 매 90분간은 교수자신이 음악의 그 심원한 세계로 깊이 빠져 드는 시간이다.

예술학원에서는 그날에 목표한 주되는 훈련과제를 머리가 맑고 정신을 제일 집중할수 있는 아침 첫 시간에 정했다. 그런 시간에 거꾸 지각했으니...

그때 혼쫓이 나던걸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교문앞에 이르자 녀석은 제 동무들 보기가 창피한지 할머니의 손목을 뿌리치며 들어 오지 말고 어서 돌아 가라고 한다.

《오냐, 가마, 가마. 자, 봐라. 간다.》

손자가 미타해서 몇번이고 돌아다 보며 현관문으로 사라지자 할머니는 숨박꼭질을 하듯 살금살금 록음이 짙은 푸른 교정으로 들어 가 피아노실 기수업실 밑에 조용히 다가선다.

할머니의 바쁜 하루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찾아 온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업이 시작되고 손주가 타는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 나올것이다.

이 시간이면 할머니는 꿈속에 잠기듯 자기가 살아 온 한생을 뒤돌아 보며 기어이 다시 한생을 살아 보고 싶은 조국의 래일을 그려 본다.

하늘길을 나는 마음

조국에 가면 무엇을 소원하든 다 풀어 준다고 들하였다.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지구에는 귀국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줄 고층살림집들이 일어 섰는데 가시장열의 단지뚜껑을 열어 보니 조개젓이 있더라고하였다. 먼저 귀국한 사람들이 보내오는 그런 소식들가운데서도 장녀인은 《자녀들을 희망하는 대학에 보내어 무료로 공부시켜 준다》는데 제일 굵은 밑줄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인은 서둘러 심장을 달구려 하지 않았고 다시금 침착하게 서신거래를 계속하였다.

녀인한테는 여섯아이가 있었다.

스물셋에 시집을 와서 서른넷이 되는 사이에 재미나게도 두살 터울로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내리내리 낳은것이 맏아들은 열한살, 막내 딸은 한살이었다.

이제는 녀인한테 이 많은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키울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었다.

시형과 남편이 새파란 총각시절에 손달구지를 끌며 시작한 파철장사가 오늘은 고품이 된 비행기와 자동차들을 받아 넘기는데 이르렀다.

양철지붕을 씌운 자기 집도 있었고 안정된 수입도 있었으며 맏아들의 교육을 위해 월부로 가져다 놓은 피아노도 있었다.

맏이는 한주일에 네번, 하루 두세시간씩 피아노수업을 받으러 다녔다.

그한테는 예술가로서의 가져야 할, 결의 욕망과 노력만으로는 될수 없는 타고 난 그런것이 있다고들 하였다. 그래서 시간당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일이지만 그 수업료만은 밀리지 않고 마련하곤 하였다. 돈이 너무 엄청나게 비싸서 더 고급한 교수의 수업을 받을수 없는것이 한스러울뿐이었다.

남편에 대한 평판도 좋았다.

총련 가나가와현의 분회장 고동무라고 하면 애국심이 높고 인망이 있는 일꾼으로 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열다섯살이 되도록 아직 제 이름자도 쓸줄 모

르는 신체가 너무 애달과 공부를 해보겠다고 일본에 있는 언니를 찾아서 홀로 사는 어머니를 남겨 두고 밀선으로 고향 제주도를 떠난 때로부터 오늘의 보금자리를 틀기까지에는 1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공부는 끝내 소원껏 하지 못했지만 그만해도 녀인은 행운을 지닌 셈이었다. 성실하고 근면한 청년의 안해가 되어 하늘과 같은 여섯아이가 생기고 생활의 터전도 마련된 것이었다.

귀국의 배길이 열리자 남편은 어서 조국으로 갔으면 하였다. 하지만 녀인한테는 병아리 같은 어린것들을 기우뚱하는 배우에 올려 놓고 만경창파에 운명을 맡길 용기가 없었다.

간혹하고 흉악무도한 인종이 사는 섬나라땅에 위태로운 보금자리를 틀었다는 불안이 늘 녀인을 자극하였고 병아리를 품은 암탉처럼 언제나 날개죽지를 드리우고 겁 많은 눈으로 검은 하늘을 살피게 하였다.

평양의 소식은 녀인에게 말이 하나에만 건주었던 자식들의 장래를 여섯아이에게 다 걸어 볼수는 있는 희망을 주었다.

힘한 땅에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 그 하나를 힘으로 삼고 살아 온 녀인은 욕심이 크게도 아들 삼형제, 딸 삼형제를 모두 대학에 보내어 이름난 음악가, 의사, 기사, 수예가로 키우고 싶었다.

남편은 녀인의 어깨를 두손으로 감싼채 다산모의 잔근심이 가득 실린 어글어글한 검은 눈을 오래도록 들여다 보면서 《걱정마오, 다 잘될거요.》 하였다. 이제 인생의 두번째 굴입돌이로 돌아 서려는 이 마당에 와서 다시 받게 된 뜨거운 포옹도 그것을 예언하는 것일거라고 녀인은 가슴 울렁이며 생각하였다.

살아서는 다시 못 볼수도 있는 살 발은 친척들과 동포들과의 작별은 녀인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으나 두고 가는 땅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도 없었다. 바로 그러했기에 배가 환송의 바다를 이룬 부두를 떠나 조국을 향하여 선수를 돌렸을 때 녀인은 아직도 배전에 붙어 서서 눈물범벅이 되어 손을 흔들고 있는 아이들을 서둘러 선실로 몰아가며 매정스레 소리쳤다.

《뒤돌아 보지 말아.》

그만 해도 철이 좀 있는 만이가 아직 껍적스레 놀란 눈으로 언제 울었든가 싶게 뺨정해진 어머니를 쳐다보며 《엄마, 왜 그러나?》 하였다.

두고 가는 이 땅은 쓰던 달던 녀인의 처녀시절이 흘렀고 사랑이 이루어 졌으며 여섯아이가 태어난 곳이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 한다면 바로 아이들의 고향이 있는 땅이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저녁 하늘이 만나게 해준 사람과 함께 서둘러 뛰어 들어 갔던 길모퉁이 차집도 있고 가랑이를 밟으며 그와 손 잡고 걸어

보던 숲속길도, 갓 난 만이를 남편의 가슴에 안겨 놓고 숫저운 마음으로 젖은 기저귀소랭이를 들고 나가던 시내가의 빨래들도 있는 곳.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일진대 어찌 그런 곳을 두고 가며 침을 뱉을수 있으랴마는 정을 두고 갈수 없고 두고 가서는 안되는 백년숙적의 무리가 도사리고 있는 땅이기에 녀인은 동포들과의 작별에는 가슴을 쥐어 뜯었지만 어지러운 그 땅에다는 눈물 한방울 남겨 놓지 않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뒤돌아 보지 말아. 울음을 그쳐. 눈안에 담이 든것이 있으면 말짱 지워 버려라. 눈안에 담을 땅은 우리가 가는 저 앞에 있다. 거기 가서 실컷 울자꾸나.》

불시에 녀인의 목이 꺾 메이었다.

그를 지켜 보던 남편이 얼른 이 아이 저 아이의 손목을 잡아 쥐며 《엄마 말이 옳아요. 앞을 보면서 빨리들 걸자요. 어서들어가 오빠의 피아노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 보자요.》 하면서 앞서 걸었다. 그러다가 뒤따라 오는 안해를 슬며시 돌아보며 혼자 혀를 차고는 가슴이 후련하게 웃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언제 영치를 대고 편안히 앉아 불새가 없이 뱅뱅 돌아쳐야 하는 녀인의 하루생활에서도 온갖 시름을 잊고 포근한 행복에 잠겨 드는 시간이 있었으니 그것은 개인수업을 받으러 갔던 아들이 피아노앞에 앉아서 그날 배운것을 어머니한테 들려 주는 때였다.

녀인은 그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그 시간은 늘 짧고 아쉬웠다.

아들이 피아노앞에 앉아 침착한 몸가짐으로 연주하게 될 부분의 악보를 펼쳐놓으며 연주전의 준비자세로 들어 가면 마치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지휘봉을 쳐든 때처럼 방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에만 집중되어야 하였는데 (급한 거래관계로 왔던 사람까지도) 방금까지도 껍적스레 울린 세살짜리는 울음을 푼 그치거나 아쉬우면 스스로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마저 울었고 서로 쥐여 박을 내기를 하던 다섯살짜리와 일곱살짜리는 《희망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싸우자고 《정전상태》에 들어 갔으며 소리내며 사탕을 빨던 아홉살짜리는 불이 불룩하게 사탕을 문채로 입을 다물거나 꿀꺼덕 삼켜 버렸다.

이 시간을 빼앗거나 방해하는 그 어떤 사소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녀인이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아이들은 물론 옆집의 사람들과 거래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늘 짧게만 여겨 지던 어머니의 그 행복의 시간이 오늘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아들의 연주가 조국으로 가는 배우에서 끝날줄 모르고 이어지고있는것이다.

피아노두리에 모여 선 사람들이 아들에게 일어날 짬을 주지 않았다.

한 곡이 끝나면 박수와 감탄과 앞길을 축복하는 친절할 말과 함께 다른 곡을 타줄것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묻는듯 한 눈으로 자기를 돌아다 보는 아들에게 녀인은 가장 행복한 어머니만이 지을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조국에 가면 아들에게 꼭 피아노공부를 시키라고, 그러면 성공할것이라고 친절하게 권고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제부터 피아노결을 뜨지 않고 아들의 연주를 류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던 점잖고 생각이 깊어 보이는 중년남자였다.

《우리 애가 꽤 해낼수 있겠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것은 성공이 아니다. 네가 피아노 연주가가 되려면 네 앞에 다른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웁습니다. 어느한 선배음악가는 자기의 저서에 이렇게 썼더군요.

<그가 어린이건 소년이건 청년이건간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희망하는 악기를 배우기 전에 이미 어떤 음악을 정신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재능과 수재의 비결은 그가 처음으로 건반을 치거나 활을 긋기에 앞서 그의 머리속에 언제나 음악이 생동하게 살아 있다는데 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나한테도 그런것이 있는 줄만 알고 시작을 했다가 40대에 와서야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물려섰습시다마는 당신의 아드님한테는 내가 없음을 통탄한 그런것이 보입니다. 귀국하길 잘했습니다. 조국은 저 애가 가진 재능을 알아 볼것이고 끝까지 키워 줄테니까요.》

녀인은 아들의 장래를 그토록 찬란한것으로 축복해 주는 고마운 사람에게 거듭 사의를 표하였다.

녀인은 지금 자기네가 배길을 가는것이 아니라 아들이 펼쳐놓는 아름다운 음악의 나래에 실려 하늘길을 가는 마음이었다.

녀인은 한자리에 그린듯 서서 교실에서 울려 나오는 아들의 피아노소리에 귀를 기울이었다.

밤길

조국의 가을날씨는 차가웠다.

초대소를 나오며 두툼한 털옷을 꺼입었는데도 녀인의 살결 고운 얼굴과 입술은 푸릿푸릿해졌다. 게다가 어느새 흘러 내리는 찬 눈물이 녀인의 온몸을 얼구었다.

그들 여덟식구는 초대소를 나오는 마지막가족이었다.

초대소에서 있는 보름어간에 같이 귀국한 사람들은 각기 먼저들 떠났던것이다.

그들을 배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마음씨 고운 호실관리원처녀는 차가 떠날 림박에 이르러 웬일인지 눈물을 보였다.

보름어간에 벌써 그런 정의 다리가 이어 졌을가.

평양으로 떠나던 사람들과의 작별은 자못 쓸쓸했었다.

《우린 고동무네가 제일 첫번째로 평양에 가게 될것 알았는데 우리가 먼저 가는구만요.》 하고 미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너무 상심마십시오. 아드님이 가진 재능을 결코 묻히지 않을것입니다. 조국이니까요.》

자기는 평양교외의 차그마한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될것 같다면서 만이의 미래를 빛나는것으로 축복해 주던 중년남자가 녀인을 고무하였다. 남편은 그들을 배려여 역에까지 따라 나갔으나 녀인은 초대소마당에서 그들과 헤어져서는 들어 와 침대에 쓰러졌다.

만이가 입다 작아 지면 둘째에게, 둘째가 입던것은 이제 태여날 셋째를 위해 하나라도 버릴세라 깨끗이 빨아 건사해 두면서 《만약》을 생각하며 늘 여유 있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던 자식 많은 이 녀인이 이번만은 그것을 잊었던것이였다.

믿지 말고 바라지 말라. 그랬다가 그대의 그 간절한 소원이 성취된다면 기쁨은 곱절로 커질것이요, 믿었다가 안되면 그대를 쓰러뜨릴지도 모를 일이어니...

고달픈 인생을 얼마든지 험하게 살수 있는 이런 묘리도 있는것인데 왜 벌써 그것을 잊었던가.

녀인은 어질고 고지식한 남편이 배치문제로 영접국일과 담화할 때 《조국이 필요하다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데 가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나한테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리라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것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드님이 피아노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수가 없지요. 아마 착오는 거기서 생겼을겁니다. 그러니 아주머나라도 이제 가서...》 하고 권고하는 사람이 있기에 호실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막아섰다.

《여보, 이러지 마오.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하고 오는 개선장군들이요? 너무 걱정마오. 다 잘된거요.》

녀인은 이렇게 마음이 곱고 고지식한 남편이 처음으로 야속하게 여겨 졌다.

남편은 그런 안해와 마주 서기를 두려워 하였다.

이제는 모두가 가버린 텅 빈 이 초대소에 혼자 남아 있을 생각이 없었다.

시내구경을 나간 남편이 들어 왔을 때 녀인은 건강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 났다.

《어서 떠나요. 당신이 배치된 농장으로요. 어디로든 빨리 가자요.》 ...

인듯언듯 지나쳐 가는 어둑어둑한 차창밖에서

는 마가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런 창밖을 내다 보는 녀인의 머리속에는 청진초대소에 짐을 벗어 놓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퍼그나 예쁘게 생긴 초대소관리원처녀가 조국의 향기를 맡으시라며 다반에 노릿노릿한 사과를 곱게 썰어 들고 들어와 이 아이, 저 아이에게 쥐여줄적에 그 한알을 반갑게 받아들며 녀인이 언저리 물었다.

《처녀동무, 평양음악대학이 시내 어느 바루에나 있소?》

처녀는 분명 모르고 있는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급한 일이라면 제가 얼른 알아 가지고 오겠어요.》 하고는 나가려고 하였다.

《아니, 급한 일은 아니요.》 하면서도 아들이 이제 가게 될 평양음악대학을 음악처럼 아름답게 생긴 이 처녀가 모르고 있다는것이 좀 서운하였다.

《처녀는 음악을 사랑하오?》

《아이, 아주머니두...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요. 노래가 있어 우리는 미국놈들과 싸워이겼고 그 노래가 있어 폐허가 된 조국강산을 락원으로 일떠세운것이라합니다.》

《훌륭한 말이에요. 노래와 함께 인생로를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망하지 않을것이라는 격언이 있대요.》...

차창밖으로 간밤에 비를 맞은 청신한 가을아침의 풍경이 흘러 갔다.

렬차는 자주 산을 끼고 달렸다.

《산이 많은 나라...》

만팔이 먼저 운을 뗐다.

《아름다운 강의 나라.》

긴 굴속을 지루하게 뚫고 나온 렬차가 그릉그릉철다리에 들어 섰을 때 셋째가 체격 누나의 뒤를 이었다.

《해 솟는 아침의 나라》

렬차는 흰거품을 일구며 뒤설레이는 바다를 옆에 끼고 달리고 있었다.

《인심이 좋은 나라.》

아버지의 그 말을 증명하듯 새하얀 앞치마를 두른 렬차관리원처녀가 문을 열고 들어 오더니 상궁 웃으며 밥과 여덟개를 놓아 주고 나갔다.

무슨 일로 해선지 차가 도중에서 좀 지체되어 그들은 청진초대소를 나올 때처럼 다시 어두워져야 차에서 내렸다. 작은 역에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나마 손님들이 흩어져 가자 자기네 여덟밖에 없었다. 늘 잘될거라고 하던 남편도 이 순간엔 어지간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한참 서성거리는데 자동차가 급히 와서 멎어 서고 채 멎기도전에 한사람이 운전칸에서 뛰어 내렸다.

《귀국하여 오는 분들이 아십니까?》

그는 달려 오자바람으로 남편의 손에서 트렁크를 받아 쥐려다가 오롱조롱 모여 선 아이들을 보

고는 네살짜리를 닮은 불안을 느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먼 길에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군인민위원회 과장입니다.》

적재함에 봉실히게 비료가마니를 실은 화물자동차였다.

과장은 그들을 위해 배스를 낼수 없었던데 대해 미안해 하였다. 두살짜리를 안은 녀인이 운전칸으로 오르자 밖에서 문을 탕 닫아 준 과장이 떠나자고 소리쳤다.

무리진 달이 희끄무레 비치는 밤이었다.

차는 야산들과 구름이 밋밋하게 기복을 이룬 평원길을 퍼그나 오래 달렸다.

길옆 또는 선명치 못한 하늘을 배경으로 룰락만을 겨우 가려 볼수 있는 야산들밑에 마을들이 널려 있었다. 깜박거리는 불빛들이 마을임을 알려주었다.

자동차는 좁은 달구지길에서 다이아가 터져 길을 막고 있는 프락프락과 맞닥 들렸다.

봉실히한 가마니짐우에서 덜덜 떨며 오던 아이들이 오줌을 참고 있었던지 내려 가자고 서둘렀다.

《가만, 덤비지들 말아라.》

운전사가 아래서 한아이씩 닮은것을 받아 내려주었다.

혼자 내리자고 덤벼치던 어느 애가 그만 진탕에 떨어 지며 신발이 젖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운전사가 어디 가서 버짙을 한아름 안고 오더니 불을 놓았다. 아이들이 불앞으로 모여 들었다.

과장이 담배쌈지를 꺼내 자기부터 한대 먼저 말

더니 남편에게 권하였다.

반갑게 받아 들기는 했지만 담배를 어떻게 말지몰라 서툴게 손가락을 우물대는 남편에게 운전사가 웃으며 대신 말아 주었다.

어지간히 시간이 흘러서야 걸어 가는 편이 더 낫겠다는 결론에 이른 모양인지 남편이 차문을 열어 내리라고 했을 때 녀인은 문짝을 도로 탕 잡아 당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속에 버짙불이 타오르고 가마니를 깔고 불옆에 앉은 아이들이 하나둘 끄덕끄덕 즐기 시작하였다.

누구인가 또다시 조심스레 차문을 열어 녀인의 마음을 달래이는 사람이 있었다.

《아주머니, 내리시우. 나도 귀국해 온 녀성이랍니다.》

불옆으로 주런주런 다가서며 졸던 아이들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에서 늦어 지는 차를 기다리다 이곳까지 마중 나온, 이제 녀인이 같이 살게 될 이웃들이었다.

누구인가 녀인한테서 아이를 포대기채로 풀어가고 또 다른 누구가 트렁크마져 앓아 들더니 이번엔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 쥐

였다.

《발을 조심조심 높이 들며 걸으시우. 돌부리에 걸채지 않게... 조국에 와선 밭길을 걷는것도 배워야 한다오.》

조국의 시간과 날들

역에 이사집이 도착했다는 통지가 왔다.

그것을 실어다 미쳐 들어 놓지도 못했는데 김장배추와 무우를 실은 소달구지 석대가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너무 기차서 한달구지만 부러 놓고 도로 가져 가라고 하니 식구수에 따라 공급된거라며 그냥 부러 놓고 가버렸다.

3년전에 귀국했다는 정희엄마가 리상점에서 김장소금을 준다면서 같이 가자고 왔다가 자기가 대신 타다 주었다.

김장양념감으로 생물명태를 얼마간 가져 왔는데 이번에도 여덟식구라고 정희네보다 끊이 되었다.

아이들의 입학수속때문에 학교에서 부른다는 연락이 왔다. 너희들끼리 가라고 말이한데다 8살, 10살짜리 동생들을 달아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말이 4월명절에 선물교박을 준다면서 옷치수부터 채더라고 하였다. 탁아소소장과 유치원교양원 처녀가 집들이구경을 왔다면서 통성냥을 사들고 와서 김장배추를 다듬어 주고 가며 아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보내라고 하였다.

그들은 내키지 않아 하는 너인에게 탁아소와 유치원을 통한 학령전어린이교양의 우월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직 풍족치 못한 우리 농장실정에서 아이들을 탁아유치원에 보내야 흰쌀밥을 먹일수가 있고 사탕알이라도 구경시킬수 있게 된다고 말하였다.

보내지 않으면 또 찾아 오리라는것을 알자 남은 세아이마저 맡겨 버렸다. 하지만 사흘이 못가서 두살짜리도 탁아소에서 찾아 왔다. 하는일이 하루종일 혼자서 빈 방을 지키고 있자니 텅 빈 초대소에 혼자남아 있던 때처럼 무거운 고독이 스며 들었다.

집은 방두칸, 부엌 한칸, 부엌옆에 고간이 달린 독채였다. 조개젓단지는 없었지만 불도 잘 들고 남향으로 앉아 방도 아득하고 집앞으로 터밭까지 달려 나무랄데가 없었다. 이전처럼 피아노를 들여 놓을 말이의 방 한칸이 따로 없는것이 한스러웠다.

자기네한테 이 집을 내주고 혼자 사는 후방가족할머니네 옷방으로 이사를 했다는 이 집주인은 가면서 품을 들여 만든 닭장애다 검정암닭 한마리를 남겨 놓았다.

닭은 이사를 온 첫날에 새 주인들한테 알을 하나 낳아 주었다.

처음부터 신세를 지기가 싫어 돈이라도 주자고 하는데 마침 주인이 찾아 왔다.

알고 보니 차에까지 마중 나와 업히지 않겠다

고 뒤걸음질하는 셋째 아들을 슬쩍 들쳐 업고 들어오던 사람이었다.

50대의 나이에 땅냄새가 폭 뻗 농군인데 마을에서는 그를 일범이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시꺼멓고 부리부리한 눈에 웃음을 담으며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온 강아지 한마리를 꺼내 놓았다.

《아주머니를 이 고장에 정들이게 하는데는 나보다는 이놈이 한몫할것 같아 가져 왔수다.》

흰 바탕에 검정얼룩이 간 투실투실 젖살이 오른 강아지였다.

집에는 말이의 학급동무가 가져 온 토끼도 두마리 있었다. 이것들이 너인을 동무해 주었다.

조반을 먹기 바쁘게 큰애, 작은 애들 모두 뿔뿔이 제 갈데로 다 나가버리면 너인은 빈 방에 있기가 싫어 속상한 사람한테는 집안보다 밖이 낫고 밤보다 낮이 나으며 혼자 있기보다 사람들 속에 섞여 일을 하는 편이 썩 낫다는것을 너인은 모르지않았다.

남편의 말마따나 이제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다 맡아 키워 주는데 정희엄마와 같이 탈곡에 바쁜 사람들을 도와 짚단속에 섞인 벼이삭이라도 골라 준다면 남 보기도 좋고 속상한것도 덜어지련만은 그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여 주지 많으니 그것이 더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일밖에 몰랐다. 낮에 찾아 가면 누구도 만날수가 없었다.

저녁이면 너인은 종종 두살짜리를 안고 이 집저 집을 찾아 다녔는데 별반 손기척도 없이 부엌문을 열고 들어 서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3분간 멍청히 문턱에 서있다가는 나와 버리곤 하였다.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저녁에 들어와서도 일을 하고 있었다.

새끼를 꼬고 부엌바닥에서 방풍장나래를 엮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찾아 들어 가니 일범이네 집이었다. 신발도 벗지 못하고 부뚜막에서 밥상을 받고 있던 주인이 너인을 반겼다.

강낭쌀이 보기 좋게 섞인 밥에다 들깨가루를 넣은 말간 무우국, 김장을 하고 남긴 양념그릇을 일별하며 왜 밥상이야 방에 올라가 받지 못하는가고 물었다.

뜨락뜨락이 지금 발동을 끄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였다. 논에다 퇴비를 실어 내는데 오늘 밤까지나 1분조에서 또락뜨락을 쓰고 래일 아침부터는 2분조에 넘겨 주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는데도 잡곡밥에 무우국밖에 차례지지 않는가고 물었보았다.

그는 사람 좋은 얼굴에 미소를 한가득 담으며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처럼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면 오래지 않아서 남 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전이 된 이듬해 봄에 종자자루아구리를 꼭 움켜 쥐고 앉

아서 생콩 한줌 꺼내먹고 싶은것도 참으면서 굶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강낭밥이 얼마나 맛있고 크게 생각되는지 모른다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서 먹는다는 흰쌀밥에 고기국을 가져 와도 이것과 바꾸어 먹지 않을거라며 껄껄 웃었다. 그리고는 정색한 어조로 고동무가 해보지 않던 일을 하느라 손에 물집이 다 생겼던데 집에서 뒤받침을 잘해주라면서 지금이 제일 힘든 때인데 이 고비만 넘기면 좀 수월해질거라고 고무하였다.

그 이야기가 있은후부터는 모두가 일하는데 나가다니기도 미안하여 녀인은 마당안을 맴돌며 학교 간 아이들을 기다리다가는 집으로 들어서는 말이의 기색을 살피곤 하였다.

어떤 때는 발뒤축에 줄줄 묻어 따라 오는 강아지를 뒤에 달고 학교쪽으로 가보기도 하였다.

한번은 풍금소리에 끌려 교사의 창문밑에까지 간적이 있었다.

말이가 풍금을 타고 아이들이 일어나 노래를 부르는데 음악을 가르치는 중년의 녀인이 풍금옆에 서서 주의 깊은 시선으로 아들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녀인은 풍금을 타고 있는 아들이 지금 교수선생이 늘 강조하던대로 《기교보다 먼저 음악의 세계에 끌려》 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들하게 죽은 손》으로 마지 못해 건반을 두드리는지 알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을 가늠하기는 힘들었다.

그가 만일 중학교와 인민학교가 같이 있는 이런 자그마한 시골학교의 음악실이 아니라 음악대학의 전공과목실에 앉아있는것이라면 얼굴표정 자체도 저렇지가 않을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요사이 기분이 펴 좋아서 학교로 나갔고 집으로 올 때는 새로 사권 동무들을 달고 들어 와 그들에게 피아노도 구경시키고 연주도 해보였다. 토끼풀도 성수가 나서 뜯어왔다.

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들이 웃고 다니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물었다.

《여기가 좋니?》

《좋아요.》

《뭐가 좋니?》

《동무들도 좋구 선생님들도 다 좋아요.》

《사람들이야 물론 다 좋지, 조국이 아니냐.》

《음악선생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대요.》

《왜?》

《나 보고 음악소조에 들지 않겠는가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이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건 잘했다. 넌 듣고 싶겠지?》

《듣고 싶어요.》

《그만 두어라. 타지 않던 풍금을 하다가 모쳐

럼 익혀 오던 피아노노지법이 다 형클어 질가 걱정돼서 그런다. 네 열손가락 하나하나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 갔는지 넌 아직 다 몰라. 그래서 네가 토끼풀을 해오는것도 엄마가 싫어 하는거다. 손을 아껴야지.》

《우리 피아노를 가지고 나가면 안되나요?》

《안돼.》

집안에서 울려 나오는 피아노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동리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말이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부탁하였다.

어느 날 작업반 세포비서인 일범이아버지가 아들에게 노래 《내 고향》을 타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들은 한번 련습도 안해 보고 그 좋은 노래를 《두드려 대》는것은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니 닷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였다.

12살짜리한테서 나오는 어른같은 그 말이 너무나 기특하여 세포비서는 열흘이라도 기다려 주겠으니 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날엔 작업반사람들을 다 데리고 너의 연주를 보러 오겠노라고 하였다.

누구보다도 아들의 말뜻을 깊이 리해하는 녀인 으로서는 뜻이 꺾이지 않은 그런 아들이 그지없이 고맙고 대견하였다. 그리하여 녀인은 아들이 약속한 그 닷새와 하루하루를 시간과 분으로 쪼개놓고서 또다시 엄격한 《가정교사》로 돌아왔다.

말이의 방이 따로 없는 지금에 와서 녀인은 아래방에 있던 아이들까지 마당으로 모두 내보내고 문밖에 지키고 앉아 방안에서 울려 나는 피아노소리에 귀를 밝혔다.

음악교원이 세번인가 찾아와 아들의 연주를 지도하였다. 사대 음악과를 나왔다는 선생인데 녀인이 보기에든 피아노에 아주 능하였다. 그것이 녀인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녀인은 자기 생활의 주요 알맹이를 이루던 《희망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에 아들의 피아노연주를 보차고 온 사람들이 아래웃방에 빼곡이 들어 앉았다.

아들은 어지간히 긴장된 표정이였다. 그것이 녀인을 불안케 하였다.

그런 아들에게 음악교원이 뭐라고 귀속말을 하였다. 그러자 아들이 싱긋 웃으며 몸을 풀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단번에 아들의 몸가짐을 바로 잡아 준 녀교원의 능력에 녀인은 머리를 끄덕였다.

아들은 어머니가 눈에 익힌 그대로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보면대예 악보를 펼쳐놓고 나서 의자를 조금 당겨 앉으며 연주자세를 취하였다.

일본을 떠나 두달만에 피아노옆에 정자세로 앉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녀인의 눈에 눈물이

핑 고여 올랐다.
녀인은 어떻게 연주가 시작되었는지 보지 못하였다.

유연하고 탄력 있고 재빠른 아들의 두손이 거창하고 은은하면서 정서가 짙은 노래의 선율을 타고 건반위로 춤 추듯 흐르고 있었다. ...

연주가 끝났지만 박수소리는 인차 나지 않았다.

심호흡을 하듯 노래가 준 여운을 한껏 《들이키고》 나서야 박수들을 쳤다.

음악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다. 녀인은 연주가 끝나기 바쁘게 박수를 쳐서 연주가 자기의 심장으로 펼쳐놓은, 오직 음악만이 줄수 있는 깊은 사색의 세계를 순간에 다 깨쳐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질색하였다.

신발도 벗을 사이가 없어 부뚜막에서 밥을 먹으며 그거 일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텅텅한 농장원들이 아들의 음악을 그처럼 깊이 이해하여 주고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자 녀인은 감격하였다.

노래가 있어 미국놈들과 싸워 이겼고 노래가 있어 재더미우에서 락원을 일떠세웠다고 하던 초대소관리원처녀의 말이 떠오르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수 없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일수 없으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메마르고 차거운 사람일수 없다는 새삼스런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칠줄 모르는 근면함도 어려워도 불평을 모르고 래일을 믿는 락관, 소박해서 더 뜨겁게 느껴 지는 인정미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리라 ...

아들을 예술가로 키우려는 녀인한테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의 벗이었다.

녀인은 처음으로 가슴이 훈훈해 짐을 느끼며 돌아 가는 사람들을 대문밖까지 따라 나가 자주 놀러들 오라고 부탁하였고 음악선생에게는 들어가 차라도 한고뿌 하고 가라고 손을 잡아 끌었다.

농촌생활은 단조롭게 흘러 갔다.

일본에 사는 시조카한테서 편지가 한번 오고 집에 와서 아들의 피아노수업을 지도한다는 조건으로 만이가 음악소조에 들었을뿐 녀인을 특별히 기쁘게 했다던가 감동시켰다던가 아들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던 랭기는 봄눈처럼 스르르 녹아 내리고 있었다.

때없이 돌부리를 걸어차며 위태롭게 허둥대던 절음새는 예전처럼 침착하고 자신있고 조용한 것으로 되돌아 왔다. 불안과 걱정이 뒤영켜 피기없이 창백해 졌던 얼굴에는 다시 아이 많은 어머니의 잔근심과 부드러움이 실렸다.

녀인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꼭 같은 심정으로

로 열흘에 한번씩 돌아 오는 농장 휴식날을 기다리었다. 그날에 남편과 할 일을 미리 계획해 두었으며 다른 집들에서처럼 즐겁게 보내려고 원심을 썼다.

상점에 가서는 차례를 기다려 줄을 썼고 배반하는 일 없이 다른 집의 곱절을 탄다고 판매원한테 웃어 보였다.

학부형회의에 남편 대신 가서는 아이들의 생활과 학업성적을 놓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 있다가는 여섯아이를 다 농사군으로 만들수 있다는 불안도 놀려 버렸다. 아직 코흘리개들의 앞길을 벌써부터 결정해 놓고 속을 태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도대체 자기는 조국땅에 발을 들여 놓는 첫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조바심을 쳤다.

녀인은 자기한테 다시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심사숙고할수 있도록 하여 준 위대한 의사이며 교양자인 조국에서 보낸 날들에 감사를 드렸다.

그는 경우 밝은 녀인의 량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다.

자기는 피를 흘리고있던 조국에 총을 메운 자식 하나 내세우지 못한 녀성이고 아들의 피아노수업료는 마련하느라 애 쓰면서도 재더미우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건설장에 돈 한푼, 벽돌 한장 보태지 못한 녀성인데 마치나 큰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우선과 특대를 바라면서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리고 두덜거렸다. 그런데도 조국은 탓하지 않았으며 철없는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처럼 너그러웠다. 오직 어머니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다.

역에까지 따라나와 눈물을 보이던 초대소관리원처녀이며 빠스를 내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던 과장이며 먼데까지 마중 나와 아이들을 하나씩 돌쳐업고 들어 오며 조국에 와서는 밤길을 걷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일깨워 주던 사람들...

살던 집을 내주고 강아지를 가져 오고 김장손을 도와 주고 집에까지 찾아 와 아들의 음악공부를 지도해 주고 잊을세라 식구수를 장부에 적어 놓고 간장 한사발이라도 더 주려고 애 쓰던 사람들의 인상이 이제 와서는 한형어리로 뭉쳐 지며 다심한 조국의 표정으로 안겨 오는 것이었다.

녀인은 두살짜리까지 탁아소에 맡겨 놓고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하였다.

일을 나가던 첫날 새벽에 녀인은 조반쌀을 얹혀 놓고 정희 엄마를 찾아갔다.

《정희 어머니, 이제 일 나가실 때 좀 데리고 가줘요. 어쩐지 처음 일하러 가자니 남 보기가 어색하고 면구스러워 그림니다.》

녀인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나도 그랬소. 어찌면 신통하오? 첫날 밤을 자고 난 새색시보다 더 부끄럽더라니까.》

정희 엄마도 기분이 좋은지 너인의 손을 잡아 쥐며 즐겁게 웃었다.

《우리 일찍 차비를 해가지구 남들이 일 나오기 전에 먼저 나가자구. 모두 일하는데 들어 가기보다 그편이 썩 낫다우. 나도 그랬소. 머리를 수긋하구 탈곡장마당에 널린 콩알을 쓸어 담는데 사람들이 나오더구만. <아니 이게 누구요? 정희 엄마가 일을 다 나왔소?> <나오잖구, 난 뭐 놀구 먹는 건달인가.> 머리를 들지 못하구 웅알거리는 데 일범이 아버지가 내 어깨를 슬쩍 건드리며 <집에서 혼자 좋은 담배를 피운다던데 한대 주.> 하질 않겠소. <이젠 안 피워요.> 하고 내쫓았지. 좋다구들 웃어 대두구만. 그다음부터야 성수나구 재미나구 말을 하고 싶어 지구...》

집에 오니 남편이 조반을 하다 말고 어데 갔었는가고 물었다. 대답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다가 정희 엄마가 하던 말까지 그대로 읊었다. 《정희 엄만 혼자 가라고 하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소.》

남편은 고맙소, 걱정 마오, 다 잘될테니 하는느로 너인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오늘처럼 아름다운 당신을 그 똥보로친한테 말기다니... 우린 좀 느지막해 나가지요. 오늘은 작업반에서 모두 산에 식수를 가오. 오래간만에 작업반사람들이 한데 모여 가는데 산놀이 삼아 점심을 다 잘 싸가자는 약속이 있었소. 당신숨씨를 한번 발휘해 보우. 김밥도 하구... 우린 아직 여기에 와서 신세를 진 고마운 사람들에게 인사를 못했지? 참, 이런 기회가 이처럼 갑작스레 찾아 오다니...》

그들은 습기찬 묵은 가랑잎의 향기를 맡으며 아직 해벌이 스며 들지 못한 호젓한 계곡을 따라 걸어갔다.

《당신과 만나 산보도 많이 했고 신혼여행도 했지만 조국강산에 나무를 심자고 이렇게 걸어 보기는 처음이구만. 다음번엔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같이 옵시다. 어보, 내가 죽은후에라도 오늘날만은 추억하오.》

무슨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가고 하면서도 너인은 이제 몇년후에 일터에서 순직한 남편의 령구를 앞세우고 이 길을 가며 눈물겹게 오늘을 추억하게 되리라는것을 몰랐다. 그리고 해마다 한가위가나 청명날이 오면 나무모를 진 아이들과 같이 이 길을 걸어 가게 되리라는것도...

음식함지는 너인이 이고 마실것이 든 배낭은 남편이 지고 국바게뜨는 팍지자루에 꿰서 같이 들고 올라 가니 한창 나무를 심고 있던 작업반의 젊은이들이 《어머니!》하고 소리치며 달려 내려와 입을 받아 내렸다.

일범이 아버지가 장갑을 벗어 쥐고 마주 나오며 《아주머니,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하고 웃었다.

《아주머니, 조국의 가을날이 아닙니까.》

마주 웃으며 너인도 점잖게 대답하였다.

그날은 로동이 이처럼 성수가 나고 로동의 열매가 모두 나의것으로 느껴 보는 행복의 하루였다.

남편은 구덩이를 파고 너인은 골짜기로 내려가 물을 길어 왔다. 나무모의 뿌리가 꺾이지 않게 고무 퍼놓고 보드라운 흙을 한벌 덮으면 그우에다 물을 주었다.

처음에는 아이들똥으로 여섯그루를 나란히 먼저 심고 그뒤에 보호자격으로 두그루, 주변으로 돌아 가면서는 제주도에서 홀로 두고 떠난 어머니와 시부모, 통일강산에서 만나게 될 친척들과 친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똥으로 심었다. 그리고 이 어린 이빨나무모가 미출한 기둥들로 자라 숲을 이룰 적에 그때의 우리 조국과 자기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아들아, 눈에 담아 가지고 가거라

너인은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던 바로 그것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꿈의 계시도 없이, 매일 똑같은 일로 단조롭게 흘러 가는 보통날에, 저녁마다 마실을 오는 이웃집할머니처럼, 만이의 동무들처럼 문도 두드리지 않고 찾아 들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소원하던 그것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 오는 너인을 잠깐 놀래워 주려고 실망이라는 어둠을 앞세워 놓고 그속에 숨어서 밤문을 두드리었다.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하게 될 설맞이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다면서 온 농장의 축복속에 평양학생소년궁전으로 갔던 학교음악소조원들이 평양전학만 며칠 하고 그냥 돌아 왔다.

예정했던것보다 공연시간이 매우 긴장하게 조직되어 몇개의 종목이 불가피하게 빠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궁전에서는 서운해 하는 학생들에게 버스를 내어 평양전학을 시켜 주고 돌아 올 때는 악기들을 한집씩 지어 주었다.

텔레비죤에서 보자고 설날만을 기다리던 부모들이 눈물을 툭툭 떨어지며 기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위로하였다.

아들은 없었다.

《집의 아들은 평양에 떨어 졌습니다.》

음악선생이 차에서 내려 오며 알려 주었다.

《너무 서운해 하길래 평양구경이나 더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방학도 되고 해서...》

《그래요?》

무르팍이 매시새해 왔다.

바랄걸 바래야지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었다.

《래일모레가 설인데...》

노여움이 이번엔 선생한테로 옮겨 지었다.

《조국에 와서 맞는 첫설인데 평양에서 쇠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제 집처럼 지낼수 있는데다 부락

하고 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에 잠겨 걸어가는 너선생을 보며 그때에야 너인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였다.

설날아침 일찌기 너선생이 인사를 하러 왔다.

그는 남편과 너인한테 세배술을 남실남실하게 부어 놓으며 아들이 없어 서운하겠다고 먼저 위로를 하고 나서 조국에 와서 뜻 깊은 새해를 맞고 있는 이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남편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그때 만일 너인이 설날에 보통으로 오가는 그런 인사말에 남편이 왜 그처럼 감격해 하고 고마와 하는지 곰곰히 생각하여 보았더라면 음악교원이 축원해 준 그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구경을 더 하자고 평양에 남은것이 아니었다.

1월 16일부터 18일사이에 있게 되는 평양음악대학입학시험에 응시시키자고 너교원이 소개해준 이름난 피아노연주가의 집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랑스런 제자의 일이 부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정의 주부가 자리를 뜨기 바쁜 설날아침에 자기 집부터 찾아 왔다는것을 너인은 몰랐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지금 내가 설맞이공연에 뽑힌줄만 알고 있습니다. 불합격이 되면 나보다 엄마가 더 피로와 하겠기에 아버지한테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나한테 《애야, 너무 바라지 말아라. 우리 바라지 말고 있다가 되면 좋은거구.》합니다. 마음이 약한 내가 한가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병이 날것 같아 그러지만 나는 되려 우리 엄마가 다시 앓아 누울가봐 겁납니다. 그러니 우리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1월도 다 가고 있던 어느 날 아침 평양 갔던 아들이 음악선생의 손목을 잡고 마당으로 뛰어 들며 숨 넘어 가는 소리로 어머니를 찾았다. 그리고는 토방에 내려 서던 어머니의 목에 매여 달리며 《엄마, 엄마의 소원이 뭐였나요?》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었나 묻질 않소.》

신발을 끌며 마루에서 급히 내려 서던 남편의 갈린 음성에 놀란 너인이 목을 감고 있는 아들의 팔을 풀어 내렸다.

남편이 물기가 어린 눈으로 자기를 보며 웃고 있었다.

《당신의 아들이 평양음악대학 학생이 되였는가 보우.》

옆에서 조용히 웃고 서 있던 너선생이 그의 손에 입학통지서를 쥐여 주었다. 숨이 각 막혀 말

이 안 나가던 몇분간이 지나서야 너인은 조용히 흐느끼며 선생에게 세상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놀래우는 법도 있는가고 말했다.

너인은 오래동안 진정을 못하였다.

《여보, 선생님을 이렇게 추운데다 그냥 세워놓겠소? 우리 애를 마중하러 첫 새벽에 역에 나가셨다오.》

그제야 너인은 선생님이 얼마나 춥고 시장할까 하는 생각에 바빠 서두르면서도 혼자 웃었다.

쌀을 일어 앉히면서 웃고 기름이 짹짹 도는 가마뚜껑에 행주를 두르며 다시 웃었다.

방에서는 피아노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다.

말이가 시험문제에 나왔던 곡을 선생한테 들려주는것 같았다.

너선생이 외투를 벗어 놓고 부엌으로 내려 왔다.

싫지 않았다. 아궁앞에 앉아서 몸도 녹이면서 불이나 좀 때달라며 웃었다.

《아무리 그렇다구 해도 사람을 이렇게 갑작스레 놀래워 주는 법이 어디 있소?

누굴 탓하겠소. 하두 교악한 세상에서 살아 오다니 거기서 하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걸. 선생님, 나도 이제부턴 바라면서 살렵니다.

자식이 많으니 바라는것도 많아요, 바라구 또 바라구 믿겠습니다. 오늘이 어려워도 래일을 믿으면서 웃으며 살아 가는 조국동포들처럼 말이예요.》

개다리소반을 마주하고 선생과 아들이 앉았을 때 말이가 시험결과를 공시하던 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게시판에 합격자명단이 붙었다고 해서 막 뛰여갔어요. 먼저 갔던 한 아이가 내앞으로 올면서 걸어 왔어요. 그런 애를 보고는 나도 가슴이 너무 떨려 더 가지 못하구 그 자리에 툄 멎어 섰어요. 그래서 함께 가던 동무한테 부탁했지요 뭐. 네가 가서 보구 내 이름도 있으면 소리치라구... 눈을 감구 100까지 세고 나서 눈을 떠보니 그 애가 막 손을 흔들며 나한테로 뛰여 왔어요.》

《에그머니나...》

숨이 가빠 오는지 너인이 가슴에 손을 가져다졌다. 아들이 등교를 앞두고 있던 3월 어느 날 군당에 갔던 남편이 또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안고 왔다.

농장원 고창옥동무를 공산대학으로 부르는 파견장을 가지고 온것이였다.

《여보, 내가 오늘 죽을가봐 무섭소. 좋은 일도 지나치면 좋질 않다던데요.》

《죽긴,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니요. 두고 보오. 더 좋은 일이 찾아 들질 않나. 그때를 위해 심장의 한토막은 큼직하게 남겨 놓소.》

대학으로 떠나던 날 아침이였다.

밖에 승용차가 왔다고 하였다.
일범이 아버지가 마당으로 들어 오며 큰소리로
알려 주었다.

부자가 한시에 대학생이 되었다면서 평양까지
태워다 주라고 차를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한창 조반상을 받고 있던 식구들이 일어 서서
세포비서를 억지로 밥상에 끌어다 앉혔다.

《하, 이러다 승용차가 가버리면 안되겠는데...》
하면서도 밥상앞에 닥침 다가앉아 녀인이 부어
주는 술 한고뿌를 맛나게 들이켰다.

《우리를 태우러 왔다는 승용차가 가진 어델 가
겠소. 운전사를 이렇게 붙들어 앉혔는데...》

다시 한고뿌를 부어 주며 녀인이 웃자 그와 남
편이 껄껄 따라 웃었다.

대문앞에 세워 놓은 《승용차》가 빨리 가자고
《음메-》하고 《경적》을 울렸기때문이였다.

깨끗이 쓸고 새 가마니를 깔아 놓은 소달구지
에다 기숙사생활을 하게 될 부자대학생의 배낭이
며 책포마리를 내다 싣고 모두 그우에 올라 탔
다.

《아주머니, 승용차를 대지 못해 안됐수다. 이
런 경사가 험질 않은데...》

일범이 아버지가 소고삐를 잡으며 벌쭉 웃었
다.

《일본에서라면 아마 택시라도 불렀겠지요?》

《택시에 대겠나요. 아주머니, 난 이렇게 역에
비료를 실러 가는 우리 농장 소달구지에 얻어 탄
것이 더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댔습니다. 달구지를 끌고
오면서두 혹시 아주머니가 또...》

세포비서는 기분이 좋아서 껄껄거렸다.

《흠새나나는 이런 인정을 돈으로 사겠나요. 이
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예가 내 조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군 합니다.》

녀인의 목소리는 감동에 젖어 있었다.

온 동리가 그들을 바래주었다.

이동방송으로 벼랑상모판에 나왔던 리방송원처
녀가 옆으로 지나가는 그들의 일행을 보더니 《여
러분, 고마운 조국의 품에 안겨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하던 고창옥동무와 그의 아들이 지금 소달
구지를 타고 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축하해 줍시다.》해서 벌이 웃음과 기쁨의 파도로
설레이게 하였다.

마을을 벗어 나 고즈넉한 동구밖으로 나섰을
때 고삐를 잡고 걸어 오던 일범이 아버지가 달구
지 앞채에 걸터앉으며 《아주머니, 좋지요?》하고
벋긋 웃었다.

《예, 이틀데가 없습니다.》

녀인도 마주 웃었다.

《이제 와서 보면 여섯자식의 장래도 장래이겠
지만 이런 인정이 그리워 귀국했다는 생각이 자
꾸 듭니다.》

《그렇겠지요...》

그도 머리를 끄덕이였다.

《수령도 인민도 인정으로 살고 의리를 기둥으
로 삼고 혁명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것이구요. 애가 졸업하자면
한 10년나마 있어야 되지요?》

《예, 전문부를 나와서 대학까지 마치자면 그
렇게 됩니다.》

그동안 보구 싶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학이 있잖습니까. 방학을 기다리는 재미로
살지요. 기쁨을 기다리는것도 역시 기쁨이라 하
질 않나요.》

녀인은 행복한 생각에 잠겨 들며 웃었다.

《이번에 평양까지 따라 갔다 오겠습니까?》

《농사철이 왔는데 어델 가겠나요. 애아버지까
지 가시는데 나라도 열성껏 분조일을 도와야지
요.》

《예-에, 봄씨불임이나 끝나면 한번 가십시오.
아들이 다니는 대학구역두 해야지요. 인생에 그
것두 락이 아니겠습니까. 농장자동차가 이따금
평양으로 가군 합니다. 그럴 때면 한번씩 찾아
가보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비서아주머니.》

그의 진정에 가슴이 몽클해 지며 눈물이 나왔
다.

《나한테서 락이라면 그런 락이 또 어데 있겠습
니까. 대학에서 내 아들이 공부하는 모양을 문
틈으로라도 한번 들여다 보구 오고 싶습니다.》

녀인은 끝내 눈물을 보이교야 말았다.

《소원이 많습니다. 어제는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는걸 그렇게두 바랐구요. 오늘은 또 공부하는
우리 애를 한번 보았으면 하는게 소원입니다. 욕
심이 지내 많지요. 비서아주머니?》

녀인은 눈물을 감추지 않으며 다시 웃어 보였
다.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우리 일범이생각이
납니다.》

세포비서는 담배를 말아 붙이며 먼저 웃기부터
하였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빈터우에서 협동조합이
무어 졌는데 소가 있습니까, 종곡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조합에 내갈 콩 한말이 있었수다.

취라도 한알 굴려 갈세라 자루아구리를 매서
보짱에다 데롱데롱 매달아 농구서는 눈요기나 하
면서 굶는 판이지요. 나가면서 쳐다보구 들어 오
면서 쳐다보구 풀만 먹어 허바닥이구 이발이구
온통 시퍼래진 네 식구가 밥상에 앉아서 떼꾼한
눈으로 콩자루만 쳐다봅니다.

일범아, 조금만 참아라. 저게 이제 비지가 되
구 두부가 되구 기름이 될 날이 온다.

배 고픈 아이한테 그런 말이 통합니까. 한줌
두줌 술금술금 없어 지는걸 모르고 있다가 자루
가 훌쩍해 진 다음에야 알았지요.

굴뚝모퉁이에 숨어서 콩알을 먹고 있는 녀석을

면바로 붙들어 귀썽을 후려 갈겼습니다.

얼굴에 피기 한점 없고 관자노리에 새파란 피줄이 할딱할딱 뛰는 애를 말입니다. 닭은 콩이라도 먹고 있었다면 가슴이 덜 아프겠습디다.

집집에서 내온 종곡들이 다 그런것이였수다.

첫 분배를 타서 손가락에 철철 붙어 올라 오는 흰 쌀밥을 해놓구서 두부국을 한그릇씩 안겨 주며 로친네가 말합디다. 일범아, 실컷 먹어라. 네가 얼마나 먹는지 한번 보는게 이 예미의 소원이였다 하구 말이지요. 이라! 이런 쟈장...》

그는 공연히 잘 걷는 소를 후려 갈겼다.

《이젠 옛말이 됐수다. 우리 수령님덕에 좋은 세 월이 왔지요. 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울쭈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놈들이 백년이 걸려도 일어 서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리마가 좋긴 좋지요. 농업대학으로 가면서 우리 일범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생콩 한줌 채먹다가 아버지한테 귀썽을 얻어 맞던 때를 자나깨나 잊지 않구 공부를 잘해서 실력 있는 농산기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 오겠습니다.> 하하... 그 녀석이 래년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엔 로친네 하구 한번 같이 가보자구 하는데... 이러구보면 나 역시 아주머니와 같은 소원을 품고 있는셈이지요. 이라!》

녀인은 내내 울면서 왔다. 자신의 복에 겨워 울고 일범이 말을 들으며 울었다.

달구지에 앉아서 녀인은 거짓이 없는 수수한 모습으로 아들을 바라주고 있는 마을을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귀 기울이면 음악실에서 녀선생이 타는 풍금소리가 들려 올것만 같았다.

고마운 선생님들이 남은 다섯자식도 만이처럼 그렇게 곱게 키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내세워 줄것이라고 녀인은 믿었다. 아마 그애들중에는 일범이처럼 농대를 졸업하고 와서 이 고장에서 농사를 하게 될 아이도 있을지 모른다고 녀인은 생각하였다. 그게 누구이겠는지 둘째이겠는지 넷째놈이겠는지 애들의 성격과 취미를 두고 가늠하여 보았다.

사내처럼 별찬 말팔은 군대로 가겠다고 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색시 같은 셋째 아들이 이제 누나처럼 입당을 하고 와서 공부를 마저 하겠다고 대학8년 재학중에 군대로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좋았다. 예가 내 조국일진대 농사를 하든 총을 잡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여적 바라고 있던 자식들의 장래라고 생각하였다.

아들아, 잘 보아 두어라. 그리고 눈안에 담아

가지고 가거라. 네가 다니던 학교도, 너를 바래워 주고 있는 저 마을도, 논판에 듬뿍듬뿍 실어 낸 저름무지와 이 달구지길도... 그래서 이 봄날 아침 이 너의 가슴을 늘 훈훈하게 적시여 주는 정서가 되고 즙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여라. 너의 가슴을 꽉 채우는 조국이 되게 하여라.

조국에 와서 맞이하는 첫봄이었다.

...

앞그루로 심은 푸른 밀보리밭이 길옆으로 흘러가고 그 하늘 어딘가에서 종다리가 우짚었다.

부드러운 훈향이 녀인의 가슴을 어루쓸었다.

노래소리가 바람결에 실리어 왔다.

녀인은 오랜만에 듣게 된 귀에 익은 가수의 노래소리가 어디서 들려 오는지 성급히 두리번거렸다. 논판가운데 바람막이바자를 둘러친 땡상모판에 높이 매달아 놓은 고정기에서 흘러 나오는 노래였다.

녀인은 유명한 남성고음가수를 잘 알고 있었다.

일본 《후지와라가극단》의 전속가수로서 가극들에서 주역으로 출연하여 인기를 끌던 조선사람이었다. 그가 오래전에 귀국했고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음악대학으로 떠나보내는 이 길에서 관록 있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듣게 되니 감회가 더욱 새로와 지었다. 때로 코가 큰 서양인으로 때로 살색이 검은 오셀로가 되어 사랑과 질투와 결투의 아리아를 일본말로 부르던 그가 찬란하게 약속되어 있는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고 조국의 품에 안겨 나에게는 어머니조국이 있어 모진 바람 불어와도 눈비가 와도 따뜻하다고 노래하고 있는것이였다.

그것은 분명 음악대학생이 된 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는 노래라고 녀인은 생각하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나 손자 국성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술학원 피아노과에 입학하여 부교수이며 예술학 학사인 그 가수의 딸한테서 전공과목교수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녀인은 이날에 들던 노래를 생생하게 상기하였다.

1966년 7월 18일 남편과 아들이 대학공부를 시작하여 100여일이 되던 날이였다.

남편은 이제 더 좋은 일이 찾아 올것이니 심장의 한토막을 큼직하게 남겨 두라고 하였지만 모두의 심장을 다 합쳐도 받아 안기에는 아름 벽찬 경사가 이날에 찾아 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음악대학에 나오시여 아들이 공부하는 피아노실기실에 들려 주신것이였다.

음악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노래를 혁명의 무기로, 생활로 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예술은 우리의것으로 되어야 한다, 혁명적세계관형성의 중요시기인 청소년시절에 학생들을 우리의것으로 교육해야 그들을 주체가 확고하게 선 민족예술간부로 키울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시였다. 그리하여 1966년 7월 18일, 우리 나라에서 주체음악교육의 새장이 펼쳐진 뜻 깊은 그날에 어린 학생이 타는 피아노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사진은 후손만대로 전해 질 불멸의 사적물로 조선혁명박물관에 크게 모셔 졌다.

총련중앙지부와 분회들의 연구실, 학습실에도

그 사진이 모셔 졌다는 눈물겨운 전보와 편지가 총련일군으로 일하는 조카한테서 인차 날아 왔다.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그 력사의 시각에 아버지 지원수님앞에서 피아노를 타고 있는 사진속의 그 행복한 어린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음악예술의 위대한 천재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면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이 있는 큰 예술극장의 피아노연주가로 자라나던 10여년 세월을 언제나 깊은 관심속에 세심히 보살펴 주시었으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구나 많지 않았다.

만아들이 전문부를 거쳐 대학으로 올라 와 졸업을 한해 앞에 두고 있던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독창가, 독주가, 독무가가 적다고 하시면서 평양음악대학에 가면 내가 아는 한 학생이 있는데 그를 1년 먼저 졸업시켜 극장에 데려다 세계적인 피아노연주가로 키워 보자고 하시였다.

이리하여 만아들은 한해 웃반 학생들과 같이 졸업을 하고 장군님께서 정해 주신 극장에서 이름 있는 교수의 수업을 받게 되였다.

아들의 졸업식에 왔던 어머니는 미남자로 자란 아들과 함께 조선혁명박물관의 한 방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10여년전의 그 시각이 생생하게 살아오르게 하는 그 사진앞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날은 자기의 가슴에 예술가의 심장이 심어 지고 조국이 심어 진 날이라고 말하였다.

대학 학장은 제자와 어머니에게 자기의 차를 내주었다. 하지만 녀인은 아들을 앞세우고 평양역을 될수록 멀리로 에돌면서 수도의 거리거리를 걸어갔고 역에 내려서는 기차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빠스를 보내고 30리길을 걸자고 하였다.

야산들과 구릉이 밋밋하게 기복을 이룬 정다운 평원의 풍경이 걸어 가는 녀인의 앞에 펼쳐지였다.

멀리로 보이는 야산들밑에 아담한 농촌문화주택 들로 모양을 바꾼 마을들이 보였다. 잊을수 없는 길이었다. 지금도 종종 소고삐를 왼 손에 신발을 벗어 들고 맨발로 거름을 실어 나르곤 하는 내 고향의 들길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왼쪽

가슴에 나란히 달려 있는 두개의 천리마휘장을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자기의 어머니는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을 걸을 때 조국이 천걸음, 만걸음으로 나래쳐 오르던 청사에 빛날 그 시절에 귀국을 하여 주저없이 그 걸음에 자기를 따라세운 천리마기수였으며 지금도 부뚜막에서 얼른 밥 한술을 떠먹고서 설것이는 막내가한테 밀어맡기고 발동을 끄지 않고 서 있는 트랙토르로 뛰여 나가는 농산분조장이였다.

녀인은 조선로동당원이 되였다.

녀인은 화물자동차의 붓빔한 비료가마니우에다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울면서 가던 가을밤을 생각하였다. 대학으로 가는 아들, 남편과 함께 소달구지에 앉아 봄날 아침을 생각하였다.

녀인은 오늘도 울면서 걷고 있었다.

자꾸 말하고 싶어 옆에 다가붙는 아들의 등을 밀어 앞세워 놓고서 떡판 같은 그의 잔등을 바라보며 녀인은 자주 손을 눈으로 가져 갔다.

녀인은 이제 군대로, 의전으로, 농대와 공대, 경공대로 떠나가는 다섯남매를 이렇게 앞세워 놓고서 울면서 다시 이 길을 가게 되리라는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국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 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와서까지 이번엔 80명이 거의 되는 손자손녀들까지 순서대로 이 길에 내세우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것이 바로 장녀인을 안아 준 내 나라의 품이였다.

×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는지 피아노전공실기실에 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 나왔다.

맑은 음을 고르느라 조심조심 천천히, 그러나 자신 있고 힘차게 첫음이 울려 나더니 다음부터는 흰돌을 씻으며 흘러 내리는 옥계수처럼 구울러 갔다.

녀인은 천천히 일어 나 걷기 시작하였다. 녀인은 생각한다. 담쟁이덩굴이 바라오른 저 교사에서는 지각생을 엄격히 처벌한 녀교수가 분명 강성대국으로 불리워 질 내 나라에 바쳐 질 장중한 교향곡을 준비시키고 있는것이라고.

나의 노래

정동찬

나의 조국
위대한 어머니시여
그대의 품에서 반생을 넘어 살았건만
아직 제 어머니앞에
노래 한편 변변히 내놓지 못한
이 아들입니다

내 시인이라고 하지만
조국이 기억하는 노래를 짓기엔
내 한생도 아마 모자라나 봅니다
아름답게 간직하고
깡그리 바치는
분명 그것이 나에겐 없나 봅니다

붓을 들어
없는 그것을 애 써 찾으며
생각이 닿는 이 밤의 창가에
우렁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 그네들은
누구 누구들입니까

그네들은
불 타는 고지의 중턱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길에서
시를 뽑으며 먼저 간
영웅들입니다
못 잊을 선대시인들입니다

길고 또는 짙막하게
너무도 훌륭한 시를 피로써 남기고 간 그네들
불같이 살다 불같이 간
그네들의 폭발적인 사랑과 진한 모지름을
그네들의 얼굴에서
내 력력히 보았습니다

서둘러 붓을 드는
내 손을 움켜 잡는 그네들
더운 눈길로 나를 만져 줍니다
열고 싶은 조국애의 세계에로
나를 조용히 이끌며
묻습니다

너는 붉은기의 뉘이 어려 있는 저 산천에
진정 너의 무엇을 바쳤는가
진펄길에 술있도 씹으며
너는 포가를 메고 조국의 산과 들 누벼 보았는가
이 땅의 한줄기 내물과 한줌 흙때문에
남 모를 울음을 삼켜 보았는가

나도 병사시첩의 첫 머리에
아버이의 명언을 앗혀 놓고
총대시인의 길을 멀게 걸었습니다
참된 애국자가 되기전에는
애국의 참된 시를 지을수 없다고
첫 보초의 밤에도 눈속 행군길에도 잊은적 없었
습니다

때로는 조국의 서북단 밀물에 몸을 띄우고
간석지의 제방뜰우에 흙덩이를 안아 올릴 때
날려 오는 갈꽃보라를 눈처럼 맞으며
내 얼마나 그대의 좋은 노래 지으리라고
소원했던지
소원만으로는 이룰수 없었습니다

내 부끄러움 금할수 없는 이 시각
그네들의 머리우에서
내 뿔아 올라야 할 삶의 봉우리 불 붙어 솟고
생의 그 높이에서부터
그네들의 붉은 피방울같이
내 심장에 마쳐 오는것 무엇입니까

한목숨 던져
자기를 바쳐야 할 때
제 나이며 제 생명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뜻 조국애로 가는 그 녀
그 녀이야말로 어머니조국애 드리는 시라고
후세 백만년에 길이 전할 노래를 남기는것이라고

목숨 바쳐 아까울것 없는 이 땅
나의 조국
위대한 어머니시여
그대 너무도 거룩하고 숯은 자태 아름다워
그대의 노래 못 지을가 두려운 마음 안고
나지막한 기슭에서 앞선 그네들을 생각합니다

방과제

공승길

파도는 쉬임없이 제방을 들때린다.

썩, 철썩, 처절썩.

이따금 차거운 비말이 어둠이 짙게 드리운 허공으로 튀어 올라 제방위로 걸고 있는 우리 셋의 어깨 위에 후두둑 소리내며 떨어 지곤 했다.

앞에서 머리를 갇수긋하고 걷는것은 간석지건설사업소 시공부원으로 일하는 만형 한억이고 옆에서 군청색 밤하늘에 룡광을 드러낸 가차섬을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 짓는것은 해상굴착기운전공 두억이었다. 그는 나의 둘째형이다.

우리들은 서로 말이 없었다.

그렇것이 오늘 우린 만형이 제안한 E공법대로 해일피해구간에 철함을 조립하다 실패한것이다.

파도소리는 더욱 소란스러워 졌고 밤갈매기 두엇이 머리위에 낮추 떠서 끼룩거렸다.

《모르겠어. 물론 썰물시간이 박두한데두 원인이 있었겠지. 하지만 그럴수록 운전공이 침착해야 되지 않아? 세억인 연공으로서 철함위칠 잘 잡아놔야 할게구. 후-》

만형의 목소리는 저으기 의기소침하게 들려 왔다. 한참이나 말없이 격석격석 걷기만 하던 두억 형이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여기 앉아 한대 태우고 가지 않을래요?》

《좋도록 하자꾸나.》

우리는 제방위에 삼각형모양으로 주저앉았다. 부러 그렇게 작정하고 앉은것은 아니였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편리하게 자릴 잡다 보니 그 형국은 신통히도 삼각형을 닮곤 했던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두 형들이 좀 가까이 앉고 나는 약간 떨어져 앉았다. 나로서는 형제간이 꼭 같은 각으로 앉으면 훨씬 보기 좋겠지만 만형과 둘째 형은 응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한번도 이들보다 《작을 각》을 가지는것이 응당하다고 여겨 본적은 없었다. 나도 이제는 어른이었던것이다.

이때 주머니를 뒤적거려 담배를 꺼내 붙여 문 두억형이 던지시 나를 건너다 보는것이였다.

《세억인 먼저 들어 가지 않을래?》

《싫어요.》

나는 자존심이 상해 이렇게 통명스레 었었다.

만형이 고개를 끄떡이였다.

《막내두 이젠 당당한 연공인데 우리끼리 할 말이란게 특별히 없다고 생각한다.》

만형의 그 말이 나에게에는 적어도 앉은 각을 맞추자는 소리로 여겨 저 나는 눈을 찌뵈하고 노려보는듯 한 둘째형쪽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그러자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한자국 움쭉 물러나앉는것이였다.

《흥.》

사실 두 형중에 내가 은근히 더 맘에 들어하는것은 만형이 아니라 둘째형이였다. 그것은 단지 제대군인이라는데만 있지 않았다. 그는 눈이며 코를 비롯한 생김새부터가 큼직한게 시원스럽게 생겼고 일하는 본때도 만형과 달랐다.

만형이 무슨 일이 제기될 때마다 길고 뾰족한 손가락으로 호주머니속의 도래자라든가 전자수산기를 꺼내든다면 둘째형은 소라껍질같이 투박한 주먹부터 내드는것이였다. 거기서 내놓기는 열기를 야릇한 시선으로 보곤 하던 만형의 표정은 대체로 피기가 가신 그러루한것이였다.

《둘째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 그러다 일을 그르칠수 있거든.》

그렇다고 두억형이 일을 그르칠 사람이 아니라 단것만은 내가 안다. 해상굴착기에 배치되어 오자마자 그는 《물집형성에 의한 성토작업》이란걸 생각해 내어 자기의 능력을 보여 주지 않았는가. 작업실적도 배로 올라가고... 별개의 이야기긴 하지만 딸 가진 부모들의 시선을 은근히 뭉지 않았는가.

그러나 생활이란 얼마나 많은 리면을 안고 있는가.

그런 두억형이 나를 대하는데서는 여전히 막내 취급을 하려 드니. 물론 막내가 분명한 나였지만 그때마다 비위가 상해 눈살이 찡뚱해 지곤 했다.

《형님! 말 다했어요?》

《형과 맞서는 법을 어디서 배웠니? 수염두 제대로 돌지 않은게.》

《헛... 저만 세상에서 제일 잘난체 하다니. 군대에 갔됐으면 갔됐지.》

나는 불이 부어 나의 군대입대를 망가뜨린 녀적하기 그지없는 마당발을 원망스레 흘려 보곤 했다.

만형은 그와 달랐다.

그는 내 얼굴색이 좋지 않으면 《막내야! 요새 어디 아프니?》 하며 이마를 어루만져 준다. 그러다고 내가 피씩 웃으면 그는 《제발 어른티를 작작내. 막내가란게 형들에게 칭얼거리는 멋두 좀 있어야지.》 하고 나를 제법 높이 쳐주곤 한다.

그런 까닭에 나는 가끔 두 형을 마음속으로 저울질해 보곤 했다. 오늘은 이쪽으로, 또 래일은 저쪽으로...

두억형이 입술을 감빨다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난 운전공으로서 오늘날만큼 침착한적은 없었다구 봐요. 그러니 내 생각엔 형님의 그 시공법에

결합이 있는것 같애요. 보라요. 철함제작두 이상 없었지. 또 대기시켰던 <자주>호 차의 돌도 그안에 눈깜작할새없이 쏟아 부었지. 그런데두 철함이 밀렸다는건.》

《그러게 말이다.》

《형님! 다른 시공방법을 써보면 어때요? 한시가 급한 때에 그냥 거기에만 매달리면.》

두억형이 버릇처럼 주먹을 불쑥 내드는통에 만형의 두눈이 약간 커졌다.

《ㄷ시공법은 버릴수 없어. 물론 개고지반이 계속 변화되는 상태에서 리론과 실천사이에는 간격이 있을수 있지. 하지만...》

《그래요?! 저는 다만 정황에 맞게 전술적조치를 다시 취해 보자는것이였어요.》

짜, 철썩, 처절썩.

만형의 말엔 나도 동감이었다. 공법을 바꾸다니. 그건 안돼. 그걸 완성하자고 한억형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가 알거나 한가. 체대되어 와서 ㄷ시공도면을 보고 놀라던 두억형이 눈에 선하다.

《난 만형님 말이 옳다고 봐요.》

두억형의 검실검실한 얼굴이 희미한 별빛에 번들거렸다.

《넌 뭘 안다구 그래?》

《ㄷ공법두 ㄷ공법이지만 난 거기에 만형님과 우리들의 존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 제법인데.》

그는 입이 쓰거운지 껌하고 다시고는 담배만 뻑뻑 빨아 뱉다.

두 형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 왔다.

만형은 무엇때문인지 끝내 전자수산기를 꺼내 들었다. 했으나 도돌도돌한 단추를 누르지 않고 멍하니 들여다 보기만 했다.

하긴 그것으로 대체 무엇을 계산해 낼수 있단 말인가.

두억형은 파고 묻기라도 한듯 끔찍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며칠밤을 패워서인지 그의 두눈엔 언제나 피곤이 잔뜩 실려 있었다. 오죽하면 낮에 ब्ल록를 들어 올린채 조종탁에서 잠들어 소동까지 피웠겠는가. 그 눈이 지금은 피곤을 가시고 무던히도 반짝거렸다.

×

해일피해로 생긴 개고막이전투는 많은 땀과 정력을 요구했다. 물끓이 깊어 지고 좁아 진 조건에서 거기로 쏘리는 물압력은 대단히 컸다. 썰물때는 제방바깥방향으로 생기고 들물때는 안쪽으로 생기는 사품치는 폭포, 그속에 떨어 지면 닭알처럼 굴러 가는 부채블록들.

만형은 탐구굴에 함형처럼 생긴 크고 견고한 철함을 쓰는 ㄷ공법을 완성했었다. 사업소 시공참모부에서는 한다하는 기사들이 며칠째 론전을

거듭하고 나서 공사에 도입할걸 결정했다. 그런데 일은 뜻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만형은 단번에 20립방미터짜리 대형철함을 놓지않고 먼저 중형철함을 놓아 본 경험에 기초해서 한단계씩 먹어 들어 갈 방책을 다시 세웠다. 그렇게 되어 오늘 조립한것이 첫 단계에 속하는 중형철함조립이었다. 현대 그것이 실패할줄이야.

나는 이런 정황으로부터 오는 두 형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판이한 성격에도 기인된다고 생각한다.

그들끼리는 가뜩이나 나이차이가 적어 (나와는 8년, 6년차이었다.) 중학교때까지도 별치 않은걸 가지고도 옥신각신이 많았는데 두억형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 오고 그사이 한억형이 다 쌓았던 제방을 해일때 피해 보고 어찌고 하는 사이에 더욱 판판으로 번져 졌던것이다.

보다 원숙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이질에는 《막》이 없는것 같았다. 어찌 보면 두 형이 그것을 아주 즐거운 일로 여기는것 같기도 하고 마치 그제 없으면 우리가 무슨 형제나 하는 생각 같기도 했다. 집과 일터에서 수시로 벌어 지는 그 다툼질 속에서 만형은 차츰 두억형을, 두억형은 만형을 알아 가는것 같아 나는 기이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유감스러운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 거기에 끼우지 못하고 관람객으로밖에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대신 나에게는 《다툼질》 부럽지 않은 내 나름의 길이 있었으니 나는 열심히 그 길을 닦는데 정신을 팔고 있었다.

어제 일이다.

나는 물이 찌자 낙지 잡으러 나갔다. 알면 두 형들이 준비작업을 하지 않고 물고기 사냥만 다닌다고 핀잔 줄걸 알면서도 삼을 둘러 뱉다. (구멍에 배긴걸 두쳐 내야 했기때문이었다.)

거기에다 옥희라는 신희공처녀까지 척 데리고.

그는 나보다 한두살 아래였고 이웃에 사는데 바다에 대해선 잘 몰랐다. 그래서 감탕판에만 내려서면 깔깔대며 나를 줄줄 따라 다녔다.

기름진 고래등 같은 자태를 드러내고 쿵쿵 잠들어 버린듯 한 감탕판, 조개, 낙지, 바다라지들이 뿜어 놓은 구멍마다에서 분수처럼뿜어 오르는 물줄기들, 햇숨같이 뭉그러져 똥똥 떠다니는 안개발.

나는 제법 으시대며 옥희를 끌고 구축바위까지 나갔다.

거기엔 손바닥 같은 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여간 흥미를 끌지 않는다.

《어마나, 신작굴.》

《뭘, 그까짓썩.》

옥희가 한송이 까먹더니 좋아라 호들갑 떠났다. 나는 그가 따온 몇개의 굴을 숨씨 있게 까서 한곳에 담고는 콩무늬에 차고 나온 맥주병을 꺼내 들었다.

《아니?! 맥주까지? 그래두 돼요?》
 옥희의 동그래진 눈이 우습기만 하다.
 《왜? 나두 이젠 로보술공급대상이란 말이야.
 연공인데 뭐.》
 나는 헛기침을 한번 짓고 나서 속살을 말끔히
 때낸 큼직한 굴각지에 굴럭굴럭 맥주를 부었다.
 그리고는 옥희에게 내밀었다.
 《들어. 이걸 마시구 네가 한잔 부어.》
 《맥주? 난 못해.》
 《제길, 그럼 네가 부었다구 하구 내가 먼저 마
 실게.》
 《응.》
 맥주를 한조끼 하고 나니 기분이 붕 뿔다.
 《옥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로보물자 받은 날!》
 그가 눈을 깜박거린다.
 《틀렸어. 사업소 수급부원동지 생일이야.》
 《수급부원동지 생일?!》
 《흥, 내가 뭐 한뉘 이따위 블로크고리공이나
 할것 같애? 나로서는 자동차두 몰아 보구 싶단
 말이야. 그래서 굴이랑 낙지랑 잡아 가지구 수급
 부원동질 찾아 가자는거다. 때마침 생일이겠다.》
 《응, 그러니 <사업>이겠구나?》
 《그래. <사업>이지. 사실 우리 형들이 약간 힘
 써주면 되겠지만 난 믿지 않아. 만형은 전자수산
 기, 둘째형은 주먹... 하하. 내가 자동차운전사양
 성소에 가겠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그것부터 꺼
 내들거야. 가관이지. 그래서 난 내 힘으로 하자
 는거다.》
 《맞아,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
 옥희는 방글방글 미소를 머금고 쉧쟁한 목소리
 로 말했다.
 나는 내가 말할적마다 야, 야 하는 옥희를 계
 속 격동시키고 싶어 이야기판을 벌리다 밀물이
 드는줄도 몰랐다. 그제서야 정신이 팔쩍 들어 사
 위를 둘러 보았다. 그때는 이미 밀물이 개펄을
 따라 들어 와 우리를 포위했을 때였다.
 옥희는 금시 울가망이 되어 버렸다.
 쉧쉧-사방 물소리만 가득 찼다.
 나는 옥희의 겁먹은 모습을 보고 너털웃음을
 쳤다.
 《심장이 콩알 같은게. 너 해상굴착기바가질 타
 봤니? 못 타봤다구? 오늘은 그거나 한번 태워줄
 가.》
 낙지고 뭐고 나는 옥희를 이끌고 해상굴착기로
 달려 갔다. 그리고는 밭에 걸채이는 소라껍질을
 들어 갑판에 대고 힘껏 던졌다. 마침 기계를 닦
 고있던 낫 익은 운전공이 우리를 보고 눈이 둥그
 래지는것이였다.
 《저런... 그러다 어쩔려구.》
 그러더니 황급히 운전칸에 오르는것이였다. 시
 동을 걸어 바가지를 내리드리워 주자는것이였다.

이때 어느새 나타났는지 두억형님이 《잠깐!》
 하고 소리치더니 우리 둘의 모습을 찌프린 눈매
 로 내려다 보았다.
 《꼴 좋다. 작업시간에 그게 뭐야?》
 《됐어요. 빨리 시동이나 걸라요.》
 《뭐, 시동? 이거 그만큼 자유주의를 하지 말라
 고 했는데 안되겠군. 차렷!》
 두억형이 불시에 차렷구령을 치는 바람에 나는
 심한 모욕감에 휩싸여 그를 쏘아 보았다. 옥희는
 키득거리고.
 물론 우리는 인차 바가지에 올라 타고 무사히
 제방으로 넘어 왔지만 그때 당한 모욕은 나에게서
 쉬이 내려 가지 않았다. 하여튼 두고 보자!
 제가 나한테 굶어 들 날이 없을라구? 사실 나는
 두억형에게 애인이 생겨 그들사이 연락임무를 가
 끄 수행하는중이였다.
 대체 이러루하게 맺어 진 우리 형제들 관계에
 는 뭔가 미흡한 구석이 많아 보였지만 누구도 그
 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것 같지 않았다. 그러
 니 ㄷ공법도 만형의 의도와는 서로 다르게 받아
 들일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세가지
 견해! 가놓고말해서 현재 나의 형편으로써는 이
 런 《어설핀》이 얼마나 유리한지 몰랐다. 나에게
 는 《나》의 꿈이 있었던것이다.

×

생활이란 얼마나 다각적이고 변화무쌍한것인가
 에 대한 《강의》는 실재없이 계속된다. 이번에는
 두억형쪽에서 일이 생겨 날줄이야.

소급하여 말한다면 나는 간석지병원에서 의사
 로 일하고 있는 만형수의 소독수내에 얼굴을 찡
 그리는 때가 많다. 냄새야 뭐라겠냐만 문제는 주
 사침처럼 짙게 보이는 형수의 얼굴표정에 있었
 다.

도소재지에서 곱게 자라 우리 만형한테 시집
 온(그때 학사딸이 간석지에 온다고 핑장했다.)
 그는 이 고장에 정 붙이기 과연 힘들어 했다. 아
 림답게 핀 해당화가 가시나무란걸 알고는 비웃음
 을 띠었다. 누가 밤에 와서 왕진을 청하면 만형
 은 부스럭거리며 일어 나 말없이 전지를 들고 따
 라 서군 했다. 형수는 그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도 느끼는것같지 않았다.

오히려 만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때요? 동부인하는 맛이?》

만형은 줄음에 눈이 반쯤 감졌다.

《하루살이를 조심하오. 입으로 거침없이 날아
 들거요.》

그러다 휴식날 제방쌓기에 동원되였다 와서 무
 슌 까닭에선지 만형에게 종알거리는것이였다. 종
 시 만형의 분노가 폭발되교 형수는 와닥닥 놀라
 어둡이 깔린 밖으로 총총 뛰여 나갔다. 집은 약
 간 어수선히 보였으나 나는 가려운데를 긁힌 심

정이었다.

(잘한다. 만형 손탁이 뭍었지 뭐. 보긴 깔끔한 데 터무니 없는 개방형이야.)

그런데 이상한것은 간석지사람들이 우리 형수를 친동기처럼 여기고 항상 맴돈다는것이다. 그들이 무엇에 매력을 느꼈다는건지 나로서는 알수가 없었다.

(하어튼 난 파악 없어.)

그때마다 나는 두억형의 애인인 도서보급원 수란누이에 대해 생각하곤 하였다.

반듯한 이마아래 그윽한 두눈이 언제나 웃고 있는 수란누이, 정말이지 그는 우리 간석지에 활짝 피어 난 한 떨기 꽃이었고 갈매기였으며 정다운《새책》이기도 했다. 그가 우리 집안의 둘째 형수가 된다는 기대가 보름달 커가듯 하고 있는 이때 뜻하지 않던 일이 생겨 났다...

형수가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늪소랭이를 닦다가 일차비를 하고 있는 만형에게 문득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수란이와 적은이가 싸웠다는 얘길 들었어요?》

《당신 무슨 소릴 하오? 두억인 그럴 사람이 아니요.》

《아유, 당신은 그저... 소문이 돌아요. 수란이가 적은이 발전문제 두구 말하자 그가 께 했다는지. 아무렴 그 형에 그 동생이겠지.》

《뭐, 뭐?!》

《사실 두억삼촌이 인물은 남자답지만 직업이야 그저 쓸쓸하지요. 그에 비하면야 수란인 여불없는 백합이지요. 비록 감탕판에 피긴 했어두.》

《당신 그게 정말이요?》

한억형이 불쑥 언성을 높이며 일어 서는것이였다. 곁에서 씩씩거리며 신발을 신고 있던 나도 따라 일어 섰다.

이건 분명 새로운 정보다. 전번에 수란누이에게 두억형의 편지를 갖고 갔을 때도 아무런 기미도 없었는데. 그때 난 두억형의 《특사》로 도서보급원실에 가서 새책을 점잖게 별컹거리었지? 그는 나에게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실화집을 한권 더 가져 가지 않겠느냐고 아주 상냥하게 물었구. 그리고는 내 안전모에 갈매기깃털까지 꽂아 주었던가! 제길, 그러니 내가 마지막에 슬쩍 넘겨 준 그 편지가 그 무슨 최후통첩이라는건가? 비극적이다. 두억형이 못내 힘들어 하는 기색으로 나를 보낸다 했더니.

(아, 아. 사랑이란 다 그런 오묘한 물건짝이란 말인가.)

나의 뇌리에는 두억형이 수란누이를 처음 만났던 때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 나는 어떻게 돼서 만형과 퇴근길에 올랐는데 우리 사이엔 서름서름한 분위기가 줄곧 떠올랐다. 그걸 깨치려고 내가 무의식중에 돌멩이를 집어 들었다. 도래굽이에 오구구 내려 앉은

도요새무리속에 그저 던지고 싶어서였다.

《가만 있어.》

《왜 그래요?》

뜨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휘둘러 보던 나의 눈에 두 처녀총각의 달그림자가 바위썸으로 안겨 들었다.

(둘째형이구나. 저 뒤집진 모습을 좀 보지. 히야. 헌데 어떤 처녀가?)

호기심이 나를 잡아 끌었다. 그런데 만형이 곁에 붙어 있으니 어떻게 판전을 피워알지 몰랐다.

《앵이... 오늘은 땀을 많이 흘렸더니. 형님, 나 목욕 좀 하구 갈래요.》

《안돼.》

《왜요?》

《눈이 올롱해서 따지긴. 어머니가 만두를 빚겠다구 했어. 식으면 맛이 없어.》

《체, 나야 매번 식은거 먹는데요 뭐.》

《하지만 오늘은 뜨끈한걸 먹게 될게다.》

만형은 거의 호연장담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제곁에서 떠날수 없다는 암시다.

그날 밤 나는 자정무렵에야 두억형이 집에 들어서는데를 보게 되였다.

다들 자는줄 알았는데 내가 《어딜 갔었어요?》하고 잠기어린 목소리로 묻자 그는 갑자기 대답이 궁해져 공공거리였다.

《새 영화를... 한다가에... 그걸 보느라.》

《그런데 왜 혼자 갔었어요?》

《저... 그진.》

《음, 도래굽이에 영화관이 생겼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머리를 끄떡이자 그때까지 거짓말을 꾸미기에 급급하던 두억형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였다.

《너 흠쳐 봤구나. 혼자?》

《아니요. 만형이랑, 그리구 몇사람인지 수를 헤아리기 곤란했어요. 나 같으면 좀 더 으스스한데 끌고 갔을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참.》

《그래?》

《사람들이 그 처녀 보구 뭐라는지 알아요?》

《뭐, 수란이 보구?》

《에-에?!》

나의 얼빠한 덧걸이에 순조롭게 걸려 든 두억형에게서 그 이름이 튀어 나오자 나는 놀랐다. 틀림없이 우직스러워 보이는 두억형이 수란누일 어떻게?

해일때 확성기를 쥐고 건설자들을 격전으로 부르던, 파도를 뒤집어 쓰면서도 《적기가》를 부르던 그런 훌륭한 처녀를 형수로?

백번 찬성이다. 그러면 만형수의 소독수내도 청신한 해감내로 밀어 버릴것이며 나를 대하는 두억형의 이러저러한 편견도 깨끗이 시정시켜 줄 것이다. 그때 가서 달라 질 두억형! 존경이 갈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형님은 정말 큰 일을 시작했군요. 군대때두 일을 그렇게 했어요?》

《뭘 그다지나.》

《히야,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넓구만요. 만형과 나는 어머니 닮아 가슴이 그렇지 못한가.》

내가 뒤더수기를 긁적거리자 그때까지 옷방에서 ㄷ공법을 완성하느라 뭔가 쓰고 지우고 하던 만형의 기침소리가 들려 왔다. ...

나에게 그렇듯 큰짓을 기대해 주던 수란누이가 변하다니. 나는 믿을수가 없었다. 아니, 따지고 보면 형수말이 맞을수도 있어. 우리 형님 직업이 사실 볼거야 없지 않는가. 이따금 읊에 나가봐두 알수 있지만 다들 옷이랑 얼마나 번듯하게 입고 다녀. 처녀총각들은 달 뜨길 기다려 실버들 휘늘어 진 유보도길을 걷기도 하고 추세에 맞게 콤퓨터소리랑 하는데.

우리에게 유보도란게 저따위 도래굽이밖에 더 있어? 굴착기에 걸채이기 쉬운.

그리구 일은 얼마나 지루한가. 하루종일 퇴약별속에서 돌을 싣고 나르고, 그러다 파도에 먹히우면 다시 싣고 나르고.

그래서 나도 양성소를 졸업하고는 멀리 뛰어야겠어. 형들은 확실히 고루한데가 있어. 분명 그래서 수란누이한테 채운거야. 그래가지고도 누구도 알아 주지 않는 자부심에 잔뜩 들떠서 제방, 제방...

그날은 이래저래 기분 없는 일들만 닥쳤다.

옥희가 내돌렸는지 내가 로동과와 《사업》해서 자동차운전사양성소로 간다는 말이 돈것이다. 그것이 어느새 만형의 귀에까지 다달았다.

그는 뿔이 돌아 작업장에 찾아 와 따졌다.

《세억아! 연공이 그렇게두 싫더냐?》

《나두 직업을 자유로 선택할 권리쯤은 가진다고 봐요.》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감이랄가 애착이랄가 그게 없는 사람들이 너같이 말하군 하지.》

《아무렇게 생각해두 좋아요. 하지만 보라요. 두억형님이 어떻게 했어요. 형님이 제대되어 대학엘 갔더라면 아마 우리 형뒤에 처녀들이 줄을 서서 따라 다녔을거예요. 난 간석지에 살면서 간석지사람을 짝보는 그런자들이 보기 싫단 말이에요.》

《물론 있지. 하지만 수란이만은 그럴 녀자가 아니야.》

《아니란건 또 뭐예요? 둘이 갈라 졌다는데.》

《하여튼 한생 방파제와 함께 산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난 그걸 말하고 싶었다.》

통탕통탕.

두억형의 굴착기가 씹씹한 동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가 시창밖으로 하얀 장갑을 낀 주먹을 볼썽 내들어 보인다.

블록조립준비를 마친 나는 제방우에 서서 뺨

간 기발을 들었다.

우리 둘의 눈길이 허공에서 마주친다.

《두억형! 어쨌든 맥 나선 안돼요... 까짓거.》

《젠장, 꽃병아리 같은게 감히 나를?!》

그가 파도에 흥떡이는 해상굴착기우에 올라 앉아 긴 팔을 제멋처럼 움직일 때는 여간만 미더워 보이지 않는다. 부선에 싣고 온 하얀 두부모 같은 부재블록을 들어 제방에 갖다 대주면 나는 기발을 들어 신호하며 그것을 조립해 간다.

손발이 잘 맞지 않으면 감탕판처럼 시꺼먼 얼굴을 쑥 내밀고 고함을 지른다.

《너 정말 게발처럼 놀겠니?》

일이 치차처럼 맞아 돌아 가면 그는 싱글싱글 웃고 나는 휘파람을 불어 댕다. 이따금 머리우에 떠도는 갈매기에 대고 주먹질도 해보이며...

이윽고 굴착기팔에 똥똥 매달린 부재블록가 내쪽으로 오다 휙 방향을 바꾸더니 그 깊이를 료량할수 없는 개고바닥으로 푹땡 떨어 지는것이였다. 나는 두억형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했으나 물속으로 잠겨 드는 블록과 함께 쇠바줄이 좌르륵 풀리자 그가 바닥상태를 짚어 보느라고 그런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블록으로 한참 막대 짚어보듯 하던 두억형이 그걸 쑥 들어 올렸다. 그와 함께 굴착기동음이 멎어 버렸다.

《왜 그래요?》

두억형은 아무말도 않고 갑판우에 내려 서더니 무슨 영문에서인지 이마에 손채양을 하고 가없이 넓은 하늘가로 훨훨 날아 오르는 갈매기를 넋없이 바라보았다. 왜 그럴까? 한참후에야 그는 발판을 타고 내려 제방우로 스적스적 올라 왔다.

《형님을 못 봤니?》

《찾아 보라요?》

《됐다. 이제 오겠지.》

심상치 않은 마찰이 또 일어 날 징조다.

이때 한억형이 굴착기팔에 매달린 블록크네를 어디서 띄어 봤는지 측량대를 멘채 나타났다.

《왜 그러니, 둘째야?》

《어제 갔다 부은 사석이 쑥 내려 갔구만요.》

《뭐라구?!》

만형의 얼굴에 먹장구름이 끼인다. 그는 맥을 잃고 블록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쿵- 소리가 내 가슴을 압박하며 들려 왔다.

아마 그래서 두억형도 하늘을 올려다 본게구나. 자유로이 나는 새를 보며 잠시라도 무거운 기분에서 벗어나려 했던 모양이지.

개고지반형편이 그렇다면 ㄷ공법이 맥을 추지 못한다는거야 뻔하지 않은가. 그래서 철함이 기운게구. 만형일이 왜 그렇게 꼬이기만 할가. 나는 만형의 일이 진심으로 걱정되었다.

어쨌든 ㄷ공법이 성공해야 양성소 가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이 조금이나마 덕을 볼게

아닌가.

두억형이 묵묵히 담배를 꺼내들었다.

《형님! 그렇다구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난 어떡해서나 이번 제방만은 어떤 해일에도 끄떡없이 막자는거다. 해일,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그때 우리 조국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었지. 쌀, 쌀이 없어서 말이야. 그런 때 해일까지 들이닥쳐 한창 벼가 익어 가던 논배미들을 순간에 없애버릴줄이야. 눈앞이 다 새까맣다. 그게 어떻게 막은 제방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막아 낸 제방이 아니냐. 그 제방이 황금이삭 넘길거리는 조국의 대지를 지키고 있을 때 더는 바랄것이 없었지. 그걸 한순간에 잃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쭈뼛 찼다.

그때 제방을 막겠다고 사품치는 물속에 뛰어들던 만형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술한 사람들이 몽청몽청 끊어져 나가는 제방을 보며 목놓아 울었지. 제방이 간석지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듯 큰 것이었다는걸 비로소 그때에야 깨달은듯.

만형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둘째야! 일이란 욕망만으론 안되는것 같다. 개고바닥상태가 계속 그렇다면 난 트공법을 대담하게 버릴 생각이다. 더 빨리, 더 훌륭한 제방을 위해서라면 내가 들인 정력따위가 다 무어겠니. 아버지가 그랬지? 제방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곧 행복이라구.》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지금 온 나라가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서서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니. 나라의 경제력도 비할바없이 강해 지고. 하지만 땅만은 그 어디에서도 생산할수 없다. 그건 간석지건설자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야. 제방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설사 한덩이 블록가 되여 여기에 묻힌다 해도 여한이 없을것 같구나.》

《...》

두억형의 눈은 갑자기 번쩍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머리를 싸쥐는 것이었다.

나도 한숨을 내쉬며 희우스름한 안개가 짙차 흐르는 섬쪽을 지긋게 바라보았다. 별로 새로운 소리는 없건만 오늘은 왜서인지 가슴이 무거워 왔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던 말이지...)

과도는 여전히 제방을 들때리며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갈매기, 도요새들이 무리지어 머나먼 수평선을 향해 치달아 오르는데 그수가 어찌나 많은지 넓은 하늘을 채우고도 남으리만큼 가득 떠서 북적 고아 댔다.

×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마지막 블록고리를 벗기자 하루의 피곤이 온

몸을 휩쓸었다. 나는 기발을 들어 물을 향해 가리켜 보였다. 벌써 작업반별로 총화를 끝낸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는것이 보였다.

두억형은 부릉거리던 굴착기의 발동을 꺼버렸다.

《세억이! 형님하구 먼저 들어 가!》

《알았어요.》

나는 옷을 털고 나서 음료수통을 돌려댔다.

음, 수란누이 만나려고 하는구나. 아까 그가 두억형을 만나러 왔었지? 어떤 책을 주고 간것 같은데 무슨 영문일까? 화해? 그럴사해. 형님이 수란누이 결코 놓치지 않을거야. 순간적인 짝이 그들의 사랑까지 날려 보낼순 없어.

옥희가 날라 온 소식에 의하면 수란누이 수첩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는것이다.

《나는 수령관에 핀 백합.》

같은 값이면 간석지지 수령관은 또 웬거야? 무슨 판인지 모르겠어. 혹시 두억형을 상징적인 자기 《수령관》에 잡아 넣자는게 아닐까? 말하자면 발전문제가 충분히 고려 있는.

형님이 정말 그 곳으로 어정어정 기여 들어 가는게 아닐까? 자존심도 없이. 사랑이란 울가미가 별짓을 다 할수 있다는데.

《형님! 내가 남아서 도울건 없어요?》

《씩 퇴근하지 못하겠어.》

정통을 찢었나? 그럴수 없겠는데.

이때 흙을 부리우고 들어 가던 《자주》호에서 옥희가 쟁쟁 소리쳤다.

《세억동무! 빨리 타라요.》

《먼저 가! 난 만형하구.》

《기사동진 참모협의회에 참가했어요.》

《그으래?!》

《자주》호를 타고 들어 가면서 보니 현장휴계실 화단에서 풀 뽑는 수란누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오늘은 아무 일이나 나는 날이구나. 백합이 수령밖에 피면 못 쓴대? 그것두 모르구.

두억형 일이 궁금하였지만 그가 들어 오길 기다리고 있을수 없었다. 대체 무어라고 물어 본단 말인가. 괜히 침대우에 누워 얹치락뒤치락하다 나는 잠들고 말았다.

꿈에 보니 두억형과 수란누이가 멋진 옷들을 입고 꽃밭속을 훨훨 거닐고 있지 않는가. 나는 따라가려고 애썼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소리만 지른다. 했으나 그들은 손을 내밀어 주기는 커녕 웃으며 도래굽이라고 여겨 치는 곳으로 끝없이 끝없이 걷고 있었다. 나는 안타까움에 모자를 쓰다가 갑자기 떠드는 소리에 편듯 눈을 떴다.

만형네가 있는 옷방 미닫이문이 열려 있고 감탕에 계발리고 젖은 옷을 입은 두억형이 엉겨주춤 서있는 것이었다.

순간 머리칼이 다 쭈뼛이 일어 섰다.

(이건 뭐야? 그 옥한 성미에 수란누일 어찌지 않았어? 그 무슨 수령관을 운운하더니.)

이어 두 형들사이에 무슨 찝박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말형의 얼굴은 금시 창백해지는 것이었다. 눈꼬리가 바르르 떨기까지 했다.

《너 개고가 어디라구 함부로 뛰어 드는거냐. 사람이 모험을 해두 분... 분수가 있지.》

《개고?!》

하늘이 허물어 졌다는 소식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갖다 주겠는지는 아직 나는 모른다. 하지만 개고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보다는 그 세기가 작을 거라는 것만은 단언한다. 개고란 건 무서운 곳이다. 물이 썰 때 블록덩어리며 집채 같은 바위조차도 닭알 굴리듯 하고... 그때 제방 안팎의 수위차로 생기는 폭포수의 갈기만 해도 키를 넘는다.

나는 후에야 두억형이 만조로 그 흐름이 일체 정지되는 15분이라는 짧은 순간에 잠수해 들어가 감탕시료를 떠가지고 올라 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형님! 옥은 후에 하고 우선 이것부터 보라요.》 두억형은 비닐주머니에 싸가지고 온 물고 검스레한 덩이를 말형에게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거기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장관우에 일락을 그리자 방금 일어나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던 형수가 눈이 동그래 거기에 손바닥을 내댔다.

《아니?! 삼촌! 무슨 것같이예요?》

그러나 말거나 두억형은 기쁨에 젖은 목소리로 형수에게 부르짖었다.

《<감탕것갈>이지요. 얼마나 풀기 있는지 알아요? 하하. 찰감탕이예요, 찰감탕. 이제 더는 감탕지반이 내려 앉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찰감탕?!》

말형은 두억형의 흥분에 감염됐는지 떨리는 손으로 감탕덩이를 받아 들고 한동안 멍청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그것을 입가로 가져 가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어안이 뱅뱅해져 감탕주머니를 바라보던 형수가 《여보! 것같이 아니래요.》 하며 잡아 당기려 했다.

했으나 때는 늦었다.

말형은 감탕을 한웅큼 입에 물고 우적우적 씹어댔다.

엉거주춤해서 손세를 쓰던 두억형도 형수도 나도 놀랐다. 감탕을 입에 넣고 씹어 보다니. 놀라운 습시에 감동으로 변했다.

드디어 말형은 두억형의 어깨를 부둥켜 안았다.

《음... 음... 음.》

누구도 그 소릴 알아 들을 수 없었으나 누구나 그 말뜻을 알아 차렸다.

(정말이지 이건 어떻게 된 판이야?)

형수가 손바닥에 방울방울 고였던 감탕물을 주르록 떨어 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미쳤어요. 제방은 이래야만 쌓나요? 예, 삼촌?》 나는 형수의 눈가에 섰보얀 구슬알이 핑크르 내뿜는 것을 보았다.

순간 두 형들의 모습에서도 미쳐 느끼지 못했던 크낙한 불줄기가 내 가슴을 지지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감탕, 그것이 흙이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깨우쳤다고 할가.

형수가 눈굽을 훔치며 부엌에 내려가 양치물을 떠온다는 것을 버치로 가져 왔다.

《어마나. 내 무슨 정신에 이렇게...》

그리고는 민망스러웠던지 말형의 곁에 얼른 다가앉으며 화제를 바꾸는 것이었다.

《여보! 삼촌의 감탕대접이 어때요?》

말형이 미소를 지으며 새끼 손가락을 펴보이자 그는 《린색하군요. 그럼 내 대접은요?》 하고 버치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바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는지 두억형이 입을 꼭 다물고 엄지손가락을 내대는 통에 집안에 그만 폭소가 일었다.

말형도 웃고 두억형도 웃었다.

깔깔거리는 형수의 웃음소리가 나에게서는 얼마나 훌륭해 보였던지 눈물이 다 글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도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찔던 것이다.

그것으로 개고바닥이 퇴적층인 물감탕이 아니라 찰감탕인, 말하자면 바다의 본바닥이 드러났다는 증거가 쥐여진 셈이다. 그 계선을 두억형이 확증한 것이다.

사석은 두번다시 내려 앉지 않을 것이며 ㄷ공범은 확신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것도 중형철함이 아니라 대형철함조립으로 뛰어 넘을 수 있는.

한시가 새로운 이때 그 열쇠가 마련된 것이다.

나는 두 형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

수란누이에 대한 걱정이 말형수의 얼굴에 그늘을 가져 왔다. 그러지 않아도 예방접종때문에 일이 바쁜 형수였지만 짬을 내서 그가 있는 도서관 급원실에 들리곤 했다.

눈치 빠른 형수는 결코 사랑에서 패할 사람들이 아니란 것은 알지만 그들이 겪는 고민을 남먼저 깨달았던 것이다.

《우리 적은이가 사고를 냈다는걸 아니?》

《사고요?!》

《그래. 쇠바줄이. 활차에서 벗어나 하마트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호-》

《난 그가 골 썩는게 보기 싫어. 같은 녀자로서 물어 봐두 되지? 너 진짜 맘에 없니?》

《모르겠어요. 전자공학에 껴떨기라는것이 있지요?》

《호호. 사랑에두 전자공학이 필요한가부지. 난 네가 우리 적은일 너무 모른다구 생각해. 그는 충분히 그럴수도 있었어.》

《아니. 그건 이미 리해한지 오래어요. 하지만 리해뒤끝에 더 큰 결론을 얻었다구 할가. 우리들의 생각은 서로 왕창 같답니다.》

형수는 속으로 몇번이나 이렇게 곱씹었다.

(말째구나. 우리 적은이와는 정말 왕창같이 다른데가 있어.)

《난 네 말이 무슨 소린지 정말 모르겠구나. 우리 적은이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두 없을가.》

《땅에서 별의 세겔 부러워 하면 어떻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비행선을 무어 보렴.》

《저두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재랑비일거예요.》
만형과 형수 그리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는 불 타다가 식기 시작한 그들의 사랑, 했으나 분명 더 큰 불길로 되기 위해 애쓰는듯한 그들의 사랑, 하지만 벌어진 틈사리를 어떻게 메워알지 몰라 실실 연기만 피우는 그들의 사랑.

만형이 문득 이렇게 말했다.

《서로의 인간적인 공감, 심장 대 심장의 일치, 이것이 사랑이라는 용점을 얻어 내기 위한 세찬 불이지.》

하다면 사랑이란 용점은, 심장에 심장의 일치가 언제 이루어진단 말인가. 아득하기만 하다.

그런 어느 날 도래굽이에서 그들이 서로 만났다고 해서 은근히 신경을 도사리고 있었는데 난 데없이 수리직장쪽에서 두억형이 나타나는 바람에 형수가 폴짝 주저 앉았다.

《내가 잘못 봤구만요. 아유, 이를 어쩌나. 도래굽이에 새쌍이 나타났는데...》

두억형네 사랑이 끝을 보지 못한채 도래굽이를 넘겨 줘야 한다는것이 왜 그렇게도 우리 가슴을 허비였는지... 아니, 두억형넌 꼭 성공해야 해, 꼭.

이튿날 다시 손질할 s 형고리들을 묶어서 둘러메고 제방에서 들어 오는데 형수가 달려와 내 손목을 붙잡는것이였다.

《막내. 삼촌!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아! 드디어 뭔가 터졌구나.)

나는 입안이 바짝 말라드는것을 느끼며 s 형고리 묶음을 땅바닥에 내동이쳤다.

《무슨 일이에요?》

《글쎄... 수란이가 고민끝에 떠나갔대요.》

《가다니요? 어디로요?》

《예방점종에서 그가 빠졌더라니 그를 찾아 갔는데 방금 외삼촌네 집으로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총각사진을 갖다 왔다 어쩐다 소동을 피울땐 꿈쩍도 않던 그 애가 무슨 생각이 들어

떠났는지 부모들도 영문을 모르더군요.》

《아니?! 그럼.》

《어쨌든 삼촌은 들어 가보라요. 난 만형을 좀 만나게... 야참, 그 애가 주사도 안 맞고 뭐야?》

《알겠어요.》

수란누이가 두억형님을 버리고 떠나간다는것이 얼마나 크고 비상한 일처럼 여겨 지는지 눈앞이다 아찔했다.

(아, 아. 그 녀자가 그런 속물이었는가.)

나는 집으로 부리나케 달려 갔다. 마침 만형이 공부하던 컴퓨터기술에 대한 책에 깊이 묻혀 있던 두억형이 헐레벌떡 뛰여 든 나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였다.

《뭘 해요? 수란누이가 선 보러 갔다는데.》

《허튼 소리.》

《자! 이런.》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난 그는 씩 웃는것이였다.

《걱정 봐. 수란이 없다고 간석지에 나를 리해할 처녀가 없겠니?》

순간 그의 눈에서는 불이 무섭게 뿜어 나왔는데 나는 그것이 형님이라는 전체중에서 가장 이채롭고 장엄한것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는 버드나무가 바다바람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납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다급히 떠드는 갈매기울음소리로 소란스러웠다.

불운한 운명을 예고하는듯 파도의 철썹임소리는 더욱 크게 메아리쳐 왔다.

그는 와락와락 옷을 입고 밖을 나서는것이였다.

나는 두억형이 무슨 일을 저지를것만 같은 생각에 겁이 나서 얼른 그의 뒤를 쫓아 갔다.

《수란누인 아마 찾지 못할거예요.》

그는 멈춰 서서 버릇처럼 나를 노려 보더니 어깨를 두드려 주는것이였다.

《세억아! 난 사랑에서만은... 자신이 없는것 같애. 그럴바엔 차라리... 굴착기로 나가겠다.》

《굴착기요?》

검은 하늘에서는 벌써 치퉁치퉁 비꼬치가 처지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주위는 별로 춥고 어수선히 짝이 없었다.

두억형은 뒤도 돌아 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변함이 없는것은 멀리, 저 멀리해서 반짝이는 등대불뿐이였다. 그 불빛이 어쩌나 따스하고 아늑한 메아리를 불러일으키는지 바로 이 일이 있기전, 평화롭고 따뜻한 감정만이 흐르던 우리 가정의 사무치게 그리워 났다.

내가 형님네 해상굴착기에 겨우 다달은것은 그로부터 한시간후였다.

파도에 들썩이는 배우에 울랐을 때 굴착기동체 안에서 프앙, 프앙 하는 메질소리가 울려 왔다.

(역동바라반이 고장났다더니 두억형님이 지금

그걸 뜯어 내고 있구나.)

나는 그를 돕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그 안으로 들어 갔다.

기름내가 풍겨 오고 얼른거리는 불망치의 불빛 속에 그가 함마를 휘둘러 대는 모습이 안겨왔다.

그것이 어찌나 측은해 보였는지 나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찢어졌다. 장해요! 두억형님, 힘껏, 더 힘껏 때리라고.

《형님! 어찌면 수란누이가...》

《젠장, 사내녀석이 심장이 알파해 가지구.》

그는 손바닥에 침을 뱉으며 방금 축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바라반에 함마질을 드세게 들이쳤다.

《두억형님!》

《왜?》

《형님은 제대군인이지요?》

《새삼스레 그 소린 왜 하니?》

《예로부터 사랑은 가슴아픔이라고 했대요. 형님의 가슴은 지금... 군대에서 그런것두 배워 주나요? 자기 슬픔을 이기는.》

《허허.》

그는 불시에 종잡을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함마를 떨구는것이였다. 그때 그 웃음이 어찌나 비장하게 내 가슴을 파고 드는지 나는 눈엔 물기가 어리고 입은 웃던 둘째형의 모습을 평생 잊을 것같지 않았다.

《세억아! 사람이 굳세지 못했더라면 언제나 제 감정만 곱씹었더라면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려 질수 없었을게다.》

《다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형님에겐 무서운데가 있는것 같어요.》

그는 나의 뺨에 흐르는 물기를 닦아 주었다.

《아니, 난 그렇지 못해. 세억아! 내 안변청년 발전소건설때 이야길 하나 할가?》

《해요. 오늘은 아무 이야기나 형님이 한다면 다 듣고 싶어요.》

두억형과 나는 감속기우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그때 우리 동무에게 편지가 하나 왔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편지는 부모도 아니고 더우기 애인에게서도 아니였어. 하지만 그걸 본 뒤로부터 그에게 말도 적어 졌지. 누구도 몰랐어. 물길굴속에서 정대잡이를 하던 그에게 정치지도원이 다가왔어.》

<장갑은 어쨌소? >

<...>

<장갑을 어쨌는가 난 몰소.>

<...>

그 친구 대답을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지. 그는 방금 병실에서 나올 때 찢어 지고 덧기우고 차마 장갑이라고 부를수 없는 그 걸레조박을 직관원에게 주었지. 좀 그러 달라고. 좋기는 색깔까지 넣어 생동하게... 직관원은 놀랐지. 도대체 이따위

걸 어디다 공개하자고 말이지. 그래서 아마 정치지도원에게 일러 바친 모양이야.

저녁에 그는 정치지도원방에 갔지.

<앉소. 우리 안변청년발전소라는 세계굴지의 대기념비만을 력사에 남겨야 한다고 보오. 군인이란 사소한... >

<정치지도원동지! 저는 간석지생활을 너무 모르는 한 녀성의 운명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방쌓기에 동원되었다가 생긴 물질 세알을 두고, ...>

<하하하. 동무가 요즘 형수가 보내온 편지를 두고 그런다는걸 나도 아오. 자! 받소. 이젠 동무 만형이 나한테로 보내온 편지요.>

<예?!>

그는 그 편지를 보았지.

<정치지도원동지! 동생한테 우리 집사람의 편지가 혹시 갔을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걱정 말라고 하십시오. 난 안해를 사랑합니다. 사랑앞에서 녀성은 강자가 되지요. 그는 틀림없이 간석지의 제방돌로 성장할겁니다.>

아,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간들이지.

세억아! 그가 바로 우리 만형, 만형수들이야. 속담에 형만 한 동생가 없다는 말이 있지. 그런데 없다고 봐. 난 왜 그렇게 따라 못 갈가.》 이때 흑-하는 울음소리가 들려 왔다.

《누구요?》

형님이 날카롭게 웨치며 불망치를 쳐들자 바람에 열려진 문가에 한 처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니? 수란누이가?》

나는 필경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되어 여기에 나타날수 있단 말인가.

《세억이!》

그는 이렇게 나를 부르고는 그저 교묘히 흐느끼기만 하는것이였다. 동그스름한 그의 어깨가 가볍게 물결치고 있었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왜 왔소?》

두억형이 나직이 물었다.

《동문 어쩔 제가 너자라는걸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뭐요?!》

《어떻게 제가 동무의 큰 심장에 따라 설수 있겠나요. 때로는 유혹에도 쉽게 빠질수 있는게 처녀시절이랍니다. 그런데 동문 제가 어떤 수령에서도 혼자 헤여 나올수 있다는거지요?》

《?!》

《너무해요, 너무. 손 한번 내밀기가 그렇게도 비싼가요?》

《뭐요?!》

나는 그제서야 뭔가 오리무중에서 헤여 나오는 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두억형은 물론 수란누이 사랑한다. 또 인간적

으로 나무랄대없이 훌륭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처녀의 심장을 휘어 잡아 이끌만한 힘이랄까, 불같은 사랑이랄까 그게 없었어. 그저 진심, 똑심밖에 없었어. 그러니 처녀보구 해보고 싶어도 못해 보구 속이 상할 때마다 그저 일, 일밖에 몰랐어.

아, 우리 둘째형.

나는 울컥 그 무엇이 치밀어 올라 수란누이에게 다가가 나긋나긋하면서도 따스한 그의 두손을 움켜 잡았다.

《우리 형님은 정말 나쁜대가 있어요. 자존심도 쓸데 가서 쓰는거지.》

《아니, 자존심은 내가 더 켜던 모양이야.》

처녀가 자기의 도고성을 잃었을 때는 벌써 심장을 드리내놓았다는것을 의미한다.

나는 한가슴으로는 호홉하기 힘든 걱정에서 휩싸였다.

《자! 이런, 말본전두 못하겠구만요.》

두억형이 슬며시 함마를 움켜 잡았다.

《수란동무!》…

나는 이들의 세계를 다는 모르고 있다. 허나 한가지 확신할수 있는것은 그들의 사랑은 이미 융점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것이다. 심장 대심장의 일치가 바로 이제야 비로소 이뤄진것이다.

《고마와요. 다들… 다들…》

췌, 철췌, 처철췌. 나는 이 순간에 인생의 새 문턱을 넘어 선듯 한 희열에 싸여 굴착기문을 나갔다.

해감내가 뒤섞인 바다바람이 즐거이 나의 머리카락이며 옷깃을 비다듬으며 안겨 들었다.

제방우에 올라 선 나는 하마트면 돌미륵처럼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걸쳐 넘어 갈번했다.

한억형님이였다. 그는 어찌나 피곤했는지 비웃을 입은채 곱잠이 들어 있었다.

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꺼칠한 턱, 볼품없이 솟아 오른 광대뼈, 날이 퍼그나 예리해 진 코마루…

췌 후에야 나는 애라는 가슴을 부여 안고 외삼촌네 집으로 수란누이에게 말형과 형수가 달려갔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수란이! 아이 숨차.》

꽤 돌아 보는 눈물이 글썽한 처녀의 눈, 떨어지는 비방울, 불어치는 바람.

형수는 함썸 내뱉 땀을 훔치며 그에게 다가갔다. 뒤에서는 우뚝 선 말형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고.

《수란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 놓고 말이야.》

《…》

《난 네가 간석지땅의 영원한 백합이 되길 바랬어. 그래도 너에겐 나서 자란 정든 고장이고 맞

들인 물이 있는데 어쩔 그렇게 수월히 버리고.》
《…》

《넌 다 몰라. 알고 보면 그도 뜨거운 사람이야. 리해끝에 얻은 결론이라구? 그건 벌써 사랑이 아니야. 넌 자기 심장부터 덥히지 못했어.》

《언니!》

이때 담배를 붙여 문 말형이 한마디 했다.

《여보! 무슨 서론이 그렇게 기요? 당신이야 마지막 예방주살 놔주자고 예까지 오지 않았소.

어서 주살 놓소. 날이 어두워오는데 수란일 빨리 보내야지.》

순간 수란누이의 가슴으로 후더운 피가 도랑처럼 팔- 흘러들었다. 쌓이고 쌓였던 까닭모를 신음이 왈칵 북받쳐 올라 그는 끝내 형수의 작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난 몰라요.》…

아, 우리 말형.

그를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몽클해 졌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의 넓지 않은 잔등우에 얹혀 있는가. 가정의 크고 작은 일로부터 ㄷ공법, 말형수문제 그리고 두억형님께 사랑문제와 제방을 뜨려고 하는 내 문제까지…

(제길, 오늘은 죽으나사나 두억형을 도와 굴착기수릴 끝내야지.)

어둠은 서서히 밀려가고 너슬너슬하게 찢어진 구름장사리로 조각달과 함께 못별들이 일제히 떠서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바라보였다.

X

개고의 지질상태가 무른 퇴적층이 아니라 굳은 감탕질이라는것이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자 ㄷ공법은 본격적인 시공단계에 넘어 갔다. 첫날 대형 철탑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두개, 세개… 지어는 하루 다섯개까지 조립함으로써 개고막이는 상상을 뛰어 넘어 단 한달사이에 마무리를 하는 보기 드문 기적이 창조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 지고 파도가 무섭게 들이 닥쳤다. 사업소에서는 《폭풍》명령을 내렸다. 해불들이 늘어 서고 돌을 그득 실은 《자주》호차들이 비탈속을 뚫고 제방을 향해 내달렸다. 어둠이 짙어서 누가 누군지 미처 알아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움직였다.

말형은 호각을 손에 쥐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지휘했고 두억형을 굴착기로 나갔다.

췌, 췌르릉.

시퍼런 번개가 사방을 대낮같이 밝혔다가는 사라지고 대줄기 같은 비발이 광막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때 통탕통탕하는 굴착기발동소리가 소음을 뚫고 울려왔다.

두억형네 굴착기였다.

《좋아요. 발동소릴 더 세차게!》

나는 사람들 틈에 끼워 돌을 나르고 흙마데도

저날랐다. 땀과 비물에 옷은 샅시에 물주머니로 되었다.

해불, 전지불이 사방 얼른거리고 《저길 막아라.》, 《여길 보강해라.》 하는 만형의 피타는 웨침소리가 들려 왔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파도에 짓씹혀진 구간들로 내닫곤 했다.

만형의 두눈엔 불이 일었다.

《세억아! 넌 자기 위칠 잊었니?》

나는 정신이 펄쩍 들어 우리가 갓 마감지는 개고쪽으로 달려 갔다. 성토가 미처 따라 서지 못해 아직은 철함과 부재블록만으로 앙상하게 형성되어 있는 외곽제방은 파도에 부딪칠때마다 부르르 떨군했다.

벌써 몇개째인지 모를 블록가 물속에 굴러떨어지는것이 푹푹히 보였다.

(야단났구나!)

철함을 조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블록 조립에 신경을 덜 썼다. 그뒤에 철함이 있다는 생각에 블록사이 간격이랑 뒤채움이랑 거의 무시하달싶이 했다. 그리고는 만형의 눈에 걸려들지 않은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파도만은 속일수가 없었다.

《제길, 네간것들이 블록 한덩이 값이 얼마인지 알기나해?》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쇠바줄을 가져다 고리와 고리들을 련결시키기로 맘 먹었다. 그렇지 않으면 형들앞에 죄질것 같았다.

나는 파도에 맞아 물속에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래게 자리를 옮겨 가며 해상굴착기로 접근해 갔다. 두억형에게 쇠바줄을 얻어와야 했었다.

했으나 길길이 날뛰는 파도에 가리워 건너편이 잘 보이지 않았다.

《두억형!》

분명 내목소리가 비바람에 휘익 잠겨 버렸는데 저쪽에서 전조등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맨손이었지만 블록조립준비가 됐을 때처럼 신호를 보냈다.

발동소리가 푹 꺼지더니 두억형의 고함소리가 울려 왔다.

《세억아! 우리 배(해상굴착기)를 매놓은 벌줄을 벗겨라.》

벌줄을 벗기다니. 이런 날일수록 더 단단히 비끄러매야 할 판인데. 형님이 정신 나가지 않았어?

나는 두손을 마구 흔들어 보였다.

그러자 두억형이 내장까지 드러내는듯 한 목소리로 웨쳤다.

《세억아! 저 앞에 있는 부선이 위험해.》

《부선?!》

어제 부재블록을 싣고 왔던 부선생각이 떠올랐다. 했으나 그건 예선이 와야지 해상굴착기로

는 어렵도 없다. 바가지로 노질해서 겨우 움직이는 주체에 부선을 돕는다는건 싶지도 불속에 뛰여 들기다.

《안돼요.》

내가 단호히 다시 두손을 휘젓자 그가 파다당하고 시동을 걸었다.

드륵드륵 굴착기바가지가 공중으로 오르더니 제방과 배가 련결된 벌줄우에 거침없이 날아 떨어지는것이였다.

순간 팽팽이 행기워졌던 벌줄이 《탕!》하고 끊어져 나갔다.

나는 그만 경악했다.

두억형이 다른 한쪽의것을 마저 끊으려고 바가지들 들었을 때 나는 번개같이 다가가 벌줄을 부르쥘었다.

내 머리 꼭대기를 향해 사정없이 내려 오던 바가지가 그만 왈카당 하고 멈춰서더니 덜덜 떨었다. 긴장한 한순간이 지나갔다.

《너 죽짜고 그래? 비켜라.》

《안돼요.》

《빨리 비켜.》

나는 천천히 머리를 쳐들었다.

전조등불빛이 눈 부시게 비쳐오고 그아래 시창안에 형이라고 짐작되는 검은 형체가 조종탁에 웅크리고 있는것이 바라보였다.

왜서인지 눈물이 핑그르 சு둥쳤다.

다들 제방에 미쳤다고 하던 형수의 말이 다시 금 가슴을 쳐서였다.

아! 두억형, 어쩌면 그렇게 모진 생각을 할수 있어? 도대체 부선이 뭐길래. 형님이야 갓 백합을 꺾어 가슴에 안지 않았어. 얼마나 큰 행복들이 바다기슭의 모래불처럼 길게 길게 펼쳐져 있게. 전혀 리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그를 리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파 왔다. 그는 제대군인이었던것 이다.

이때 한억형이 마침 나타났다.

《형님! 둘째형이...》

한억형은 대뜸 사태를 일별하고 나서 나를 엄한 눈길로 쏘아 보았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떨구며 돌아 서는것이였다.

나는 몸서리치며 그를 올려다 봤다.

(만형이 승낙을 안하는구나.)

하긴 세상에 동생을 죽음으로 떠미는 그런 형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벌줄을 끊기만 하면 해상굴착기는 파도 무서운 바다쪽으로 떠밀린다. 부선은 커녕 파도에 굴착기가 균형을 잃고 굴러 떨어 지든가 어쨌든 상상할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것이다.

《세억아!》

만형이 무엇을 결심한듯 심각한 낯색으로 돌아섰다.

《난 둘째한테 가야겠다. 그럼 제방을 부탁한다.》

《예?!》

어느새 그는 말릴 사이도 없이 벌줄을 타고 굴착기로 넘어갔다. 획-

《형님들-》

나는 잔물때문엔지 눈물때문엔지 눈알이 갑자기 쓰러와 팔굽으로 연신 문지르며 오열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 어떤 힘에 떠밀리워 쇠말뚝쪽으로 한결음한결음 다가갔다.

《장해! 막내야!》

두억형의 목소리가 날아 왔다.

《너무해요. 너무...》

나는 벌줄을 뺄 벗겨 버렸다.

순간 기다리고 있었던듯 파도는 굴착기를 에워싸고 아우성소리가 요란한 수평선쪽으로 미친듯이 밀고 나갔다. 전조등불빛이 파도속에 오르내리며 멀어져 갔다.

나는 뚫어져 나뉘는 벌줄을 힘껏 당겼다.

《형님들! 형님들은 너무해요. 세상에...》

그리고는 미끄러지며 어푸라지며 제방우로 끌고 올라와 블로크고리들을 잇기 시작했다.

《네깐놈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 봐라.》

이때 누군가 어둠속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거기서 머물거리는게 누구요?》

《저...》

온몸에 파도를 흠뻑 뒤집어 쓴 시공과장의 번들번들한 얼굴이 나타났다.

《아, 세억동무요? 거기서 뭘 하오?》

《블로크들이 떠밀리지 않게.》

《떠밀리지 않게? 세억인 언제 그런 훌륭한 생각을 다했나 영? 그러지 않아두 여기가 제일 미타하했는데.》

그는 어깨를 세차게 두드려 주며 내 일손을 거들어 주는것이였다.

《손 대지 마십시오. 여긴 제가... 말아 합니다.》

《혼자서 말아 한다구? 가만 이거 파도가 점점 약해지는게 아니요? 아직 썰물시간은 멀었는데.》

《예?! 그럴리가 없겠는데...》

《세억아! 저게 뭐냐? 굴착기가 부선을 꺼차구 저 앞에 버티고 있으니 파도가 거기서 한풀 죽어들어 오지 않니?》

순간 무엇이 머리를 탕-하고 치는것 같았다.

(파도가 한풀 죽어 들어 온다구?)

나는 벌떡 일어 섰다.

눈앞에는 제방쪽으로 밀려 오는 파도를 막아 굴착기와 함께 격전을 벌리고있는 두 형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뒤로 너무 밀리우면 다시 바가지로 던져 앞으로 나가다가 하면 회전하는 굴착기를 안간힘을 써서 바로 잡기도 하면서 파도와 싸우는 그 모습은 마치도 적진속에 돌입하여 회오리바람을 일구는 전설속의 장수를 방불케 했다.

여기저기서 술한 배들이 형님들의 뒤를 따라

장사진을 치기 시작했다.

시공과장은 흥분했다.

《무서운 사나이들이요. 무서운... 도대체.》

때마침 방송차에서 수란누이와 우리 만형수의 8중창이 울려 왔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 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

가슴이 찡했다.

(아! 그들이 울면서 노랜 부르고 있구나. 우리 굴착기를 본게지. 거기에 두형이 타고 있다는것도 알겠지?)

나에게는 마치 두 형들이 그 노래에 힘 얻어 기승을 부리는 파도와 더 힘껏 싸우고 있는듯 생 각되였다.

×

그날도 우리는 남보다 펍 늦어 집으로 향했다. 폭풍이 지나간뒤 바다풍경은 고요하기 이룰때 없었다. 파도는 리성을 잃었던 자기를 속죄하는듯 기슭에 밀려 와 찰싸닥거렸고 방파제는 그우에 림름하게 누운채 기척도 없다.

앞서 가는 두 형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걷는 나의 생각은 오늘 따라 깊어 졌다.

달빛에 드러난 그들의 옷들은 젖고 감탕범벅이 되어 말이 아니였다. 했으나 나에게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 오는 두 거인처럼 안겨 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높은 지식으로 방파제를 쌓아 가는 만형, 용맹으로 방파제를 지켜가는 둘째형, 한때는 분명 내 마음속 저울대우에서 오르내리던 이들이 오늘은 한바리에 실어도 찌글지 않아 보인다.

하다면 나는?

나를 볼적마다 뭔가 물어볼듯 하던 옥희의 모습이 떠오른다.

《양성소엔 안가요?》

나는 천천히 머리를 저으며 이렇게 말할것이다.

《철이 없을 때일수록 꿈이 많은 법이지. 나는 봤소. 만형의 지성과 두억형의 용감성을 말아야. 놀랍긴 하지만 난 그들을 다 욕심내고 싶어.》

《어마나! 가슴도 크네.》

《내 이제야 방파제에 깃든 우리 아버지의 넋을 어렵듯이나마 깨달은것 같애.》...

앞에서 걸던 만형이 뒤를 돌아 보며 두억형에게 말했다.

《한대 태우고 가지 않을래? 기분 좋은김에.》

《그렇게 하자요.》

우리는 비에 젖어 즐편했지만 어느 날 그랬던 것처럼 제방우에 삼각형모양으로 주저앉았다.

나는 여전히 두 형들과 좀 떨어져 앉았다. 생활은 나에게 그들과 엄연한 질적차이를 가지고

있다는걸 여실히 보여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두억형이 내쪽으로 한자국 다가와 앉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랐다.
 (어떻게 형들과 감히.)
 두 형들이 빙그레 웃었다.
 나도 당당히 한각을 가질수 있다는 의미인가.
 하지만 정말 어떻게 형들과 꼭 같은? 선통 믿음이 가지 않는 일이었지만 우리 삼형제의 정삼각이 이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기쁨이, 행복이 매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만형이 불쑥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억척같이 솟은 이 제방을 봤더라면 얼마나 대견해 하셨겠니. 이제야 우리가 나라앞에 뭔가 구실을 하고 있는것 같구나.》
 나의 가슴은 그만 찌르르해 졌다.
 (구실?! 하다면 그게 아버지가 말했었던 그 행복이 아닐가?)
 순간 나는 인생의 새 세기를 맞는듯 한 벅찬 희열에 북받쳐 저도 모르게 초롱초롱한 별들을 치받을듯 일어 섰다.
 그렇다! 그래! 나도 이제 자랐다. 억세여졌다. 언젠가는 분명 두 형들처럼 나도 《벌줄을 벗기리라!》하고 무섭게 웨치며 굴착기에 오를것이다. 다음은 내 차례!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토록 장쾌한 환희를 불러 오게 했던것이다.
 《제방은... 제방은...》
 무엇인가 한것 터쳐놓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격정이 지나쳐서인지 숨이 다 꺾 막혀 왔다.

눈이 덩돌해서 나를 바라보던 두억형이 그만 거친 숨을 몰아 쉬다 이렇게 능청부렸다.
 《목이 멘다는건데... 막내란 역시.》
 《헛.》
 이때 만형이 《그래두 난 우리 셋째가 할 말은 다 했다고 본다.》하며 박수를 치는 바람에 두억형도 뭔가 뭉치고 있던걸 호탕한 웃음으로 터놓았다.
 만형도 나도 그만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더 크게 더 길게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하늘 중천으로 메아리치며 울려 가는것이였다.
 《하. 하. 하. 하. 하.》
 모여 앉으면 의례히 꺼내곤 하던 담배를 형들은 왜 감감 잇고 말았는가.
 참, 이렇게 훌륭한 밤도 있었던가.
 마침 제방머리에 두 《갈매기》가 나타났다.
 《주사침》과 《백합》, 이제는 친근하기 이를데 없는 나의 두 형수들이였다. 머리수건을 벗어 든 그들이 손 저으며 달려 오고 있다.
 그렇다. 만형뒤에는 형수가, 둘째형뒤에는 수란누이가 있네 삼각형의 세점은 더욱 튼튼할것이다. 어떤 물체가든 세점에 지지할 때 변동을 모르는것이다. 설사 거기에 닥쳐 드는것이 해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국의 방파제는 이렇게 솟아 있다.
 수억만 파도를 잡 제우고 풍요한 조국의 대지를 지켜, 이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지켜 춘하추동 사시절 제 한몸 묵묵히 바쳐 가는 방파제의 다함 없는 그 진정 누가 다 알까.

명언해설

《대작의 본질적특징, 기본징표는 규모와 형식의 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문학예술작품이 대작이나 아니냐 하는것은 그 사상적내용이 철학적으로 심오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다른 모든 사물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작품에서도 내용과 형식은 서로 불가분리의 련관관계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기본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며 내용이 결정적역할을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대작의 기본징표는 규모와 형식이 아니라 사상적내용이다. 대작의 본질적특징, 기본징표는 그 사상적내용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심오한가에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담은 작품만이 훌륭한 작품으로 될수 있고 대작으로 될수 있다. 아무리 요란한 형식을 갖추고 방대한 량을 가진 작품이라도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작용하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가지지 못한 작품은 대작으로 될수 없다.

얼멍채이야기 외 1편

-비전향장기수형님에 대한 추억중에서-

함영근

마을북판의 맑은 시내
여울목엔 고기도 많았네
철 없던 어린 시절 찜뽕 물에 뛰여 들어
얼멍채로 산천어 잡던 일
형님도 생각나겠지

고기잡이에 정신이 팔리면
끼니를 잊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지
그럴 때면 그 버릇 떼준다고
가는 회초리 들고 찾아 오던 어머니
무던히도 가슴을 태웠더란다

즐거웠더라

그래도 저물녘이면
고기꺾미 흔들거리며 돌아 오던 동구길
조무래기 아이들 빙 둘러 싸면
어깨도 으쓱 코노래 부르던
어릴적 그 시절이 눈에 삼삼해

세월은 흘렀어도 잊혀 지지 않는
고향의 옛 시절이여
시렁우의 얼멍채는 폭격에 없어 졌어도
마음속의 얼멍채는 소중히 간직되어 있어
아마 형님은 옥중 긴긴 세월
그 얼멍채로 술한 산천어를 잡았으리

고향 샘물

50년이면
사람의 한생과 맞먹는 세월인데
이전 모습 있으랴만
노란 쪽박 띄워 놓던 샘물만은 옛 모습

마실념을 못하고
이윽도록 제 모습을 비춰 보는 형님
생각도 많아라
샘은 예대로인데
비춰 진 모습만은 옛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늙었는가
새삼스레 백발을 쓸어 보는 형님
어이 제 나이를 잊었으랴만
고향의 샘물앞에서는
어린 아이로 살고 싶은 그마음 다 알아

철창속에서
고향의 샘물은

추억이기전에 힘이였다
차디찬 감방에서
저려 드는 상처는 샘물로 씻었고
주린 배도 이 샘물로 달래졌지

세월은 형님의 머리우에
백발을 엮었어도
고향의 샘물은
조금도 형님을 늙게 안했소
샘물추억으로만 살아
형님은 늙은것도 몰랐던게지

그 어디나 샘물이야 없으랴만
고향의 샘물은 유별하다데
달고 시원하고 추억을 불러 내고
그 샘물속에 잠그고 산 옥중 30여년
아 그 샘물에서 얼굴을 못 떼며
형님은 백발을 쓸어 넘기네
-내가 이렇게 늙었는가

세계성구속담

고향, 조국

고향은 친어머니요 타향은 이붓어미(로씨야)
고향에선 토스레욱도 포근하고 낮 선 고장에선
비단욱도 차갑다(몽골)
누구나 하나의 친어머니가 있듯이 오직 하나의
조국만이 있다. (로씨야)
다른 나라의 추장이 되는것보다 자기 나라의
목동이 되는 편이 낫다. (로씨야)

사람은 늘 고향을 못 잊어 하고 철새는 언제나
옛숲을 그리워 한다. (중국)
조국 없는 사람은 어머니 잃은 아이. (로트나
아)
닭도 다른 동네에서는 울지 않는다. (까메룬)
타향은 불은 고향의 연기보다 어둡다. (도이쉴
란드)

붉은 섬광

리금철

남태평양의 아열대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나라인 아씨르의 수도에서 한밤중에 발생한 항구화재사건은 실로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었다.

원인 모를 폭발과 함께 일어 나 부두 안쪽으로 퍼져 나가는 불길, 불길... 그 불길의 화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수천개의 연유통들이 환히 드러나 있다. 통들마다 썩어 저 있는 흰색의 자호들, 《USA》...

어느새 날아 와 부두상공에 떠도는 미군직승기. 그 직승기에서 몇개의 검은 구체들이 불길우에로 떨어 저 내린다. 그러나 불길은 꺼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세차게 기승을 부리며 그 연유통들쪽으로 번져 가고 있었다.

그것에 질겁한듯 미군직승기는 황황히 바다쪽으로 날아 가고 말았다.

연유통들의 폭발을 몇분 앞둔 때 별안간 부두의 상공에 붉은 섬광이 번쩍이더니 웅글은 퇴성이 올었다. 그러자 것처럼 무섭게 타번지던 불길이 갑자기 사위여 지더니 얼마후에는 모두 땅속으로 잦아 든듯 없어 지고 말았다.

이것은 불과 20분사이에 일어 난 아씨르항구의 화재사건이었다. 불이 꺼진 부두의 밤하늘에 화재가 피워 올린 검은 연기가 무겁게 떠돌았다. 마치도 이곳 항구에서 일어 난 피이한 화재현상의 비밀을 덮고 있는 흑막처럼...

화재의 연기로 하여 뿌ית한 재빛 운무속에 묻혀있는 항구로 한대의 승용차가 질주해 들어 왔다.

피해를 입은 어수선한 부두가까이에 와 멎어선 승용차에서 연회색의 코트를 몸에 걸친 한 여인이 가볍게 내려 섰다.

아침노을이 비긴 동녘하늘에서 불어 오는 해풍에 금발머리카락을 훑날리는 그 여자의 자태는 참으로 황홀하였다. 그는 아씨르항구화재사건수사를 위해 현장으로 내려 온 이곳 자치주 검찰청의 상급검사 아브람즈 헬렌이다.

처녀의 눈길은 지금 부두에 정박해 있는 관광려객선 《펜진》호에로 가 멎어 있었다. 간밤에 일어난 화재의 수수께끼를 제일 많이 안고 있는것이 바로 저 배이다.

오늘 새벽 항구경찰은 화재가 멎은 사고현장과 그 주변수역에 대한 검색사업을 진행하였다. 잠수부들은 화재당시 《펜진》호가 정박해 있던 주

변 바다밑에서 이상한 물체를 건져 내었다. 길이가 60센치미터, 구경이 8센치미터인 그 은백색의 특수수지원통을 감정한 결과 어떤 휴대용발사체의 잔해라는것과 그것이 바다물밑에 가라앉은것은 불과 몇시간전이라는것이 판명되었다. 발사체는 바로 관광려객선 《펜진》호에서 부두에 화재가 일어난 때를 전후로 사용된것이였다.

항구경찰은 그 발사체의 사용에 의해 부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상부 보고하였다. 그러면 그 발사체의 사용자들은 누구인가?그들은 무엇때문에 항구에 화재를 일으켰는가? 혹시 그 연유통들을 노리고?...

그 연유통들은 원래 이곳 아씨르섬에 주둔하고 있는 미해병대의 전략물자이다. 미군은 며칠전에 본국에서 수송해 온 수백톤의 그 연유통을 저희네 군항에 가득찬 군수물자들을 구실로 이곳 민간항구에 우격다짐으로 반입 시키였던것이다.

최근 이곳 주민들속에서 높아 지는 반미감정과 당국의 요구로 이 섬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미군이 이처럼 많은 전략물자를 평화적인 항구에까지 마구 들이민 그 오만무례한 처사가 결국은 아씨르에 피해를 가져 온 셈이다.

착잡한 생각에 잠겨 잔교우를 거니는 헬렌에게로 경시청의 자스민정부가 느릿이 다가왔다.

《허! 아침산책을 하시오? 산책도 너무 오래면 권태감이 올텐데...》

《권태감을 이기면 희망이 온댔어요. 그 희망을 정부님이 가지고 온것 같은데... 벌써 사건수사의 실머리를 찾은가 보지요?》

자스민은 헬렌보다 먼저 항구화재사건수사를 시작하였던것이다.

《역시 헬렌씨의 예지란...》

자스민은 헬렌앞에 자그마한 휴대용컴퓨터를 동작시켰다. 휴대용컴퓨터에는 어제밤 부두의 자동감시기가 록화한 자료들이 입력되어 있었다. 《이것 보오. <펜진>호의 수백명 승객들중에 이 사람의 표정과 행동거지만은 별로 남 다르오.》

컴퓨터의 화면에는 30대의 젊은 남자가 비쳐지고 있었다. 손에 쥔 무선전화기를 입가에 가져다대고 무어라 다급히 말하며 불길이 치솟는 부두쪽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얼굴표정은 두려움에 싸여있는 어느 승객들과는 달리 침착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컴퓨터의 화면에는 그 사람의 인물자료가 나타

났다.

이름. 김학성

나이. 당년 서른네살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직업. 남극대륙 그라함랜드연구기지 연구사(분자화학공학 박사) 박사의 동행자들인 다른 두명의 조선사람들도 분자화학공학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남극대륙의 상공에 구멍이 난 대기의 오존층을 수복하기 위해 다년간 현지에서 연구사업을 하던중 귀국하는길이었다.

(분자화학공학 박사... 그라함랜드연구기지...) 입술을 옥물고 사색에 잠겨 있던 헬렌은 컴퓨터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조종에 따라 화면에는 본래의 장면이 다시 비쳐 졌다. 화재현장과 승객들쪽을 엿갈아 보며 빠르게 움직이는 학생의 입놀림... 《경부님, 혹시 저 입놀림이 우리에게 뭔가 시사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자스민은 침묵하였다. 헬렌의 말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역시 헬렌은 지혜가 있는 여자였다.

《알만 하오. 저 사람의 입놀림을 언어로 재현해보지요. 내 전문기관에 의뢰하겠소.》

아씨르당국은 항구화재사건수사에 헬렌과 자스민을 동시에 참가시키었다. 범인수사로 국제선박을 억류시키면 엄청난 연체료지불은 물론 국제사회계의 비난을 산생시킬수가 있으니 《렌진》호 출항전으로 방화범을 잡아 내야 하였다. 아씨르시장은 그들에게 직접 무선전화까지 걸어왔다. 《두 수사진이 마음을 합쳐 14시전으로는 사건을 결속해야 하오.》

(마음을 합치란 말이지...)

자스민에게는 시장의 그 혼시가 뜻 깊은 의미를 안고 가슴속에 파고 들었다. 헬렌과 몸 가까이 있는 이 젊은 경부의 마음은 지금 흥분으로 끓고있었던것이다.

자스민은 이미 오래전에 이 미모의 처녀에게련정의 불질을 하였었다. 하지만 처녀의 랭담성은 그런 불질쯤에는 녹을념을 하지 않았다. 자스민은 그때 벌써 그런 서툰짜리 련정으로는 헬렌의 가슴속 열음을 녹여 낼수가 없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경부로서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나이다운 기질과 인내력으로 이 미인의 마음을 흔들여 놓아야 한다. 비로 그 기회가 비로서 찾아 온것이다. 헬렌과 함께 벌리는 이 항구화재사건수사는 자스민에게 차례진 더 없는 행운이었다.

헬렌과 헤어지기 앞서 자스민은 그에게 은근히 말을 건넸다.

《헬렌씨, 난 우리 아씨르의 리익적전지에서 건

의하는건데... 이번 수사에서 검찰청의 검사와 경시청의 경부라는 직업적인 울타리를 해소하였으면 하오.》

《서로가 협력하자는 그 의견은 저도 동감이에요. 하지만 맹수사냥도 한곳을 함께 찌르는것보다 두곳을 서로가 동시에 찌르는것이 더 효과적일텐데요.》

《제각기 수사선을 늘이자는데...》

《<사작과 끝을 동시에 보라.> 아마 동방의 성구일거예요.》

자스민은 헬렌의 의도를 대뜸 알아 차렸다. 항구화재사건의 시작과 끝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자는것이다. 헬렌은 《시작》에서부터 오고 자스민은 《끝》에서부터 가고...

자스민은 헬렌에게로 지קות은 눈길을 보냈다.

《헬렌씨, 만약 우리의 두 수사선이 한점에서 교차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그것이 우리들의 로맨스 (사랑) 로 되지 않을까요?》

《처녀를 그렇게 바라보면 실례합니다.》 자스민의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비끼었다.

《난 그 교차점이 지금껏 평행을 그어 온 우리 두사람의 운명의 교차점으로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의 수사선이 교차를 이룰수 있겠는지... 하지만 저 역시 그것을 기대해요.》 순간 자스민의 너부죽한 얼굴이 불을 켜 투광등처럼 환히 밝아 졌다..

《항구화재사건에는 바로 이 배가 관계되어 있어요.》

관광려객선에 오른 헬렌이 선장에게 던진 이 말은 말 그대로 《렌진》호의 한복판에 떨어 진 《폭탄》이었다. 깜짝 놀란 선장은 헬렌에게로 사납게 두눈을 치켰다.

《무슨 소릴 하오? 도리어 우린 그 화재때문에 모두 <천당>으로 갈번 했소.》

선장의 말은 사실이였다.

남극대륙관광을 끝내고 귀향하던 도중 이 항구에 정박한 《렌진》호에서는 폭음에 잠을 깬 수백명의 승객들이 절망에 싸여 불길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연유통들을 바라보며 아우성을 터치였다.

잠옷바람으로 뿔쳐 나온 선장에게 어느 녀 빠진듯 한 녀인이 매여 달리였다.

《정보관실에 도적이... 트렁크를...》 그러나 선장은 무선전화기를 손에 쥐고 다급히 고함만 질러 댔다.

《기관실! 기관실!...》

이어 아비규환의 소음을 짓누르며 배기관의 든중한 시동소리가 터지였다. 배를 바다쪽으로 뺏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부두상공에서 붉은 섬광

이 일어 나고 무엇때문인지 것처럼 성능 좋던 배 기관이 연방 채채기를 하더니 멎어 버리고 말았다. 갑판우의 승객들도 모두가 숨이 가빠 하면서 공포속에서 허둥거리었다. 만약 부두에 쌓여 있는 수백톤의 그 연유가 폭발했으면 항구와 그 주변은 온통 불바다로 되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화재의 범인이 아 배에 타고 있는것은 틀림없어요.》 《그럴수 없소. 우리 <펜진>호에는 관광객들뿐이요.》 선장은 무뚝뚝히 대꾸했다. 《왜 관광객들뿐이예요? 제가 알기엔 그의 사람들도 몇 명 있던데요.》

《그의 사람들이라니? 아, 조선사람들이요? ... 남극대륙의 드레이크해협에서 3명의 과학자들이 우리 배에 올랐소.》 《그 사람들을 배에 태운 리유는 뭐예요?》 헬렌은 《펜진》호의 웅자를 천천히 둘러 보며 혼연히 물었다. 《인디아주의요. 그들이 하는 연구는 우리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일인데 그런 봉사야 못해 주겠소? 물론 그들한테는 전용비행기가 있지만 그곳에 남아 연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리용해야 하니 부득불 우리 배에 ...》 갑자기 선장의 혀가 굳어 졌다. 바다사람다운 기품과 배짱이 엿보이던 그의 두눈에도 언뜻적의가 비끼었다. 《아니? 그러니 그 사람들이 화재를...》 《전 아직 그 사람들이 화재범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헬렌은 코트에 두손을 찌른채 갑판우를 몇걸음 거닐다가 다시 선장에게로 고개를 들었다.

《화재당시 짐보관실에 도적이 들었댔다지요?》

《그 녀인이 헛본 모양이요. 아직은 승객들속에서 무엇을 잃었다는 사람은 없소.》

《아마 그럴거예요.》 처녀검사는 그 리유를 알고 있는것 같았다.

선장은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혹시 그 무슨 귀중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켰을수도 있지 않을까? 배안에 혼잡을 조성시키고 그 기회에 도난을 실현하려고... 그러다 갑작스러운 불길의 소화로 혼란이 가라앉자 노리던것을 찾지 못했을수도 있다.

여러명의 승객들이 모여 들자 그들의 대화는 더 이어 지지 못했다. 《선장님, 이 배가 억류됩니까?》

아마 어느 승객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파장해서 전한 모양 모두의 표정은 불안한 기색이었다.

《그렇게 될것 같소. 항구화재사건이 해명될 때까지 ...》

선장은 풀이 죽어 떠듬거리었다. .

《난 <볼페르>사와 남극대륙관광에 대한 인터뷰를 계약했소. 계약이 류산되면 선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의 주권들은 시간을 다루오. 여기서 지체하면 안된단말이요.》

선장은 헬렌에게로 침울한 눈길을 돌렸다.

《아가씨, 보다싶이 나에게는 시간이 돈이요. 귀향이 늦어 지면 우린 매일 80만팔라를 손해 보게 되오.》

헬렌은 선장에게 두눈을 짚끔히 치켰다.

《고작 20만팔라예요? 선장님, 화재로 잃을번하였던 이곳 아씨르의 수많은 재부가 얼마인지 그 값을 계산해 보았어요?》

선장은 코살을 쩡긋거리더니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아씨르항구의 화재사건으로 비등된 이곳 당국의 분노를 잘못 자극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할수가 있었던것이다. 사건의 진실여부가 어찌하였던지간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것은 역시 아씨르당국이다. 정말로 이 녀검사의 판단대로 화재의 범인이 《펜진》호에 있다면 출항문제를 항의한것이 도리어 공무집행방해죄로 몰리울지 어이 알랴.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로였다. 화재를 입어 거무튀튀한 부두의 전경을 바라보는 헬렌의 분기가 비낀 눈빛에서 그들은 아씨르검찰의 희생물로 될수 있는 위구를 느끼였었다. 재난을 당한 아씨르는 필경 누구한테인가 분풀이를 가할것이다. 《펜진》호의 승객들은 누구도 자기들이 아씨르검찰의 칼도마우에 오를 도미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결국 《펜진》호의 닻줄은 이 처녀검사의 작은 손에 쥐여 저 있는셈이다.

우울해 진 승객들이 헤쳐 가려는데 흰 샤쓰에 재킷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한 젊은 승객이 헬렌앞으로 다가섰다.

《검사선생, 나는 당신에게 문제고찰을 심중히 할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헬렌의 놀란 눈길이 그 젊은 승객한테로 향해졌다. 처녀의 눈길이 한동안 이목구비가 그췄난 그에게로 가 멎어 있었다.

《바로 그 조선과학자이지요.》

선장이 헬렌에게 그 젊은 승객을 소개하였다. 《알고 있어요. 이름은 김학성, 분자화학공학 박사이지요.》

헬렌은 학성이한테서 눈길을 떼고 차갑게 대꾸하였다.

《박사선생, 선생한테도 시간이 돈인 모양이지요?》

《그 말은 나한테가 아니라 바로 당신한테 해당되오. 사건수사로 <펜진>호의 출항이 늦어 지면 당신네 당국은 시간당 계산되는 연체료를 물어야 할테니까.》

《저에게 무슨 암시를 하자는거예요?》

《당신의 수사방향은 잘못 정해 졌다는거요.》 헬

렌의 눈길이 또다시 학성에게로 날아 갔다.

젊음으로 붉어 진 그의 얼굴에서는 지성적인 두눈이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그 나이에 벌써 이마까지 약간 벗어 진 호남아의 그 용모가 자못 준수했으나 그렇다고 학성앞에 주눅이 들 헬렌이 아니었다. 도리어 처녀의 얼굴에는 차디찬 냉소가 비껴 있었다.

《선생은 제 수사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계시는군요. … 저는 언제나 수사방향을 옳게 정할줄 안답니다. 이번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유를 설명해 줄수 없겠소?》

《선생은 여기가 변론장인가 하는 모양이군요.》

헬렌은 학성에게 비웃음을 지어 보이고 선장에게로 몸을 돌리었다.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료가 필요해요. 선장님자신의것까지 말이에요.》

선장은 옅은 비웃음을 지었다.

《자, 그럼 제 방으로… 컴퓨터에 다 기록되어 있소.》

헬렌은 선장의 방에서 컴퓨터의 화면에 비치는 승객들의 이름과 국적 그리고 그들의 소지품의 종류와 모양, 크기 지어는 그것이 콘베아에 실려 상선될 때 자동적으로 측정된 질량까지도 모두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선장님, 이 사람들을 좀 불러 주실수 있겠지요?》

헬렌은 언제 복사했는지 여러 승객들의 이름이 찍혀 있는 종이장을 선장앞에 내밀었다.

《여기로 말이에요?》

《아니, 선창의 짐보관실로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답은 혼연했으나 선장의 두눈에는 짙은 의혹이 어리었다.

너렁청한 짐보관실에는 헬렌이 지적해 준 승객들이 모두 모여 들었다. 그들속에는 학성이라도 있었다. 선장의 안내로 짐보관실에 나타난 헬렌은 담담한 눈길로 그들모두를 둘러 보며 먼저 량해부터 구하였다.

《…손님들은 저의 요구에 응해 주셔야겠습니다. 항구화재사건에 대한 수사이니만치 불복하시면 아씨르의 법률이 적용된다는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자기의 손집들을 찾아들게 하였다.

《우리들을 배에서 내리우려는게 아닐가요?》

몸집이 풍만한 중년부인이 옆에 서 있는 학성에게 나직이 묻는 말이었다.

《부인, 걱정 마십시오. 아씨르의 외국인취급법도 공정성을 띠고 있을테니까요.》

그 소리가 헬렌의 귀에까지 가닿았는지 처녀는 학성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 공정성이 누구

한테나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지요.》

학성이한테서 눈길을 헬렌은 승객들을 둘러보았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트렁크질량을 측정하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립회하에서입니다.》

신통히도 그들의 손집은 모두 큼직한 트렁크들이었다. 헬렌은 바로 트렁크주인들만 여기로 불렀던것이다.》

승객들의 표정은 각이하였다. 의혹과 불만, 불쾌감과 초조… 그들중에는 헬렌에게 경멸의 눈길을 던지는 측들도 있었다.

헬렌은 그 모든것을 묵묵히 감수하며 승객들의 트렁크질량을 세밀히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반중력의 원리를 적용한 자그마한 휴대용질량 측정기는 매 트렁크들의 무게를 정확히 가리키었다.

이것이 항구화재사건에 대한 수사라니 사람들은 모두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이어 학성이 차례가 되었다.

헬렌은 휴대용질량측정기를 학성의 격자무늬트렁크우에 올려 놓았다.

《자, 보세요. 이 트렁크는 남극대륙의 드레이크해협에서 상선때 측정된 질량보다 4.8키로그램 줄어 들었군요.》

학성은 굳어 진 얼굴을 슬그머니 옆으로 돌렸다.

《트렁크에서 무엇이 없어 졌지요?》

학성이 선뜻 대답을 못하자 헬렌의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비끼었다.

《혹시 제가 선생의 트렁크질량을 잘못 측정했나보지요?》

《잘못하다니? … 아주 숨씨가 있던데요.》

학성은 헬렌에게 쓴 웃음을 지어 보이고 계속 말을 이었다.

《트렁크에는 우리의 연구시제품이 들어 있었소. 그라함랜드연구기지에서 시험제작한것인데 조국에서 열리는 과학축전에 가지고 가던것이요.》

《그러니 대단히 귀한것이겠군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아씨르의 검사는 세관직도 겸하는 모양이구만.》

《호! 대답을 피하시는군요. 바로 이것이지요?》

헬렌은 학성앞에 한장의 사진을 꺼내보이였다. 사진에는 그 발사체의 잔해가 또렷이 찍혀져 있었다.

한시간후에 항관리의 방에서는 화재사건에 관한 청문회가 있었다. 항구의 화재사고로 당국의 호된 추궁까지 받은 시장이 황급히 검찰청과 경시청의 장관들을 앞세우고 현장으로 나온것이다.

헬렌과 자스민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차스민으로부터 항구의 화재사건상황을 자세히 청취한 시장은 시름에 겨운 두눈을 지그시 내려 감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정말 그 연유통들이 무사한게 천만다행이요. ... 그래 불은 누가 끈것 같소?》

《미군일겁니다. 불길의 자기네 연유통들을 모두 날려 보낼 판인데 미군이 가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화재당시 미군직승기가 날아 와서 검은 구체들을 떨어뜨렸는데 마침 저는 수사과정에 연유통 야적무지 가까이에서 그 구체의 잔해를 발견하였습니다. 불길의 소화는 바로 그 구체의 폭발로 인한것입니다.》

화재현장주변에서 함께 발견된 발사체의 잔해와 검은 구체의 잔해... 폭발, 붉은 섬광...

둘중 하나는 불길을 일군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길을 끈것이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화재를 저질렀는지 모르겠거든. ...》

자리에 앉았던 차스민은 다시 몸을 일으키었다.

《그 목적은 미군의 연유통폭발입니다. 아씨르 항구의 화재사건은 명실공히 미군에 대한 습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고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화재당시 무선전화기로 말한것이 있습니다.》

차스민이 내어 주는 복사지에는 경시청의 전문가들이 화성의 입놀림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얻어낸 단어들이 찍혀져 있었다.

...항구의 불... 연유통들이 폭발... 연구품을 사용... 불길...

《이 단어들을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항구의 불길로 연유통들이 폭발하게 된다. 연구품을 사용해서 불길이 일어 났다.>》

《연구품이란 뭐요?》

《바로 그 발사체이지요.》

이번엔 시장의 눈길이 헬렌에게로 향해 졌다.

《헬렌양의 견해는 어땠소?》

시장의 물음에 지금껏 자기 생각에만 잠겨 있던 헬렌이 고개를 들었다.

《전 차스민씨의 말을 긍정할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렇게도 된답니다. <연구품을 사용하면 불길을 끌수 있다.>》

차스민의 놀란 눈초리가 헬렌에게로 날아 갔다. 사나이의 얼굴에는 샅시에 불만과 의혹, 경멸의 표정이 한데 엉켜 비껴 있었다.

《허! 헬렌씨는 그 미남자를 만나보더니 혹시 반한게 아니요?》

《롱담은 그만해요!》

헬렌은 차스민에게 차갑게 쏘아 붙이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들이 그 발사체를 트렁크에서 꺼낼 당시는 이미 부두에서 한창 불길이 일던 때예요.》

차스민은 어리둥절해 지고 말았다.

차스민뿐이 아니었다. 방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병병해서 헬렌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화재는 누가 일으켰다는거요?》

헬렌은 자기의 손가방에서 자그마한 소형록음기를 꺼내 탁자위에 올려 놓았다.

《이걸 좀 들어 보세요.》

이어 록음기에서는 《펜진》호의 짐보관실에서 승객들이 헤쳐 간후 헬렌과 학성간에 오고 간 대화가 흘러 나왔다.

《난 검사선생에게 항구화재사건을 심중히 대할것을 다시한번 권고하고 싶소. 나타난 현상보다 본질을 더 중시해야 하지 않겠소?》

《본질의 발현이 바로 현상이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르게 보일 때도 있소. 화재당시 미군직승기의 출현이 바로 그 실례요.》

《그 근거는 뭐예요?》

《화재가 일어 나자 1분이내로 미군직승기가 항구상공으로 날아 들었소. 이것은 미군이 이미전에 항구화재를 예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박에는 달리 볼수 없소. 그리고 미군직승기에서 검은 구체가 떨어 지자 불길은 더 세차게 연유통들쪽으로 번져 갔소.》

《호! 그러니 선생의 말씀은 미군이 화재를 일으키고 저희네 연유통들을 폭발시키려 했다는것이군요. 그건 지나친 억지가 아닐가요? ... 부두의 불길은 미군직승기에서 떨어진 검은 구체에 의해 소화되었어요.》

《도리어 부두의 불길을 연유통들쪽으로 유도해 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소?》

《선생은 정말 그렇게 보세요? 불길을 유도했다면 공기의 산소분자를 증대시키는 <M>물질이 있었다는건데... 전 그 <M>물질이 최근 남극대륙연구기지에서 새롭게 개발됐다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 같은 분자화학공학자들에 의해서 말이예요.》

《<M>물질은 미국의 연구기지들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구화재사건의 본질로야 될수 없지요. 사고는 바로 미군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것이였어요.》

《아니! 연유통들의 폭발로 리득을 볼건 미국뿐이요!》

침묵...

《롱담을 하시는건가요?》

《미군의 전략물자가 민간항구에 있기때문에 그것이 폭발하면 당신네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오. 그러니 막대한 피해보상금지불은 물론이고 그쳐

럼 강경하던 미군철수요구도 더는 하지 못하게 될거요.》

《…》

《그러니 미군은 폭발된 연유의 전량 값을 고스란히 받아 내면서도 이 아씨르섬에 그냥 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게 될거란 말이요.》

…

록음기는 꺼졌으나 누구도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후에야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싸진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던 자스민이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중얼거리었다.

《그 검은 구체의 잔해에서 <M>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방안에는 오래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시장일행을 바래우고 나서 자스민은 자못 진중한 표정을 짓고 헬렌앞에 마주 섰다.

《헬렌씨, 내가 미군항에 들어 가 보겠소.》

헬렌의 눈길이 새로운 의미를 안고 자스민에게로 향해 졌다.

《미군이 승인하지 않을거예요.》

《미군방첩대장교 한명이 도박에 미쳐 나한테서 8천팔라를 꾸어 간것이 있소. 그 값이면 방첩대에서 발급한 미군기지출입증을 손에 넣을수가 있을거요.》

헬렌은 그가 왜서 많은 돈까지 없애며 미군항에 들어 가 보려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

처녀의 눈길이 한동안 젊은 정부의 사내다운 얼굴에 가 멎어 있었다.

《14시엔 <펜진>호가 출항해요. 당신을 믿어도 될가요?》

《헬렌씨, 기대를 가지요.》

《믿음은 기대보다 더 크고 고상한거예요.》

출항을 앞둔 <펜진>호가 배고동소리를 길게 울리었다.

관광력객선으로 다가오는 수로안내선을 바라보며 웃고 떠들던 승객들의 얼굴에 또다시 불안이 떠돌았다. 《펜진>호의 승선층계로 헬렌이 올라오고 있었던것이다.

갑판우에 오른 헬렌은 선미쪽에 홀로 서 있는 학성이한테로 천천히 다가갔다. 학성은 보호대에 손을 짚고 화재의 피해를 입어 어수선했던 부두를 수심에 잠겨 지켜 보고 있었다.

《<펜진>호가 정시로 출항하게 되니 기쁘시겠군요.》

왜서인지 헬렌의 목소리는 서글픔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저 부두의 피해상을 보고 떠나자니 마음은 즐겁지 못하요.》

학성은 다시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저만 해도 다행이지요. 바로 선생님들덕분에…》

학성은 못 들은척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헬렌은 그러는 학성을 지긋게 지켜 보았다.

《어때요? 박사선생, 이제는 저와 숨박꼭질을 그만하시지 않겠어요?》

처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웃음이 비끼었다.

《선생은 어째서 이곳을 떠나가시는 시각까지도 자신들이 한 일을 숨기려 하세요?》

학성은 헬렌의 그 지긋한 눈길을 더는 피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자신이 한 일을 숨겨야 할 때도 있지 않소?》

《그렇다면 매사에 심중해야지요. 선생은 실수를 하셨더군요.》

《?!》

《화재가 일어 난 때 이 배의 짐보관실에서는 정체불명의 몇사람이 어떤 트렁크를 펴놓고 무엇인가를 급히 찾았다더군요. 그런데 그후에 알아보니 자기들의 손집에서 무엇을 잃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헬렌은 학성의 얼굴표정을 가볍게 훑쳐 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전 그것을 찾아 냈어요. 바로 선생의 그 트렁크가 드라이카해협에서 상선때보다 질량이 4.8키로그램 줄어 들었기때문이지요.》

《…》

《그 일이 노여웠지요? 하지만 어찌겠어요. 사람들이란 필요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걸요.》

헬렌의 눈가에는 웃음이 남실거리었다. 그것은 지금껏 처녀가 학성에게 지어 보이던 쓴웃음도 비웃음도 아니었다. 헬렌은 그간에 막대기처럼 꺾끗하게만 보이던 학성이 지금에는 친근하게 느껴 짐이 무엇때문인지 자신도 아직은 알수 없었다.

《항구경찰은 화재가 끝난후 <펜진>호가 정박해 있던 주변바다밑에서 어떤 정체불명의 휴대용발사체잔해를 발견하였답니다. 우리 검찰은 그것의 형태와 용적 그리고 재질과 두께 등 감정에서 얻어진 세밀한 측정치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계산하였어요. 결과 그 발사체의 초기질량이 4.5~5키로그램의 무게를 가지였을것이라는 답이 얻어 졌답니다. 선생의 트렁크에서 줄어 든 질량과 컴퓨터로 계산된 발사체의 초기질량, 어때요? 전 이것의 일치가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헬렌은 재미있다는듯 학성을 쳐다보며 생글생글 웃었다.

학성은 말없이 이 금발처녀의 영민한 두눈만 지켜 보았다.

너검사는 서류가방에서 한통의 문서를 조심히 꺼내들었다.

《박사선생, 선생이 화재때 단행하신 그 행동을 굳이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헬렌이 내미는 그 문서는 항구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부였다.

학성은 혀를 굴리었다.

《허! 이런 중요한 문서를 내가 보아도 일 없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선생은 저의 수사에 관심이 무척 컸으니까요.》

《허! 그러니 결과를 보라는거겠소.》

학성은 문서를 펼치었다.

극비. 아씨르항구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부.

...아씨르항구의 화재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유발된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판도에서 벌여 지고 있는 반미기운의 여파로 이곳 아씨르에서도 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 가고 또 당국의 항의와 요구로 더는 이 섬에 주둔할 명분을 잃게 된 미군은 계획적인 음모를 꾸미었다.

그 음모는 아씨르항구에 저희들의 연유를 반입시키고 그것을 폭발시킴으로써 이곳 당국에 책임을 넘겨 썩워 미군의 아씨르주둔을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

그러나 미군은 목적을 실현할수가 없었다. 이상한 소화현상이 일어 나 불길의 모두 없어 짐으로써 연유통들은 폭발되지 않았던것이다.

수사과정에 본 검사는 다음과 같은 추리와 분석으로 아씨르항구의 이상한 화재소화현상을 판명할수가 있었다.

부두에서 화재가 일어 나자 관광객객선 《펜진》호에서도 소동이 일어 났다. 미군의 연유통들이 폭발하면 《펜진》호 승객들의 생명도 위험했던것이다.

그 시각 배에 타고 있던 조선과학자들인 김학성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집보관실에서 자기들의 트렁크를 찾아 들추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재빨리 트렁크에서 어떤 발사체의 부분품들을 꺼내 조립하여 부두의 상공으로 쏘아올리었다.

그 발사탄의 작렬로 부두의 밤하늘에 붉은 섬광이 번쩍이었다.

이상한 일은 그 붉은 섬광이 번쩍인후에 일어 났다. 《펜진》호의 승객들모두가 갑자기 숨차하면서 연방 가쁜 숨을 몰아 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무슨 일때문인지 부두가에서 물러 서며 통탕거리던 배기관도 연방 이상하게 재채기를 하더니 인차 멎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더 놀라운 현상은 항구의 부두에서 일어 났다. 것처럼 사납게 기승을 부리며 연유통들쪽으로 다가들던 그 불길

이 점점 낮아 지더니 1분후에는 땅속으로 찾아 든듯 모두 없어 지고 말았던것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무슨 과학의 원리로 것처럼 무섭게 타번지던 불길이 순간에 꺼져 버렸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검사가 증점을 둔것은 그 발사체의 주인이 분자화학공학박사이고 또 그라함랜드연구 기지에서 만들어 진것이다.

본 검사는 정보봉사망을 통해 남극의 그라함랜드연구기지에서 대기분자의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이미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남극의 상공에 소실된 오존층까지도 수복하려고 달라불은 조선의 과학기술이고 보면 능히 대기속의 분자화합물을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공기로 소화현상을 일으킬수 있었다고 보아 진다.

실제로 분자화합물은 물론 단순물질에서조차 조성은 같아도 그것들사이의 결합방식이 다르면 성질이 달라 지게 된다. 비유해서 말하면 불무지에 질량과 조성은 꼭 같으나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것 즉 긴 모양의 나무대, 둥글게 생긴 나무공을 함께 집어 넣으면 다 같은것이지만 나무대에는 불이 쉽게 당기고 나무공에는 불이 잘 당기지 않는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공기중의 산소도 조성이 같지만 분자의 결합방식이 다르면 불활성을 띠게 된다. 형상적으로 고찰하면 평상시의 대기속에 들어 있는 산소분자는 불 붙기 쉬운 《나무대》이지만 붉은 섬광이 번쩍인후 변화된 대기속의 산소분자는 불 붙기 힘든 《나무공》이다.

불붙기는 곧 산소의 산화반응일진대 체때에 반응에 참가 못하는 《나무공》의 산소분자발생으로 해서련속되어야 할 연소과정에 생긴 공백은 이처럼 큰 불길도 순간에 꺼버린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다른 긍정적인 증명은 부두에서 탈출하던 《펜진》호 기관이 멎어 버린 사실과 승객들의 숨 가쁜 호흡현상이다. 공기속에 분포 되어 있는 산소가 불활성을 띠게 되자 기관 안에서 진행되던 연료의 연소가 멎어 버렸고 오래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승객들의 호흡에서도 이상현상이 나타났던것이다.

그 이후 《펜진》호 승객들의 정상상태로 보아 사람들이 《나무공》산소의 조성으로 인체에 해독을 받지 않은것으로 추측된다. 아마도 공기중에 생명에는 위험을 주지 않을 량의 활성산소가 남아 있어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숨 가쁘게 호흡하여 부족되는 산소섭취를 한것으로 보아 진다. ...

우리 아씨르시민들과 《펜진》호 승객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남 모르게 지켜 준 조선과학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

《허! 정말 놀랍군요. 혹시 헬렌씨는 실제로 산소분자의 인공조절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선생처럼 과학을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왜 지금껏 그것을 숨겨 오셨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성은 헬렌에게 기록부를 돌려 주고 먼 북쪽 하늘에 눈길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자부심이 안아 오는 희열로 붉게 충혈져 있었다.

《나는 그 연구품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국에도 아직 보이지 못한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조국은 이곳 아씨르항구의 화재상황에 대한 나의 보고를 듣고는 지체없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준것입니다. 바로 이곳 아씨르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위해서 말입니다.》

《!》

처녀의 온몸은 전류가 흐르듯 삼시에 짜릿해들었다. 분명 그것은 지금껏 감수해 보지 못한 그 어떤 숭엄한 세계에 격상시켜 주며 뿜어내는 심장박동의 거세찬 박동때문이라.

처녀의 작은 가슴이 것처럼 큰 바다를 그러안고 세차게 들뛰어 보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심적충동과는 달리 헬렌은 조심히 자기의 지혜와 심혈이 깃든 수사기록부에 라이타볼을 켜냈다.

《아니? 왜 그러니까?》

학성의 놀란 물음에도 헬렌은 대꾸없이 마지막 장까지 타번지는 문서만 물끄러미 지켜 볼뿐이었다.

《헬렌씨, 내 말이 노여워 그러는게 아니요?》

《용서하세요. 전 선생의 그 연구품이 다시 만들어 저 세상에 공개될 때 이 문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러나 저의 가슴속에는 우리 아씨르의 은인들이 영원히 남아 있을거예요.》

《뚜-》

출항을 알리는 《펜긴》호의 배고동소리가 아씨르항구의 하늘가에 길게 울려 퍼졌다.

부두의 잔교에 내려 선 헬렌은 배우에서 자기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학생이에게 마주 손을 퍼들었다.

학생을 태운 배는 부두를 떠나 점점 헬렌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이어 부두가으로 승용차가 질주해 들어 왔다. 급정거하며 멎어 선 승용차에서 자스민이 뛰어내렸다.

《그래 떠나갔소?》

《떠나갔어요.》

멀어져 가는 《펜긴》호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하는 헬렌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허참! 이런 인사불성이라구야. 그 고마운 사람들을 그저 떠나보내다니...》

자스민은 허를 차며 헬렌에게로 질책의 눈길을 던졌다.

《그 사람들은 그걸 바라지 않더군요. 그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자기 조국만이...》

헬렌은 목이 메는지 더 말을 잊지 못하다가 자스민에게로 고개를 돌리었다.

《가셨던 일은 어떻게 됐어요?》

자스민은 씨근거리며 분격을 터뜨렸다.

《미군항의 부두에 군수물자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허위요. 그 연유통들을 우리 아씨르항구에 반입시킨것은 미군의 의도적인 행위였소.》

《바로 아씨르항구화재사건은 그놈들이 자기네 연유통들의 폭발소리로 아씨르에서 높아 가고 있는 미군철수의 목소리를 짓누르자는 술책이었어요.》

결국 헬렌과 자스민의 수사선은 한점에서 교차를 이루었다.

며칠후, 인터넷망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방성 정보실의 컴퓨터화면에는 아씨르의 처녀검사가 랍증한 자료가 비쳐 졌다.

《붉은 섬팡으로 불구름을 가시였다.》

수령님과 조국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디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200여년만에 독립했다는것은 잘 알려 져 있는 사실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300여년, 알제리는 130여년, 스리랑카는 150여년, 월남은 근 100년만에야 각각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있었으니 망국의 대가란 실로 얼마나 비싼것입니까.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조국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잘 지키라, 나라 잃은 설움으로 통곡하기 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돌한개라도 더 주어다가 성새를 높이 쌓으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세대

리정수

《아버지, 전 이번에 군대에 못 나가면 여길 뜨고 말겠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어디 창피해서 동무들앞에 나서겠어요. 래일 부터 어떻게 학교에 나가겠어요.》

볼 부은 소리 같기도 하고 원망 같기도 한 아들의 말이다. 안해가 살뜰한 어조로 어서 저녁밥을 먹으라며 등을 두드려도 침대에 새우등처럼 꼬부리고 돌아 누운 아들은 시끄럽다는듯 어깨죽지만 후들쩍거릴뿐 응대가 없다, 락심한 안해가 이번에도 두팔을 늘어뜨린채 《휴-》 한숨을 쉬며 돌아선다.

하, 저런 녀석이라구야. 그러니 이건 우리가 아들을 몇달 늦게 본데 대한 항의인가. 그런 일이 무슨 컴퓨터가 하는 일이라고 출생할 날자까지 계산해서 맞춘단 말인가.

벌써 한시간나마 벌여 지는 싱갱이질을 보면서 어지간히 지친 나는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마디 던져 보았다.

《그 녀석 놈두구려. 학급의 녀동무들 보기가 창피해서 그러는것 같은데 그런다고 제가 무슨 뽕족한 수가 있겠대구. 한번 그래 보는거지.》

누워 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 나 앉았다. 울었는지 성이 났는지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인 아들이 군대에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가슴 아프지도 않단 말이에요? 내가 락오자로 여기 남아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말이에요.》

나는 대답이 궁해 저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보던 책장만 뒤적거렸다.

(락오자?!)

아들이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어째서인지 송곳처럼 아프게 머리를 찔렀다.

오늘 아침 조선인민군에 탄원한 학생들이 구역에 담화를 갔었다. 그런데 자기는 부르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신체검사가 불합격인가 해서 알아보니 생일이 몇달 늦기때문에 그걸 마저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다는 것으로 하여 《퇴짜》를 맞은 것이었다. 키도 같고 체중도 같은 한학급동무들인데 왜 나만 안되는가고 때를 써보았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하기가 그것이 때를 써서 된 일이겠는가.

씩씩거리며 들어 온 아들은 벌써 두시간째나 집안사람들에게 강짜를 부리었고 제 어머니는 어떻게 위안하고 달래야 할지 몰라 찢찢 매며 돌아갔다.

나는 그가 아무리 투정질을 해도 규정대로 한 일이니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었고 그런데로부터 말 한마디 한것이 그만에야 아들의 불 붙는 심사에 키질을 해준격이 된 것이었다.

병어리 랭가슴 앓듯 하던 아들은 나중에는 눈물이 그렇게서 부모들이 좀 도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오직 군대에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하긴 그래, 총을 잡은 군인이 되자면 각오와 배짱이 그췌해야지.

《그래, 그만한 각오면 얼마든지 군사복무를 잘 할 수 있다.》

나는 래일 구역에 함께 가자고 약속까지 했다. 본인이 간절히 요구하고 부모들이 승낙하는데야 몇달 늦은 생일이 무슨 대수겠는가.

아들은 너무 기뻐 훌쩍 뛰여 일어 났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 싶게 동무들을 만나러 간다며 뛰쳐 나갔다.

이제는 저 녀석도 다 자랐구나 하는 대견한 마음을 안고 나는 창가로 다가섰다. 벌써 어디로 갔는지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창가마다에서 흘러 나오는 불빛은 공원의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대어섯명의 학생들을 비치 고 있었다.

즐거운 이 저녁 다정한 동무들
우리 서로 약속하자
이 행복 몸바쳐 지킬 때 온다면
우리 다시 만날 곳을

...

이제 며칠후면 모두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게 될 졸업생들이다. 당장 초소로 떠나는 기분들이다.

요즘에 와서 평양에서 지새는 이 밤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저렇게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들을 공원과 유보도의 그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모두가 궁지와 희열로 하여 부푼 가슴들을 어떻게 터칠지 모를 열광속에 있다. 그 모습들을 보면 나의 가슴도 그 열광의 파도속에 함께 휩쓸려 드는것만 같다.

돌이켜 보면 지금처럼 조국보위의 열풍이 인적이 없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학급동무들이 모두 각이한 초소로 떠나갔다. 군대로, 공장으로, 대학으로 떠나며 조국앞에 큰 일을 하고 다시 만날것을 굳게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 졌다. 아래집에서는 대학추전을 받은

아들이 부모들의 승인도 받지 않고 대학추천서를 신체검사표와 바꾸었다.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된 학생들은 신체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때를 쓰며 《룡성》을 한다고 한다. 기어이 입대하겠다는 것이다. 그 불 같은 마음들을 어찌 철 없다 하며 한창때의 객기로 보겠는가.

《선군!》, 《선군!》 어디서나 울려 퍼지는 말이다. 모든 사고, 모든 움직임이 여기에 귀착되어 있다.

군복을 입지 못하는것을 제일가는 수치로 여기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피눈물의 바다를 건너 시작된 《고난의 행군》의 그 준엄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어떻게 헤쳐 온 길이며 어떻게 마련된 오늘이었던가.

아버이수령님의 서거에 이어 덮쳐 든 자연재해, 우리를 압살하려고 사면팔방으로 죄여 드는 제국주의연합세력 그리고 봉쇄...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 인간으로 되느냐 하는 판가리계선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나서신것은 선군혁명명령도의 길이었다.

최전연고지의 굽이굽이의 길에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전설을 새겨 가시고 광란하는 파도속에 한몸을 내대시여 병사들의 가슴에 무적필승의 용맹을 심어 주시며 헤쳐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로고를 우리 인민이 어찌 모르며 자기들을 배움의 창가에 앉혀 주시고 자신께서는 쪽잠에 췌기밥을 드시며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 가신 아버지장군님의 그 장장수만리길을 우리 아이들이 어찌 모를수 있겠는가.

어려움은 아이들을 일찍 철들게 한다는 말이 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쿵우유차는 쉬임없이 거리를 누비였고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은 송도원이며 묘향산, 룡악산으로 즐거운 야영을 떠났으니 그 꿈속에서 받아 안은 고마운 은혜, 뜨거운 사랑을 너무도 심장속깊이에 새긴 그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복, 자기들의 희망을 쫓 피우는

는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 하기에 중대로 조국을 수호하고 총대로 인민을 지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제일선에서 받드는 병사가 되자고 혁명의 군복부터 찾는것이 아닌가.

이제 그 성스러운 초소로 우리의 아이들이 떠나간다. 전화의 50년대 그날처럼 교실의 책상앞에서 빛나던 눈동자들이 장군님과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울 맹세로 번뜩인다.

시인이 될 푸른 꿈을 안고 그렇게도 열렬히 조국과 청춘을 노래한 리수복영웅, 모자라는 체중을 늘구느라 속옷에 차돌맹이를 달고 신체검사장에 들어 간 박원진영웅,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입으로 《민청호》 중기의 압철을 눌러 마지막탄알까지 원쑤의 가슴팍에 날린 조군실영웅...

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서 전화의 그날에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금별로 빛내인 영웅전사들의 모습을 본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이제는 5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영웅들의 그 넓은 오늘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

길영조, 김광철, 한영철, 김철진...

총포성은 없어도 수령결사옹위의 대오는 더욱 더 늘어나고 있으며 불패로 뭉쳐진다. 이제 저들이 떠나면 동생들이 커서 또 그 대오에 뭉쳐 질 것이다.

그렇다.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해도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 세대의 의무가 있다.

그것은 머리에 백발을 엮은 로병들도 갓 교복을 벗은 오늘의 새 세대도 모두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대로 받드는 영원한 하나의 총폭탄세대임을 나는 심장으로 느낀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타소리가 울린다.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전선에서 만나자
...

가사

사향가 오늘도 울리고 있네

박상민

어머님 부르시던 조국의 노래
정일봉 둥근 달도 못 잊는 노래
그날의 고향집창가에 흐르던
아 사향가 오늘도 울리고 있네

소백수 물결우에 실리던 노래
광복의 새날을 부르던 노래

불 타는 조국애로 천만심장 끓이며
아 사향가 오늘도 울리고 있네

어머님 한생토록 안고 산 노래
세월이 흘러 가도 영원할 노래
어머님 따르는 인민의 마음속에
아 사향가 오늘도 울리고 있네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 (2)

~1990년대 젊은 시인들의 자취를 더듬어~

류만

시인은 80대에 알아 본다는 말이 있다. 젊어서 시라는 뜻에서 하는 말일 것이다. 하긴 감수성이 빠르고 감정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풍부하며 그 색채도 다채로운 젊은 시절에 시를 많이 쓰고 좋은 시를 남긴다는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공감이가 가는 말이다. 시 《어머니》나 《나의 조국》처럼 인생 후반기에 좋은 시들이 써여 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의 시가 시인의 이름을 알리는데서는 더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문학의 행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리찬이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창작한 것이 20대를 거친 30대였으며 조기천도 30대에 장편서사시 《백두산》과 시 《조선은 싸운다》를 썼다. 시 《갈매기》를 80대에 쓴 김철이 시집 《갈매기》와 《철의 도시에서》를 낸 것도 30대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며 리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박광양의 《진달래》며 박세영의 《산채비》도 다 80대, 30대의 작품으로서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시인들의 대표작은 젊은 시절에 창작한 작품들 가운데 더 많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창작에서는 80대, 30대에 알아 본다는 말이 결코 우연한 말은 아니다. 어쩌 보면 시창작에서는 젊은 시절이 결정적인 시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시인의 장기가 드러나고 개성의 틀거리가 형성된다. 대체로 젊은 시절에 자리 잡힌 시인의 개성적인 틀거리가 시창작의 전 과정에 기본적으로 유지공고화되면서 시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특징지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때로는 그것이 다양하게 변모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서두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자각하고 분발하고 있는 우리 시단의 젊은 시인들을 다시 한번 고무해주고 싶어서이다.

구태의연에 쫓겨나거나 만족하지 말고 《나》를 찾고 가꾸며 《나》로서 《우리》의 당당한 한몫을 차지하라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라고...

《나》가 없이 《우리》에 아무리 속해 있어도 시인으로서의 존재가 없다. 《나》가 있는 《우리》, 《우리》 속에 《나》가 있을 때 우리 시문학은 만발하는 것이며 그 만발하는 속에 《나》는 자기의 빛깔과 향기를 가진 유난한 꽃-개성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예술가는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문학

예술의 발전에도 독자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작가는 언제나 독창적인 창작의 길을 열어 나가면서 매번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한다. 예술의 력사는 창작가들의 끊임없는 창조적 탐구 과정에 발전하여 나간다.》

시문학발전에 독자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창작의 길이야말로 신진시인들이 탐색하고 걸어 가야 할 길이다.

이미 이야기한 시인 문용철이며 렬형미도 다 전국신인문학작품현상모집 시부문 1등 당선자들인데 아예 내친 걸음에 다른 1등 당선자들의 행적도 마저 더듬어 보려고 한다.

1등은 결코 간단한 평가가 아니다.

시단으로의 《평범한》 등장도 그렇지만 특히 1등 당선은 벌써 시단의 각광을 받은 이채로운 등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은 영예로 만족하기 전에 높은 책임감과 각오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신진시인들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 이채로운 등장으로 끝나거나 그것을 헛되이 말며 계속 노력하여 자기의 이채로움을 《교수》하며 그것으로 시문학의 화원을 꽃 피우는데 이바지하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홍철진을 그렇게 애써 노력하는 신진시인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의 시가 나의 인상에 박힌 것은 시초 《움직이는 땅》이었다. 이 시초를 나는 지면에서가 아니라 현상모집에 응모된 작품들에 대한 최종심의 원고상태에서 먼저 읽었다. 그 뒤 《조선문학》[주체87(1998)년 6호] 지면에서 다시 읽었다. 인상에 있었던 시였지만 다시 새로운 감흥을 받았다. 시를 두고는 심오하다는 인상을 가졌으며 시인에 대해서는 사색적인 시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 신진시인답게 시를 그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자기발견을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생각했다.

시초 《움직이는 땅》을 두고 시적발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정과 관련된다.

신천을 두고 얼마나 많은 시들이 써여 졌는가. 신천의 대참사가 있는 때로부터 오늘까지 지난 50여년간 실로 많은 시가 써여 졌다.

그러나 시초 《움직이는 땅》은 그 신천을 다시금 새롭게 노래하였다.

《가슴에 타번지는 증오의 불》을 안고 때없이 신천을 찾아 그칠새 없는 발길을 두고 《눈 내리는 <한가위>》을 생각하는가 하면 《분노의 화산 되어 태동하는 신천》의 참관자들이 마음속에 안

고 가는 원한과 복수를 두고 그것을 《움직이는 땅》과 결부시켜 상상하는 시인의 서정세계는 시적발견의 새로운 세계를 엿보게 한다.

지금까지 신천의 원한과 복수를 피 타게 절규하는 다양한 체험세계의 개방은 있었지만 시초 《움직이는 땅》에서와 같이 심각한 체험세계를 사색으로 심화하면서 거기에서 신천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하고 정서적으로 **승화**시켜 아직까지 풀지 못한 우리 인민의 원한과 복수의 크기와 강렬함, 불 같은 맹세를 그처럼 심각하고 열렬하게, 의미 깊게 노래한 시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묘, 묘는 한가위에만 찾는것이
이 땅의 풍습으로 전해 왔건만
봄, 여름, 가을
증오의 달력을 걸고 사는 이 땅에선
눈 내리는 이날도 《한가위》이 되었구나

오, 신천의 《한가위》만은 삼백 예순다섯날
그래도 모자라는 이 땅의 풍습이다
그래서 찾고 찾는 이 땅의 모습이다
-시 《눈 내리는 <한가위>》 중에서-

움켜 진채 커지는 이 땅의 주먹들이
화석처럼 굳어 저 뭉쳐 지는 신천에
이 작은 주먹도 덧쌓아 놓고
나는 복수의 대문을 나서고 있다

걸음걸음 신천은 멀어 지건만
이 가슴에 실리어 함께 가는 땅
움직일수 없는것이 땅이라지만
분노의 화산되어 태동하는 신천땅은
한자리에 머물러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따라 서는가
-시 《움직이는 땅》 중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찾는 신천의 《한가위》이 삼백 예순다섯날도 모자란다는 여기에, 신천은 멀어 저도 《분노의 파산되어 태동하는 신천만은》 움직이는 땅이 되어 《우리》를 따라 선다는 여기에 신천의 원한을 천백배로 갚음하며 철천지원수 미제의 정수리에 철추를 내릴 불 타는 증오와 복수가 장악되어 있는것이다. 이 시초를 통하여 우리는 신천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

대상에서 시를 포착할줄 알며 사색을 심화하여 새로운 서정세계를 펼쳐 시적발견이 뚜렷한 시작품창작을 지향하는 그의 개성적인 탐구와 노력은 시 《어린이와 묘비》며 《나에게는 목숨이 돌이었던가》 등 작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시 《어린이와 묘비》는 시초 《움직이는 땅》과 일맥상통하는 시로서 신천땅의 백돌 어린이묘비앞에서의 체험세계를 노래한 시이다.

시인의 사색은 어린이묘비에 집착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

주던 땅이여/ 5천년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있어 본적 없는 이 묘비》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사실을 두고 《이 피눈물의 비석을/ 세우지 않는다면/ 피에 주린 송냥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다시 그런 불행을 강요할지 누구도 알수 없는데 대하여 말하는 시인의 사색의 세계는 결코 누구나 쉽게 가질수 있는 그런 생각정도가 아니며 심각한 철학을 동반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 이땅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땅이기에
아니 세우면 안되었던
신천의 백돌 어린이묘비

그것은 천진하고 순진한 너희들도
송냥이 미제에겐
적이 될수 있다는 말
이앞에선 아이이기를
그만 뒤야 한다는 말

송냥이앞에서
순진한 눈동자란 있을수 없다

깊은 사색을 펼쳐 드디어 도달한 서정의 세계는 이처럼 심오하다. 시인은 깊은 시색의 심연을 형상으로 가꾸며 마침내 깊은 체험세계에서 이런 서정의 샘을 파내었다. 이런것을 두고 새롭고 참신한, 독창적인 시적발견이라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시 《나에게는 목숨이 돌이었던가》에 대해서도 같은것을 말할수 있다. 앞에서 본 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 역시 강한 극성을 띠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예리하고 심각하다.

시인은 비전향장기수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정치적생명의 귀중함, 육체적생명은 잃을수 있어도 정치적생명은 버릴수 없다는것, 육체적생명은 어머니가 주지만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은 《위대한 태양》이 준다는데 대하여 죽음과 목숨의 대결이라는 심각한 극한점에 선 인간의 운명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생활적체험을 안받침한 지점은 사색의 추구로 형상화해 나갔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전향하지 않았다는/ 그 단 한가지 리유로...》 살점이 뜯기우고 뼈가 부서지면서도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는》것을 행복한 일 이라고 생각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죽음의 열두대문 열고 닫으면 서도》죽지 않고 산것은 《위대한 태양이 빛어 준 목숨은/ 그렇게도 질기고 강한것》이기때문이였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절감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도 보인다. 이런 심각한 체험세계를 가진 서정적주인공의 《두 모습》이 하나의 모습속에 통일됨으로써 《나에게는 목숨이 돌이었던가》 하는 시

인의 물음이 결국은 사람에게는 육체적생명과 정치적생명이라는 《두 목숨》이 있으며 어머니가 준 육체적생명은 비록 꺼질수 있어도 《위대한 태양이 빛》이 준 정치적생명은 영원하다는 심오한 진리를 형상적으로 천명하였다.

물론 형상에서 론의되어야 할 여지를 남기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 역시 시인에게 고유한 사색의 깊이를 보여 주며 그 사색속에서 제기된 문제를 심각하게 파고 들면서 마침내 시인이 밝히려고 한 사상감정을 특색 있는 형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지금까지 살펴 본것처럼 그의 시들은 시상이 명백하면서도 심오하며 서정전개의 전 과정이 극적으로 예리화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표현이 《평범》하지 않게 시인 자신이 하나하나 쪼아 박은듯한 그런 참신하고 뜻이 깊은것으로 안겨 온다. 이와 함께 특징적인것은 시에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용암처럼 끓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소리》의 크기나 높이로서가 아니라 느낌의 강렬성, 정서의 뜨거움으로 나타내고 있다는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시인의 목소리가 저력 있게 울린다고 하겠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시초 《움직이는 땅》을 비롯한 반미계급교양주체의 그의 시들을 통하여 받은 인상은 홍철진은 사색적이며 저력이 느껴 지는 시를 쓰는 시인이라는 그것이다.

홍철진은 이러한 심각한 극적체함을 담은 반미계급교양주체의 시들과 함께 또한 현실주체시작품창작에도 관심을 돌려 자기의 모습을 일정하게 드러냈다,

그는 시초 《움직이는 땅》을 현상모집에 당선 시기기전인 주체85년에 《내 걸음 맞추라》를 비롯한 두편의 시를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들은 다 생동한 현실체함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뒤 그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락천적이며 발랄한 생활감정을 특색 있게 노래한 시 《새벽닭이 운다》(《조선문학》, 주체88년 6호)와, 선군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적모를 보여 준 시로 《우리는 이사를 간다》(《청년문학》, 주체91년 5호)등을 발표하였다.

현실주체시작품에서 엿보이는 시인적모습은 그가 생활적인 시인이라는것이다.

앞에서 본 시에서도 그는 《소리》로만 웨치거나 요란한 표현에 매달리지 않고 체험의 터전에 발을 붙이고 사색을 심화하여 그 체험의 정서적 **승화**로써 심오한 사상감정을 특색 있게 밝힌 특성을 보여 주었다면 현실주체시에서도 그 체험세계는 주로 생활의 구체적인 화폭으로 펼쳐 지면서 그것을 통한 사상감정이 결구에서 깊이 있고 여운 있게 밝혀 지는것이 특징적이다.

그러한 특성은 시초 《우리는 이사를 간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시초의 매 시들은 묘사의 구체성, 섬세성, 생동성으로 하여 시로 형상한 하나의 그림이나 화면을 련상시킨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단순한 재

현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인의 느낌, 정서세계가 그대로 비껴 있다.

엿그제 지붕우에
폈던 호박꽃
내 얼굴에 웃음 가득 실어 주더니
어느새 복스런 애된 열매로
보란듯이 지붕을
척 타고 앉았구나

터발에 심어 놓은
줄대 같은 강냉이
우적우적 크는 소리 들리는 트락
이것 보지
가을이 다 온듯이
오사리를 비집고
이삭들은 제법 얼굴을 내미누나
-시 《열매가 익을무렵》중에서 -

이사집을 싣고 가는
자동차를 바래워
따라 서며 흔들던
낫 익은 손들도
이제는 고개길에 가리워 지고

끝까지 바래올듯
지꽃게 따라 서던
시내물도 지친듯 갈래를 바꾼
굽이굽이 길을 따라
우리는 지금 이사를 간다
-시 《우리는 이사를 간다》중에서-

터발농사의 풍성함과 함께 그것을 가꾼 서정적 주인공의 호뭇함, 만족감이 정서적으로 어울려 방불하게 떠오르는가 하면 이사집을 싣고 가는 차우에서 정든 이웃, 정든 산천과 헤어지는 아쉬움을 간직한 모습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영화의 화면처럼 방불히 안겨 온다.

한두련의 시행으로 단순히 대상을 제시하거나 재현하는 정도에서 벗어 나 인간의 정서와 내면세계가 《숨결》과 《향기》처럼 진하게 뻗어 그런 《화폭》적인것을 느끼게 하는 여기에 시적묘사, 시적형상의 본질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시적묘사, 시적형상은 시에서 생경성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그 리면에는 시인의 가슴속에 샘처럼 출렁이는 느낌, 사색으로 굴절되는 풍부한 사상과 련상이 깔려 있는것이다. 그런 정서적느낌, 시적상상과 련상의 힘이 없이는 참다운 《시적화폭》을 창조할수 없다.

홍철진의 시에서는 그것이 느껴 지며 또 그렇게 시를 써야 한다는것을 알고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있다는것이 확연히 알린다.

이 시초를 비롯한 그의 시를 더듬느라하면 시인의 개성적모습과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되는것이

있다. 그의 시에는 일반적으로 서정을 《몰아 가는 꺾》이 있다는 그것이다. 그는 먼저 시적대상 또는 일정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환상이 풍부한 집요한 사색으로 추구해 나가면서 서정을 전개하다가 결구에서 다시금 그 시적대상 또는 일정한 문제를 떠올리고 정서적으로 승화시켜 그 심오한 뜻을 《해명》하고 있다. 이때의 《해명》은 시적발견으로 특징지어 진다.

어떤 주제의 시를 쓰든 이러한 감정조직, 시적 구성방식은 그의 작품에 거의나 공통적인것으로 되어 있다.

시 《정》을 놓고 보자.

시는 1련에서 《우리는 이사를 간다》는것을 정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사 오고 가는것이야 평범한 일상사가 아닌가. 그 일상사를 시인은 《정》이라는 인정세계에 실어 시를 엮었다. 헤어지는 아쉬움, 함께 정을 나누던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 정이 깊어 진 이웃들에 대한 다심한 생각... 그래서 시인은 정에 얽힌 수많은 사연을 더듬으며 사색의 나래를 펼친다. 그 정의 《종착점》은 어디겠는가. 시인이 제기한 문제, 정을 엮어 가는 주정토로에 긴장을 모으며 독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결속되겠는가 가슴 조이며 따라 선다.

만나서 정 이라
함께 살아 정이라
우리가 이사를 가면 갈수록
조국의 정은 더 두터워 지기에
헤어짐을 수호자의
정으로 알고 살며
우리는 또 이사를 간다
-시 《정》중에서-

결국 이사 가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인정세계를 돌아 가던 《정》의 서정은 마침내 결구에서 이렇듯 《조국의 정》, 《수호자의 정》의 높은 경지에 올랐다.

그의 시는 대체로 처음에 제시된 대상 또는 문제가 결구에 와서 이처럼 정서적으로 승화되면서 심오한 사상감정의 높이에 이르는것이 특징이다. 그것이 새롭고 참신한것으로 하여 그의 시들에서는 새것, 시적발견이 뚜렷이 느껴 진다.

그의 현실주제시에서는 생활의 정서와 랑만, 미래에 대한 랑관이 마치도 출렁이는 바다처럼 시들마다에 흘러 넘치고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시는 매우 밝고 발랄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현실주제를 비롯한 그의 시들에서 지성적높이가 느껴진다는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의 시에는 오늘 선군시대 우리 생활의 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생활의 진실을 예술적진실로 옮겨 시대정신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뽑아 올리려는 시인의 진지한 탐구와 노력이 엿보인다고 생각한다.

신진시인으로서의 홍철진도 지금까지 자기 모습을 비교적 착실히 가꾸어 가고 있으며 그 면에서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심사숙고라는 말을 쓸수 있다면 그는 시 한편한편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의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자기의 모습을 더 잘 가꾸자면 지금까지의 창작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련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사색을 집요하게 심화해 들어 가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자기 세계에 빠져 전형적인것, 사회적인것을 놓쳐서는 안되겠다는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 《군사분계선표말뚝과 하고 싶은 말》과 《내 아들이 돌아 왔습니다》, 《저의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시 《군사분계선표말뚝과 하고 싶은 말》에서 총잡은 병사되어 군사분계선표말뚝을 마주 하고 선 서정적주인공도 자기는 《기어이/ 너와 말을 나누고 싶은 세대》라고 하면서 지난 시기 술한 《아름다운 말들이/ 너와 부딪쳐/ 울분의 메아리로/ 되돌아 섰》다고, 《피 같은 언어》와 《노래》로 목이 쉬도록 찾아도 보았건만 이제 더는 《너와 나눌 말/우리 말 사전》에는 없다고 단언하고 오직 《총대의 메아리만이 너와 나눌/ 병사 나의 말》이라고 주정을 토로하였다.

전개된 서정의 내용으로 보아 일면적으로 사색을 추구하던 나머지 시인의 의도가 빗나가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

체험세계와 내용은 다르지만 시 《내 아들이 돌아 왔습니다》와 《저의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에 대해서도 같은것을 말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작은 키》와 《앉아서 인사》에 초점을 두고 사색을 펼치었다. 물론 삼툼차에 앉은 영예군인이니까 《키》는 작을것이고 인사도 앉아서 하는것은 당연할것인데 영예군인-아들과 어머니, 제자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보다 시대정신이 비껴본질적인 측면에서 시를 찾고 사색을 펼쳐야지 지금과 같이 지엽적인 문제에 사색이 집착되어서는 시가 생활의 본질을 옳게 떠올릴수 없으며 미감상으로도 독자들에게 만족을 줄수 없다.

시인의 사색은 심화되어야 하지만 그 사색은 언제나 본질적이며 사회적인것과 통일될 때 시대정신의 높이에 이를수 있다.

시인이 시창작에서 교훈으로 찾아야 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시의 서정이 론리적인것과 자연스럽게 결합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친 론리의 추구로 하여 때로 시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것이다.

시 《나에게는 목숨이 돌이었던가》는 이 면에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시인은 첫련에서 《어머니시여 당신은 나에게

사는 법을 배워 주었건만/ 교형리들은 모질게도/ 죽는 법을 배워 주었'」다고 주정을 토로하였는데 어머니와 교형리, 사는 법과 죽는 법의 의미적 및 정서적효과를 노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배워 주었'」다는 표현을 써서 일률적으로 론리를 추구하던 나머지 자가당착에 빠진 느낌을 준다. 교형리들은 죽음을 강요하면 했지 결코 죽는 법을 배워 줄수가 없지 않는가.

시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시에서는 의지와 신념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서정적주인공이 모진 죽음의 고비를 《어떻게 이겨 냈는지》, 《관문점분리선을 넘어/위대한 품에 안겼을적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론리추구에서 일면성이 낡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피와 살, 육체까지 바쳐야 하는 대결전에서 마음의 기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건디지도 이기지도 못한다. 마음속에 굳건한 기둥과 믿음이 있고 그것을 의리와 신념으로 지켜 냈기에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길수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되는것이다.

물론 시에서 론리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진실, 감정의 진실을 떠난 일면적인 론리추구는 상념의 산물로 되며 그것은 독자들의 공감에 그늘을 지운다.

이밖에도 시초 《우리는 이사를 간다》의 시상이 《이사》라는 울타리에서 보다 자유분방하게 터쳐나가지 못한것 등은 시인이 자기의 모습을 더 잘 가꾸고 유난하게 하는데서 교훈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다.

홍철진은 담시도 풍자시도 썼으며 최근에 단편 소설도 발표하였다.

작가의 재능과 창작의욕은 한계를 모르며 그것은 창작적열정과 노력에 정비례하면서 부단히 새롭게 발현된다. 그 어느 경우에도 작가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것이 중요한데 시인으로서의 홍철진은 이미 자리 잡히고 있는 자기 모습을 계속 착실히 가꾸며 좋은 시로 독자들앞에 서기를 기대한다.

좋은 시가 남기는 인상은 역시 공통적인것인가 싶다. 내가 다음은 누구에 대하여 쓸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 시초 <새 세기앞에서>(리진협)가 있지 않는가...》고 옆에서들 나에게 귀뜸해주는것이였다. 나 역시 은근히 속생각을 굴리던 차여서 미련없이 주체89(2000)년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 시부문 1등 당선작인 시초 《새 세기앞에서》와 그 시인의 시에 대하여 쓰기로 하였다.

이 시초도 나는 원고상대에서 먼저 읽었고 그때의 충격을 아직까지 여운으로 간직하고 있다. 더우기 원고에 필자가 북청군의 어느 한 협동농장의 농장원으로 밝혀 저 있어 의아해 하면서도 반가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농장원이 이렇게 《멋쟁이》 시를 쓰다니... 그래서 조선작가동맹 군

중문학지도부의 한 일군이 찾아 온 기회에 내가 받은 충격을 이야기하면서 필자가 정말 농장원인가, 몇살이나 되었는가 물었더니 그는 벌에서 사는 농장원이라고 하면서 나이가 좀 더 젊었으면 하는 식으로 말하는것이였다. 30대라는것이다. 물론 아쉬움과 《육십》이 뒤섞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20대라면 리상적일수 있겠지만 그래도 출발이 훌륭한데야 뭐... 작가의 인생길에는 노력이 재능으로 축적되어 폭발적인 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다 중요한것은 그 다음이지...라는 식으로 내가 말했던것이 기억난다.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시초 《새 세기앞에서》와 그가 쓴 시들을 읽어 볼 기회를 가졌다.

그는 시초 《새 세기앞에서》의 창작을 전후해서 주체88년에 시 《봄인가봐요》, 시초 《협동의 전야에 붉은기 휘날린다》 등 작품을 썼으며 그뒤 주체90년에 시 《우리 가꾼 고향은》, 《손잡으렴 어서》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창작하고 새롭게 시초 《나는 협동벌사람이다》(《조선문학》, 주체91년 6호)에 발표하였다. 불과 몇년사이에 창작한 시들이고 또 량적으로도 많다고 할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시들을 읽으면서 무더운 삼복철에 산골의 시원한 샘물을 마시듯 어찌다 토색이 완연한 우리 시대 농촌의 정서를 흐뭇이 맛본 기분이였고 늘 바라던 서정시다운 서정시를 실제로 접한 통쾌하고 흐뭇한 느낌이였다. 게다가 새 세기의 《농촌시》, 《농촌시인》의 한 모습이 우리 시단에 새롭게 자리 잡겠구나 하는 반가움까지 겹쳐들었다.

무엇이 좋았는가.

지난 날도 어제도 아닌 바로 선군의 새 력사가 펼쳐진 오늘 우리 시대 농민들의 불 타는 정신과 기백, 변모하는 농촌의 숨결과 모습을 그대로 지성 높은 담찬 정서의 흐름에 태워 시대정신이 약동하는 《농촌시》의 한 모습을 새롭게 가꾸어낸것이 제일 기뻐다.

그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그가 우리 시대 농민들과 농촌을 보고 느끼고 일반화하는 본새가 지금까지의 다른 시인들의 경우와는 다른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몇편의 시를 살펴 보자.

함께 실수 없는 삶과 죽음
그런것이 뒤엎겨 고패친 나날이였다
봄비에 부푸는 전야
다가들던 노예의 보습날
실로 한치만 물려 섰어도 그앞에
내 삶의 모든것이 갈아 번져 저야 했던
90년대 《고난의 행군》길

한자육한자육이 그런 진펄인
그 길에서 무엇인들 불이 되지 않았으랴
나비춤 함께 추던 소꿉시절 내 동무

한달이나 떠나 산 온돌방에 다시 못 온채
진거름 움켜 쥐고 쓰러졌던
눈 덮인 그 논머리

백두산이야기 옛말처럼 들려 준
어제날 선생님
우리를 도와 김 매던 이랑에서
싸늘히 식은 몸 또 말기며 남긴
피 라는 그 당부
동무들아!
항일의 처창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시 《잊지 않으리라》의 시련들이다. 여
기서 느껴 지는것은 비장성이다. 조국땅 그 어디
서나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의 나날 우리 농
촌에 들이 닦았던 고난과 시련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그야말로 가슴 아픈 희생도
있었다.

시에서 시인은 이 준엄한 진실을 농민들이 겪
은 피눈물의 체험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적기가》의 노래소리도 울리고 붉은기
의 퍼덕임과 처창조의 그날을 마음속에 새긴 불
굴의 모습도 있다. 시인은 이 모든것을 통하여
《자유를 찾는 길만이 아닌 자유를 지키는 길에도
바쳐야 할 삶과 목숨은 얼마나 값 비싼것인가》를
절감하며 《피로 찾은것은 끝까지 끝까지 피로 지
켜야 한다》는 력사의 철리를 절절하게 부르짖는
다.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있었던 그 생활의 시
련과 고난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사실 자체
에 그치지 않고 그 비장한 생활의 정서에서 선군
시대 붉은기정신을 시대정신의 정화로 승업하게.
부각한 여기에 농촌현실을 노래하면서도 다른 시
들보다 새롭게 탐구한 시세계가 있다.

시 《우리 가운 고향은》을 두고도 오늘 우리 인
민들의 아름답고 고결한 사상감정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감수하며 그것을 높은 지성의 등불로
밝혀 내는 시인의 숭고한 시정신을 찾아 본다.

선군령도의 길을 쉽없이 이어 가시며 현지지도
로 낮과 밤을 지새우시는 아버지장군님께 한순간
만이라도 기쁨을 드리려는것은 우리 인민 누구나
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소중한 생각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장군님께 기쁨 드리려는 인민
의 지성과 마음을 노래한 시들이 얼마나 많이 창
작되었던가. 그러나 우리는 이 시에서 그 모든 시
들과는 다른 새롭고 참신한, 어찌 보면 기발하기
까지 한 그런 특색 있고 감미로운 서정세계를 기
쁘게 감수한다.

동해선 철길을 가운데 놓고
산기슭엔 옷세동
바다쪽엔 아래세동
이제는 너와 나 주인인 정다운 세동마을

장군님 걸으시는 끝 없는 전선길
수만리 한 구간에 짧게 놓여도
야전렬차 그 차창에 자주 어려선
안기며 따라 서는 행복한 동네

바란단다 그 치장에 비껴 들거든
낮이라면 실실이 세동천 따라
오손도손 내려 앉은 발전소무늬 엮고
밤이라면 청빛-홍빛 불빛을 엮어라

그 짧은 한 구간이 축원의 연도가 되라
창가림 젖히신 우리 장군님
주인을 잘 만나 흥하는 동네라고
가실적에도 보시고 오실적에도 보시게

한쪽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안겨 오는 세동마을
의 전경도 정가롭지만 우리의 심중을 더 뜨겁게
달구며 기쁘게 하는것은 그 변모한 마을을 어버
이장군님께서 야전렬차의 창가림을 젖히시고 방
금 보시며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는듯 한 자애로
운 모습을 방불하게 그려 낸것이다. 《수만리 한
구간에 짧게 놓》인 마을, 《야전렬차 그 차창에
…안기며 따라 서는 행복한 동네》, 마을의 면모
가 《차창에 비껴 들》어 《그 짧은 한구간이 축원
의 연도가 되》여 주길 바라는 진정어린 간절한
마음 백마디, 천마디의 설명으로도 대신할수 없
는 어버이장군님만을 그리며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그 정신세계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이 여기
에 밝게 비껴 있으며 오히려 《주인을 잘 만나 흥
하는 동네》라고 농민들을 치하해 주시는 우리 장
군님의 인품 높은 자애로운 모습이 혼연일체라는
숭엄한 울림과 더불어 웅심 깊게 안겨 오는듯 싶
다.

아버이장군님을 우러르면 간절히 그리는 하 많
은 시가 창작되었지만 이 시는 자기의 새롭고 독
특한 서정세계로 하여 유난하게 안겨 오며 시인
들로 하여금 서정세계의 새로운 공간에 탐구의
눈길을 돌리게 한다.

시 《흥, 종을사 이 아니 흥인가》를 더 보기로
하자.

흥, 흥일세 찾아 오는 흥일세
흥, 흥일세 갈데 없는 흥이지

벼포기 넘실넘실 탐탁도 하다
올해라 명년이라
쌀뒤주도 늘이라는 그 소리지
-강냉이 탈곡기도 더 놓아야 될것 같애!-
흥, 그렇지, 그래야 하지
강냉이폭포에 미역이나 감는듯 시원도 해라

염소떼 휘감더니 움쉴움쉴 웃는 산
젖빛 구름이라더니 정말이로다
뽕야니 풀살 오른 젖빛구름

그 바루선 애기염소 안고서 상념에 잠긴 처녀
그러다 제련에서 얼굴만 붉히고 섰네
-저... 전 사실...
흐흥, 아무려면 어쩔터나
좋다! 꾸이라 꿈!
어머니가 되어 아기를 안는 꿈
...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벽찬 사상감이 흥하는 생활의 물동과 선물에 실려 재치 있게, 멋들어 진 《홍타령》조로 잘 노래되었다. 익살과 통담도 섞이고 웃음도 있고... 그야말로 생활의 정서를 그 질과 농도, 색깔과 향기까지 느껴 지게 자유분방하게 《가공》할 줄 아는 시인의 숨씨가 보이는 시다. 농민들의 구수한 입말체가 그대로 시행으로 옮겨져 있어 시를 읽는다고보다 서정적주인공의 홍타령에 저도 모르게 흥취되어 따뜻한 미소가 절로 지어 지며 제멋에 겨워 《홍, 흥》 소리가 터져 나오는듯 싶다. 정말 시로는 인간의 어떤 내면세계도 다 그려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의 묘미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더 좋은 시련도 있고 더 인용하고픈 시련도 많지만 시인용을 이만 그치려고 한다. 여기 인용한 시련만으로도 그가 탐구해 가는 시의 세계를 충분히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자기의 시에서 준엄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나날 우리 농민들이 겪어 온 피눈물의 시련과 투쟁에 대하여, 그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사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에 대하여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새세기 진군길에 오른 농민들의 희망과 랑만, 농촌의 새로운 면모를 두고 자기 식의 체험과 느낌을 가지고 자기 식으로 노래했다.

그리하여 그의 시의 서정적주인공들은 때로 희생의 뼈 저린 아픔속에서도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수호전에 땅을 지켜 선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께 기쁨 드릴 그 한 생각으로 고향을 가꾸어 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흥하는 생활의 한복판에서 온 벌이 들썩하게 기쁨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찌 그뿐이라. 벌과 맺어 진 인생길에서의 사랑만을 값높이 사는 청춘들의 수집으면서도 열띤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풍년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삶도 무의미로 치부해 버리는, 풍년을 마음속에 늘 안고 사는 농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이 다양한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을 안은 시의 정서는 또 얼마나 다양하고 이채로운 것인가.

그는 시 《우리의 벌에는 붉은기가 날려야 한다》와 《잊지 않으리라》에서 비장한 정서를 보여 주었지만 그의 모든 시를 관통하고 있는것은 그 비장성에도 불구하고 랑만성, 농촌생활이 뽐여 울린 생활의 랑만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랑

만이라는 말을 하기는 쉬워도 실지 그것이 담고 있는 범위와 내용, 색채가 얼마나 다채로운것인가 하는것을 나는 그의 시들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의 시에서의 랑만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지향, 꿈에서만 오는것이 아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현실속의 인간과 생활에 차넘치는, 신심과 락관에 넘치는 정서를 감득하면서 그것을 미래지향적인 열정과 잘 결부시키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생활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오늘의 기쁨과 만족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 오늘속의 래일을 보는것으로 하여 그의 시에서 랑만은 마치도 생활의 향기처럼 스며배어 있다.

때문에 그의 시에 그려 진 인간과 생활은 밝고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적높이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 내가 그의 시를 두고 《멋쟁이》라고 한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그의 시에서의 시적감각, 시적묘사와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의 시는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을 엿보게 한다. 그는 풍부한 감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시를 쓰는 동시에 거기에 리성적인것을 잘 배합하고 형상을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면서도 고상함이 느껴 지게 한다. 《농촌시》이면서도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지성세계가 안겨 오는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어느 한 작품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에서 공통적이며 특징적인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그것을 그의 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을 즉흥적으로 적어 둔 몇작품에 대한 글 토막을 더 더듬는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시 《월참의 속사》-사랑에 대한 시는 많이 씌여지면서도 역시 그 서정세계를 놓고 보면 《그러루한》 정도에서 벗어 못 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람이 고운게 아니라 일이 곱다는것이며 계획을 넘쳐 하고 삶도 리상도 함께 꽃 피우자는 등... 그러나 이 시는 다른 각도에서 《혼사》문제를 다루었다. 한분조에서 같이 일하는 처녀의 혼사문제를 두고 기울이는 분조원들의 후더운 인정미가 질게 풍기며 풍요해 진 생활의 덕으로 인심도 후해 지고 통도 커진 그들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난다. 그 성의를 대하는 처녀의 대답이 좀 가까운 감이 있지만... 있을수 있는 농촌생활의 한 세태를 농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데로 승화시킨것이 좋았다.

시 《오늘의 단상》중의 두련으로 된 시 《내 사는 땅》의 한련은 다음과 같다.

한번 발 구르면 지구가 움썩하고
한번의 호령에 이 세상이 사뭇 조용!
장하야라 세계를 얻는 장군님의 그 총대
총대! 단 그 하나로 불러오는 이 땅의 천백가지

총대중시사상의 정당성, 생활력, 의의가 그대로 안겨 온다. 한편의 시, 하나의 시련으로 이렇듯 《천백가지》를 얻는다는것은 형상의 위력인 동시에 정말 사색이 없이는 누구도 도달할수 없는 형상의 높은 경지이다.

시 《불이 났네》-마치도 시로 씌여 진 동화세계를 보는듯 싶다. 감자 《가을》과 모 내는 봄이 어울려 《분주탕》을 펼친 8모작농사의 풍요함과 흐릿함이 방불하게 안겨 온다. 《북방의 <가을>과 봄이 몸 따갑게 비벼 치네》, 《써레질 트랙터로 우등탕 한바탕 욕설이나 퍼붓는듯》, 《모내는 기계는 껌싼 모손으로 이거사 굼뜨다 길을 내라는 데》 등 시적표현들에는 일관하게 대상을 의인화해서 미세한 감정까지 섬세하게 굴절시키면서도 거기에서 《더 높이 더 빨리 달리는... 우리 조국》의 의미를 찾고 참모습을 볼줄 아는 시인의 독특한 안목과 시대정신에로의 부단한 지향이 느껴진다.

물론 그의 작품에 좋은 점만 있는것은 아니었다. 의견을 써놓은것도 있었다. 하나하나의 의견을 되새길 필요는 없고 다만 통털어 느꼈던 부족점, 앞으로의 창작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를 한두가지로 집착시켜 이야기하려고 한다.

감정의 생활적진실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면에서 시창작에서 경계해야 할것은 생활감정의 안받침이 약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웨침, 《비약》되 여 천명되는 사상감정이다.

시 《이 손에도 붓을 들지 않고서는》이나 《새세기앞에서》는 시인의 흥분도 있고 열정도 강하게 느껴 지며 참신한 멋도 있다. 그러나 시를 읽고나면 시인이 생활적바탕을 충분히 안지 못한채 흥분에 떠서 소리를 《뿔었다》는 느낌을 다분히 준다. 지금과 같이 격조를 높이자면 웅당 그에 맞게 생활적감정의 축적이 있어야겠는데 그것이 약하기때문에 시는 일부 추상적인 감을 느끼게 한다.

시 《나는 협동별 사람이다》와 《설참의 속사》는 다른 측면에서 진실성문제를 생각하게 하는데 나는 그런 요란스러운 감이 있지만 꾸밈이나 미화분식과 편결된다고 말하고 싶다.

농장원으로서 느끼는 자부와 긍지를 한껏 터친것은 좋은 일이다. 이 면에서 시 《나는 협동별 사람이다》는 지금까지 그 어느 시도 다치지 못했던 긍지의 높이에 농장원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차 농장원의 자부와 긍지가 최상의 경지에 이를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쌀을 풍족히 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감이 동반되었다라면 그 정신적미가 더 두드러 질수 있

었을것이다. 좋기는 현재의 만족감이 보다 지향적인 서정세계로 펼쳐졌더라면 농장원들의 심정의 진실도 살리고 독자들의 공감도 잘 살수 있었을것이다.

시 《설참의 속사》의 경우 역시 혼사문제를 두고 각별한 지성과 생각을 기울이는 분조원들에게 당사자인 처녀가 《전 말이지요/ 이 땅이 통채로 쌀함박되어/ 동해 출렁 서해 출렁 쌀을 일 때/ 강성대국 큰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하는 대답은 대담한 환상과 통이 큰 랑만을 생각하게 하면서도 좀 더 생활에 가까웠으면 하는 아쉬움을 어쩔수 없게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서적느낌이 《만족》과 《화려함》 일면으로 두드러진 이러한 부족점은 다른 일부 작품에서도 변형되어 나타나면서 그의 앞으로의 창작과 관련해서는 감정을 꾸미거나 미화하는것과 같은 경향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말하고 싶다.

시는 생활의 진실을 기준으로 씌여 저야지 시인이 주관적으로 《재단》하고 꾸미면 형상이 특색 있다 해도 독자들은 거리가 생긴다. 랑만도 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면 그저 《아름다움》, 《화려함》, 《꿈》이나 《환상》으로 되어 버리고 만다.

그의 시창작과 관련하여 생각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시 《통일연아》를 비롯한 농촌생활을 다루지 않은, 말하자면 그의 봄에 배지 않은 생활을 노래한 작품들에 대한것이다. 물론 이런 시가 몇편 안된다.

역시 시는 체험과 느낌의 문학인것만큼 이런 작품에서 느껴 지는것은 감정의 부자연스러움, 어색함이다.

조국통일주제를 비롯하여 시인으로서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수 있다. 그러나 체험과 느낌이 빈약하고 심장에서 끓는 열정의 샘이 없이 시를 쓸때 그 시의 운명은 명백해 진다.

앞으로의 시창작의 길에서 이런저런 정황과 요구에 부딪칠수 있지만 신진시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창작적대를 세워 체험과 느낌, 진심의 분화구를 터쳐 시를 쓰는 여기에 시인의 개성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길이 있다는것을 잊지 말자.

창작에는 그 언제라도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새것의 창조로 이어 지는 전진, 부단한 전진만이 시인의 운명에 각광을 던져줄것이다.

신진시인들은 이미 펼친 자기의 서정세계를 흐트리지 말고 지키며 자기의 얼굴이 있는 시로서 개성적인 면모를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가꾸어나가야 할것이다.

배움의 길을 두고

김무림

(1)

해방전 나의 아버지
주린 배 움켜 쥐고
그리도 배우고 싶은 열망에
낡은 책보 메고 달려 가던
배움의 길

아침저녁
떨나무 팔아서 이어 가던 그 길이
《월사금》 못냈다고
번뜩이는 안경알에 밀리워
교문밖에 쫓겨 난 그 길로 끝났을 때

오, 오
원망할 부모도 없는 나의 아버지
뒤동산 무덤가에
무릎 꿇고 소리없이 울 때
그 무덤처럼 막혀 있었다
아버지의 배움길은

(2)

길에 내버려도
아깝지 않는 생명이라고
그 이름 《길녀》인
나의 어머니

세상에 책보 딸 잔등은 따로 있던가
빛값에 팔려 어머니가 간 곳은
교문 아닌 지주집대문
여섯살 그 어린 잔등엔
책가방대신 지주집 애새끼

아이보개 10년에
잔등은 오줌에만 절지 않았다
아이를 울린다고 버릇처럼 치여 드는
지주놈 지팽이에 피멍이 가실새 없어
아아, 그 어린 잔등은 피에 절었다.

(3)

어찌 꿈엔들 생각했으랴
그 잔등에
오늘은 7살난 손자에 메와 가는

해바라기 책가방을 메보리라고...
그때엔 아, 책가방이 무거웠다

부모들의 무덤앞에서
저주로 끝났던 아버지의 배움길
지주집 대문가에서
시작도 없이 끝났던 어머니의 배움길
수령님 안고 오신
광복의 봄과 함께 시작되었거니

《삼천리》 연필끝에 침을 바르며
《김일성장군 만세!》 토박토박 쓰던 그날
난생 처음 소리내여 우리 글을 읽었다
조국의 고마움에 눈시울 적시던
나의 부모들은...

(4)

나는 날마다 교단에서
아이들과 말을 한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눈물 나던 배움의 길을 두고...

그리고 나는 또 이야기한다
우리 조국이 시련을 겪던 어려운 날에
공장들이 숨을 죽일 때에도
어째서 교정의 정문만은 닫기지 않았는가를
일시적인 고난으로 달라진것 많을 때도
어째서 아이들의 등교길만은 달라 지지 않았는가
를

그것은 곧 우리 조국의 래일이고 승리이기에
세상이 열백번 변한대도
달라 질수 없는 우리의 배움의 길
이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자고
나는 날마다 교단에서 이야기한다

스승에 대한 회상

럼영

잊을수 없는 이름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고 아침 일찍 직장
에 나갔다가 오후 1시가 거의 되어서야 궤도전
차를 타고 광복거리 집으로 향했다.

황금벌역앞 정류소에서 처녀대학생 두명이 올
라 탔는데 내 자리옆에 서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무슨 책이니?》

《<허영의 시장>, 너 이책 읽었니?》

《아니, 너 읽은 다음에 내 차례야.》

《피, 벌써 신청자가 있답니다.》

《누구?》

《지련미.》

《어마-》

나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동
해서 얼핏 그들을 돌아보았다. 한 처녀의 손에
두툼한 책 한권이 들려있는것이였다.

《그 책 좀 볼수 없겠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불쑥 튀어나갔다.

그 처녀는 자기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낯 선 사람이 책을 보자고 하는줄 알았는지 귀까
지 빨개져서 얼른 그 책을 나에게 내미는것이였
다.

책표지에는 《세계문학선집 38, 허영의 시장(8),
썸커리작, 림학수역》이라고 적혀있었다.

림학수, 잊을수 없는 옛 스승의 이름을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개무량하였다.

이미 80년전에 세상을 떠나간 림학수이건만 그
의 심혈이 깃들어 있는 번역작품을 오늘도 대를
이어 후대들이 읽고있지 않는가. 지금은 그의 손
에 손자벌이 되는 세대가 읽고 있지만 머지 않아
증손자, 고손자들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며 읽
고 또 읽을것이다. 책을 돌려 주고 나서 차창밖
을 내다보니 거리에 걸어 가는 사람들속에 분명
그가 함께 걷고 있는 듯 싶었다. 중키에 등이 좁
굽을사 한 그 모습, 상반신을 앞으로 내밀고 허
청허청 걷는 그 걸음새...

3대의독자로 태어나서 할머니가 어찌나 애지중
지했던지 아홉살이 될 때까지 업고 다녀서 다리가
취했다고, 그래서 그의 걸음새가 유별하다고 언
젠가 그의 부인이 웃으며 하던 말이 생각나 더욱
방불하게 떠오르는 그의 모습이였다. 안경 끈
얼굴에 인정이 넘치던 그 눈길, 호탕한 그 웃음
소리, 청높은 그 목소리, 총이 센 머리카락을 쓸

어 넘기며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스승의 그 모습
...

함께 있을 때에는 그저 《강좌장선생님》으로 너
무나 평범하게 보였고 또 무심히 대하였건만 그
가 세상을 떠나간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의
한생을 돌이켜 보니 과연 그가 시인으로서, 번역
작가로서, 교육자로서 얼마나 값 있는 생의 흔적
을 뚜렷이 남기고 갔는가 하는것을 절감하게 된
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의 문학예술성과와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세계문학선집이 출판되기 시작
한것은 주체58(1963)년부터이다. 그때 제1권으로
출판된것이 고대그리스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였는데 그것이 바로 림학수가 스무살
때 번역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고 하는 첫
번역작품이다. 그 책에도 《역자 림학수》라는 글
자가 찍혀져 있었다. 그 때로부터 수십년이 흘러
《세계문학선집》 제38권으로서 역시 림학수가 40
대에 번역한 19세기, 영국의 비관적사실주의작가
썸커리이의 대표작 《허영의 시장》이 출판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귀중한 력사자
료로 된다고 평가해주신 서사시 《일리아스》나 영
국 의 대표적인 비관적사실주의작품으로 평가해
주신 디킨즈의 장편소설 《뚝비와 아들》 그리고
디킨즈의 장편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의 모험》,
영국의 진보적광만주의시인 바이론의 장편서사시
《차일드 하롤드의 편력기》와 그의 시선, 미국의
진보적시인 《윌트 휘트만시선》, 《근대영국시선》,
《은구두》, 인디아의 진보적시인 《타고르시선》,
《이소프우화집》, 《호지명시집》 등 실로 림학수
가 번역한 수많은 외국문학작품들은 우리 인민들
을 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림학수의 번역활동은 단지 외국문학작품들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데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우
리의 혁명적문학작품들을 영어로 손색없이 번역
하여 대외에 널리 소개선전한 참으로 재능있는
다방면적인 번역작가였다.

열다섯살때부터 향토시를 써서 문단에 등장한
시인이였고 영국과 미국문학사에 정통하고 어
학적으로나 문체론적으로 영어에 박식하였던 림

학수는 높은 실력을 가진 우리 당의 지식인이었다.

언젠가 남측기자로 판문점에 왔던 림학수의 제자가 우리 기자에게 그의 안부를 묻고 나서 《림학수 선생은 영어에서 조선에서 제1인자》라고 엄지손가락을 쳐들며 말했다고 한다. 그의 이 말에 우리측 기자가 일부러 《남조선의 외국어대학에도 영어에 권위 있는 사람이 많을텐데요.》라고 하자 그는 단호히 《아니요. 북조선에 계신 림학수 선생을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1911년 7월 8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금곡리의 가난한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난 림학수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고달픈 우유배달과 우편배달, 가정교사와 문필활동으로 돈을 벌며 가지고 학비를 물어 가며 주체85(1936)년 서울대학(성대)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대학때 그는 왜놈학생들보다 영어실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왜놈교원들의 압력과 왜놈학생들의 모 해를 받았다. 그러자 조선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할 결심을 품고 그는 왜놈학생들도 감히 하지 못했던 고전서사시 《일리아스》번역을 단 몇달동안에 해제깸으로써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고 단연 《최우수생》으로 인정받았다. 영어를 한갓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해방후 남조선에서 호스톤여자고등중학교 영어교원,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 연희, 동국, 리화, 숙명, 성균관대학의 겸임강사 등 월급쟁이로 전전하던 림학수였다.

그러던 그가 용약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온 주체 40(1951)년, 당에서는 그를 **김일성** 종합대학 초대영어강좌장으로 내세워주었다.

공화국의 유일한 종합대학, 더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세계 제일의 종합대학에서 초대영어강좌장으로 사업하도록 과분한 사랑과 높은 신임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덕이 하도 고마와 백송리를 찾아주신 수령님을 우러러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림학수였다.

이제는 영어를 무기로 삼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값 있게 살리라, 이것이 그때 림학수가 다진 신념의 맹세였다.

그는 무엇보다먼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영어로 번역하여 온 세계인민들이 부르게 하리라 마음 먹었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 탄압속에서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화 같은 흠모의 마음을 간직하고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부르고 또 부르던 그 노래였다. 드디어 그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영어로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영어로 말하는 세계 수십억의

인민들이 그 명가사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에술적 내용을 파악하고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부를수 있게 하였다.

뒤이어 그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비롯한 충성의 노래가사들을 영어로 번역했다.

혁명시인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 **《조선은 싸운다》**, 천세봉의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혁명적인 시와 노래, 소설들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널리 소개선전한것도 바로 림학수였다.

림학수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영어강좌장으로써 한생을 영어교단에 바친 교육자 있지만 번역작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번역작가, 시인, 교육자로서의 림학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쓴다.

《영어명수》가 되라

내가 림학수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주체 48(1959)년 평양외국어유자녀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던 때였다. 당시 새로 창설된 학원은 대성구역 청암동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전국각지에서 모여 온 혁명렬사, 전사자, 피살자들의 아들딸들이 각기 초급반과 고급반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었다.

고급반 영어과 3학년에 입학한 나는 학원에서 1년동안 영어기초교육을 받았다.

그때만 하여도 학원에는 외국어교원력량이 아직 꾸려지지 않아서 외국어 수업은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강좌 교원들이 맡아해주고 있었다. 첫 몇달동안 영어수업은 소련에서 류학을 하고 나온 지 얼마 안된다고 하는 젊은 녀선생들이 맡아서 영어 자모와 어음론, 기초문법을 배워 주었는데 점차 교육내용이 어려워 지면서 나이 지숙한 남자교원들이 강의에 출연하였다. 하루는 영어수업을 앞둔 휴식시간에 **《소식통》**이라는 별명이 붙은 한 학생이 교실에 뛰어들어 오더니 **《오늘은 대학강좌장선생님이 배워 준대. 벌써 왔어.》**라고 하는것이였다. 상하중이 울리기전부터 교실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강좌장선생님이 우리를 배워 주러 오다니, 하나 밖에 없는 종합대학 영어강좌장이니까 분명 우리 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겠지. 어떻게 생겼을까? 백발로인인가? 어떻게 배워 줄까? 어제 배운것을 복습도 다 못했는데 하필 오늘 나올건 뭐람. 강좌장한테 잘못 보였단간 대학엔 다 갔다. ...종이 울리기전까지 이 생각, 저 생각 굴러 보

고 있는데 이윽고 종소리와 함께 교실문이 벌려 열렸다.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서는 중년나이의 강좌장 선생님을 보자, 우리들은 벌떡 일어섰다. 교원과 학생사이에 영어로 주고 받는 간단한 인사말이 끝나고 우리가 제 자리에 도로 앉은 다음 강좌장 선생님은 출석정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안경너머로 우리들을 대견스럽게 둘러보더니 《하나같이 미남, 미녀들이구만 그래, 허허허.》 하고 웃는 것이었다.

그 웃는 얼굴과 그 눈길이 얼마나 소탈하고 진정에 넘쳐 있었던지 잔뜩 긴장해 있던 우리들의 마음은 일시에 풀어졌다. 우리들도 따라 웃었다.

《영어사전들은 다 있나? 영어를 배우자면 사전이 있어야 돼.》 하며 그는 교탁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책상에 다가와서 내옆에 앉은 학생의 사전부터 펼쳐보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에게 영조사전이 없어서 일제시기에 쓰던 영일사전이나 소련에서 만든 영로사전들을 이런 저런 경로로 구해가지고 리용하고 있었다. 나의 사전은 아버지께서 학생때 보던 영일사전이었다.

강좌장선생님은 나의 사전을 집어들고 다 해진 뚜껑을 펼치더니 문득 놀라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표지뒤면에는 《성대 렬형순》이라고 한문으로 쓴 나의 아버지의 자필이 있었던 것이다.

《렬형순이 누구요?》

《저의 아버지입니다.》

《성대 다녔어?》

《예.》

《돌아 가셨나?》

《예.》

《뭘하시다가?》

《남조선에서 혁명하시다가...》

강좌장선생님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자리에 앉히고 나서 말없이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거의 매 학생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께 대하여 물어 보았다. 교실을 한바퀴 다 돌고 나서 교탁앞에 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네 아버지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렬사들이요.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남기고 간 유자녀들인 동무들을 데려다가 영어를 배워 주어서 앞날의 훌륭한 외교일꾼으로 키우도록 해주셨단 말이요.》

수령님의 이 은덕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해야 돼. 마치나 제가 잘 나서 학원에 온것처럼 우쭐해 가지구 꺾령꺾령하면 사람이 아냐.

사람은 은덕을 알구 보답할줄 알아야 해.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자면 영어를 잘해야 해. 할바에는 영어명수가 돼야 한단 말이요. 무슨 일에서나 명수가 되자면 피땀을 흘려야 돼.

어때? 영어명수가 될 자신들 있어?》

《옛.》 우리는 힘차게 대답했다. 아직은 《영어

명수》가 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얼마나 피타는 탐구와 열정, 노력을 요구하는지 미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공부를 잘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어를 배워 주기전에 수령을 받드는 자세와 립장부터 똑똑히 배워 준 그날의 그 강좌장선생이 다름아닌 립학수였다.

《영어명수가 되라.》 그때까지 그 어느 교원에게서도 들을수 없었던 말이었다. 자신이 영어명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학생들에게 영어명수가 되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 말은 오직 립학수선생만이 우리에게 해줄수 있는 말이었다. 오직 그에게서만 들을수 있는 귀중한 말이었다.

학원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에게서 영어를 배웠고 대학졸업후 10여년동안 그의 강좌에서 교편을 잡는 과정에 나는 그자신이 《영어명수》라는 것을 잘알게 되었다. 립학수는 우리나라 영어전문가들중에서 유일하게 고대와 중세기 영어의 시어까지 통달하고 있었다. 원래 영국문학작품은 80세기 전반기까지도 그 태반이 운문으로 씌여져 있었다. 하기에 대사가 운문으로 되어 있는 셰익스피어의 극작품들을 비롯해서 영국의 고전문학작품들을 번역소개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립학수밖에 없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영어강좌에서 조교원으로 일하던 주체 53(1964)년 가을이었다. 당시 외국어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높이기 위한 학부별 외국어과의활동을 적극 벌렸는데 영어과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영어로 공연하게 되었다. 그때 립학수는 강좌에서 제일 젊은 신입교원이었던 나에게 그과업을 맡겨주었다. 우선 영어로 된 희곡대본을 준비하여 배역을 맡은 학생들에게 암기시키는것이 급선무였다. 그런 데 문제는 희곡의 영어원문이 어려운 시어로 되어 있어서 학생 《배우》들이 암기느커녕 리해조차 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원본의 대사를 학생들이 알기 쉽게 《쉬운 영어》로 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대학에는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과들에 외국인 초빙교원들이 각각 1명씩 와 있었는데 영어과에는 오스트랄리아공산당 당수 힐의 누이인 맥크부인이 있었다. 그는 주로 상급반 강의과 교재록음을 해주고 교원들과 어학토론을 하였다.

나는 《베니스의 상인》 희곡대본을 그에게 주면서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알기 쉬운 현대영어로 개작해 줄것을 부탁하였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 사람이니 인차 훌륭하게 해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주일이 지나서 그가 개작한 대본을 받아 보니 단어와 문장구성은 훨씬 알기 쉽게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 영어시의 고유한 맛이 별로 없고

일반적인 회화체로 된 감이 들었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나는 그것을 림학수강좌장에게 가져다 보였다.

개작된 대본을 다 읽고 난 그는 실망스러운듯 입맛을 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셰익스피어가 보면 노발대발하겠어. 자기는 범을 그렸는데 시라소니루 둔갑시켰다구 말이야. 될수록 원작의 시적구성과 독특한 시어는 그대로 살리구 고어투만 쉬운 말로 고쳐야겠어. 그것두 현대시어루 말이야. 공연을 통해서 사일록과 같은 부르조아지의 잔인성에 대해서 알게 하는 한편 어학적으로는 영어시의 고유한 특성을 배우도록 해야 해. 내가 좀 손 델까?》

그는 이틀만에 가필을 해서 나에게 주었다. 읽어 보니 어디에 그렇게 알기 쉽고도 감미로운 시어가 있었든가 실게 잘 다듬어 진 대본이었다. 셰익스피어가 자기원시를 다시 어린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읊어주는듯 싶었다. 그 대본을 가지고 연습을 한후에 시연회를 할때였다. 강좌교원들과 함께 공연을 보고 난 맥크부인은 나에게 대본을 누가 가필했는가고 물었다. 림학수강좌장이 했다고 말하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하 벌리면서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하고 말하더니 림학수강좌장에게 돌아 앉아서 《림선생, 난 여기에 더는 있을 필요가 없는가 봅니다. 나보다 영어시를 더 잘 아는 당신이 있으니까요. 모국어와 문학은 별개인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림학수는 《허허, 잘 익은 이삭이 고개 숙인다고 했습니다.》라고 속담으로 대꾸하였다.

주제57(1968)년 1월 말이었다.

나는 그해 1월 23일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들어와 해상정탐행위를 하다가 우리 인민군해군에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선원들에 대한 심문에 동원되게 되었다.

림학수는 나를 불러 미국놈들을 다루는데서 주의해야 할 점을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미국놈들이란 교활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야. 그놈들이 말하는거, 특히 글로 쓴걸 번역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우리 나라에 세균탄을 떨어다가 격추되어 붙잡힌 미국비행사 한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자백서 서라는걸 썼단 말이야.

하루는 한사람이 날 찾아 와서 그놈이 자백서를 록음한것을 방승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원문을 최종검토해 달라구 하더라 말이야.

그래서 왔지. 내용은 그럴듯 하게 썼더라 말이야. 어디서 누구한테서 무슨 과업을 받았구 조선의 어디에다 세균탄 몇개를 떨어갔다, 이것은 그야말로 용서 받을수 없는 인륜범죄다, 나를 이런

범죄의 길로 내몬 미행정부와 군당국에 항의한다, 뭐다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글썽 이놈이 자백서 맨 마지막에다 <해병들에게 그것을 말해 주시오.>라고 썼더라 말이야. 이 성구를 직역하면 《미해병대두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말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이 말을 끝이 들겠는가. 거짓말이다.> 하는 뜻이 아뇨. 개자식 같으니라구, 그래서 쪽 찢버렸지.

그놈에게 어쩌서 이런 말을 썼는가구 들이대니깐 자기가 전쟁포로로서 앞으로 송환될걸 타산하구 돌아가 처벌을 받을가 봐 그렇게 썼다구 하더라.

우리의 영어수준을 우습게 알아두 분수가 있지. 바보 같은 자식.

이번에 붙잡힌 놈들은 전문간첩들이니까 더 교활하게 놀수 있어요. 림선생, 한번 본때를 보여.》

얼마나 교훈적인 말인가!

나는 학원때 첫 강의에서 영어를 전공할바에는 《명수》가 되라고 하던 그의 말을 되새겨 보며 그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다시 쳐다보았다.

림학수는 외국문학사에도 정통하고 있었다.

맥크부인이 소환되어 간후 그의 후임으로 역시 오스트랄리아공산당원인 40대의 남자가 초빙교원으로 영어강좌에 왔었는데 그의 이름은 로버트 번즈였다.

외국인과 한방에서 사업하면서 방조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나는 림학수강좌장과 다른 교원들이 그와 만날 때마다 참가하곤 하였다.

림학수가 강좌장으로서는 그와 첫 면담을 할 때였다.

첫 면담을 무슨 말로 시작하는가하는것은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잇을수 없는 첫 인상을 안겨 주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교원을 하면서도 이러저러한 기회에 외국대표단 안내통역사업에 자주 동원되곤 하던 나는 면담자의 직업과 수준, 성격에 따라 면담을 시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강좌장이 무슨 말로 면담을 시작하겠는가? 은근히 호기심을 가지고 옆에 앉아 지켜 보는데 림학수는 이렇게 말폭지를 떼는 것이었다.

《당신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18세기 스코트랜드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번즈를 상기시킵니다.》

《오우, 림선생, 어쩌면 당신은 나의 소학교시절 담임선생과 꼭 같은 말을 합니까. 국어시간에 그는 나에게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번즈는 유명한 시를 잘 지었는데 시드니의 로버트 번즈는 작문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구나.》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시인 로버트 번즈와 대비한 사람이 내 평생에 당신까지 두사람인셈입니다. 하하하.》

그들은 완전히 구면처럼 시인 로버트 번즈의

생애와 진보적인 작품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확실히 외국문학사에 박식한 림학수다운 면담방식이었다.

림학수는 열렬한 향토애와 애국주의, 가난한 농민들과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동정과 사랑, 착취계급에 대한 증오와 멸시, 민족해방과 혁명에 대한 동경심으로 충만된 스코틀랜드의 농민시인 로버트 번즈의 시작품들과 그의 생애에 대하여, 지어는 그 시인이 열다섯살 어린 나이에 시를 쓰고싶어도 원고지가 없어서 안타까와 할 때 그의 소학교선생이 그를 데리고 상점에 가서 원고지를 있는대로 다 사서 통구리로 안겨 주었다는 일화까지 줄줄 내리여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시드니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텔레비존방송국 기사로 일하다가 온 번즈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조선의 영어교수로부터 영국문학사강의를 받는 시간으로 된듯 싶었다. 공학을 전문한 그가 언제 이렇게 영국문학에 대하여 자세히 들어 본적이 있었으랴.

림학수가 외국문학사를 그렇게 깊이 연구하게 된것은 외국문학작품을 번역하려면 우선 작가를 알아야 하고 그 나라 문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하며 그의 창작활동의 경향성을 알아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것을 모르고 그저 손에 잡히는 외국문학작품을 이것저것 번역하기만 하면 번역자체도 잘될수 없거니와 외국문학번역작가로서의 고상한 명예를 저버리고 하루살이식 번역원구실밖에 하지 못한다는것 이 림학수의 신조였다.

그렇다. 유능한 번역작가로서의 실력을 갖추려면 우선 전공외국어와 해당 나라 문학사에 정통한, 그야말로 《명수》가 되어야 한다.

《원문을 열번 읽고 붓을 들라》

내가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영어과 8학년생이었던 주체 49(1960)년 여름이였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3, 000명 대합창단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조국》이 창조되였는데 합창단에는 평양시안의 예술인들은 물론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 2~3학년학생들중에서 노래를 좀 한다하는 학생들이 거의다 동원되였다. 나도 그속에 끼었다.

합창련습은 평양대극장, 교통성예술극장 등 여러 극장들에 옮겨 다니면서 진행했는데 《파트》(성부)별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대집단이 움직이다보니 여유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짬시간에 영어번역공부를 해볼 생각이 났다. 나는 남아프리카의 진보적작가 피터 에이브러햄의 중편소설 《폭풍의 길》 원문을 구해 가지고 짬짬이 번역을 시작했다.

소설은 소수 백인종들이 집권하고 있는 남아프

리카에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과 혼혈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정책과 그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을 묘사한 진보적 작품이였다.

그때만 해도 영조사전과 조영사전이 없어서 나는 당시 쏘련에서 만든 영로사전과 로조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먼저 영어단어에 해당한 로어단어를 찾고 다시 로조사전에서 우리 말 대역을 찾아 번역을 하였다. 그래서 마루바닥에 사전을 두 개씩이나 쌓아 놓고 잠시 앉아 대기하는 짬에 번역을 하자니 고생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나로서는 첫 번역습작인지라 힘든줄을 몰랐고 오히려 재미있었다.

하루는 휴식일이여서 교실에 혼자 앉아 번역문을 정서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 서는것이였다. 림학수강좌장이였다.

그는 내가 합창련습기간에 짬짬이 번역한것을 정서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매우 대견해 하면서 번역문을 보아 주겠으니 아무 때라도 가져 오라고 하는것이였다.

내가 제1장 《고향》을 번역한것을 그에게 가져다준지 한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였다.

림학수는 교원들이 다 퇴근하여 조용한 강좌실에서 나를 곁에 앉히고 처음으로 나에게 영어번역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동무는 학원 1년까지 합하면 영어 배운지 이제 겨우 3년째인데 벌써 소설번역을 해보겠다고 달라붙은건 아주 기특한 일이야. 허허허.

영어를 100프로 공부하려면 80프로는 자체로 읽고 번역해 보고 말해 보면서 배워야 해. 교과서에만 매여 달리면 80프로밖에 못배워.

어떤 학생들은 아직도 문법, 문법하는데 문법만 따지다간 말도 한마디 못하구 번역하라면 막대기 같은 딱딱한 문장밖에 만들지 못할거야. 문법이야 1학년때나 따질것이지 2학년, 3학년에 와서 두 밤낮 문법만 따지겠어? 이게 독립주격분사 구문인가, 아닌가? 그게 무슨 소용있어?

소설을 많이 읽고 번역해 봐야 영국사람들의 생동한 어법을 알게 되구 각이한 계층들의 언어관습, 생활관습, 민족적풍습, 사유방식과 심리적 특성까지도 알수 있게 된단 말이야.

소설번역은 번역작가만 하는게 아냐. 외국어를 하려면 외국문학을 알아야 해. 그래야 말을 해두 유식한 말을 하구 아무겄 번역해두 영어맛이 나게 할수 있단 말이야.

출판사 번역원들두 같아. 소설은 읽지 밤낮 사전만 가지고 씨름하니깐 번역이 딱딱하구 메마를 수밖에 없지.

영어기초를 쌓은 다음에는 영어소설을 자주 읽어서 산 영어를 배워야 해. 이것저것 읽기두 하구 하나를 붙들구 번역두 해보면서 말이야.

번역을 할바에는 심심풀이로 하지 말구 정식 번역작가의 림장에서 해야 돼. 그래야 늘어.

동무 이 소설을 번역하기전에 몇번 읽어 봤나?》

《한번 읽어 봤습니다.》

《소설을 번역하려면 한 열번은 읽어 보고 붓을 들어야 해.

번역은 곧 창작이야. 내가 에이브러햄이 되어 <폭풍의 길>라는 소설을 쓴다는 립장에 서야 한단 말이야.

그러자면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 구상하고 전개해 나가던 작업을 다시 체험해 봐야 한단 말이야. 그가 설정한 주인공과 인물들의 성격, 그들 사이에 맺어 지는 호상관계, 사건의 발전과 결말, 그와 관련한 시대적배경과 역사적환경, 자연지리 같은 작업을 해야 해.

그다음에 중요한게 무엇인고 하니 작가의 습관적인 말투, 문체적수법을 파악하는게 중요해.

우리 작가들두 마찬가지야. 작가마다 개성이 있어. 글투만 보구서도 이게 누가 쓴것이구나 하는걸 알수 있듯이 작가의 개성적특성을 알고 그걸 살려서 번역해야 해.

이것 봐. 몇개 문장만 분석해 봐두 이 작가의 문체적특성을 알수 있잖어.

<수속은 다 했다. 짐들도 다 부쳤다. 이제는 가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지만, 하여간 간다는것은 확정적이다. 명백하다. 그는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

<이제 그는 고향에 거의 다 왔다. 조금만 있으면 도착할것이다. 그저 잠깐만 있으면. 그는 빙그레 웃었다. 공기가 맑고 신선해서, 고향에 대한 희미한 옛 추억이 타올라서, 돌아오는 아들로써의 긍지에 넘쳐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트렁크를 집어 들고 오른쪽으로 서둘러 걸었다. 7년만에 고향으로 돌아 온것이다. 집으로. 얼마나 사무치게 바라던 귀향인가. 이제는 그것이 현실로 되었다.>

<집, 드디어 그는 고향에 왔다. 얼마나 흐뭇한가. 그는 지금 누워 있는 이 침대우에서 아마 태여났을것이다. 이게 바로 고향집이다.

깊은 뿌리우에 서 있는 그 무엇인듯, 그래서 만지는 모든것이 추억으로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고향집이다. 삶의 보금자리, 태어나 처음으로 사물을 만져 보고 맛 보고 알아 보기 시작한 곳, 고향집.>

이렇게 간결하고 탄력성있게 묘사하는 수법을 많이 쓰고 있어 아주 운율적이구 시적이란 말이야. 문장의 운동감이 강하구 감정정서가 힘 있는 필체야. 절대 쉬운 입말체로 됐대구 해서 깔보지 말아야 해. 이런 문체의 글이 번역하기 더 힘들어. 토 하나 잘못 썼다간 문장의 리듬이 파괴된단 말이야.

번역에서 작가의 이런 문체적특성을 그대로 싣려 줘야 데이브러햄의 글을 읽는 맛을 안겨 줄수

있지. 그렇지 않다간 옛날얘기를 하는것 같은 필딩이나 디킨즈의 글처럼 만들어 놓을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동무가 번역한걸 보면 이직 얼럭궁덜럭궁해. 문체적특성이 일관하게 안겨 오지 않아. 그걸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붓을 들었기때문이야.》

이때 누구에게서인지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의 개별 《강의》는 중도반단되었다.

그는 학장선생이 찾아서 가야겠다고 일어 서면서 《번역을 해보겠다는 동무의 결심이 좋아. 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방법론이 생기는 법이야. 피라는 노력이 없이는 명수가 못돼. 내가 말해준대루 계속 공부해. 자꾸 물어 보구 자꾸 교열을 받아야 늘어. 아무때라도 찾아 와.》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얼마나 고맙던지, 강좌장선생이 가르쳐 준대로 한번 본때 있게 번역해 보리라 마음 다지며 나는 신심에 넘쳐 교실로 돌아갔다. 내가 번역한것과 가필한것을 읽어보니 문득 자신에 대한 허무감이 들면서 내가 이발도 나지 않은 주제에 콩밥을 먹겠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문 연구도 깊이 하지 않고 서둘러 번역에 달라붙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졌던지 모른다.

순간 번역문종이장들이 아예 보기조차 싫어졌다. 나는 번역문종이몽테기를 기숙사 사물함에 구겨 넣고 다음날부터는 소설원문만 들고 다니며 읽고 또 읽었다.

《번역은 큰 창작이다. 자신이 에이브러햄이 되어 소설 <폭풍의 길>을 쓴다는 립장에서 번역준비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붓을 들라.》, 이것은 립학수가 나에게 가르쳐 준 귀중한 번역의 비결이였다.

그는 주체66(1977)년에 발표한 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예술번역을 수업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문학작품들을 원문으로 장기간 읽는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외국어의 미세한 미감에 능통하고 예술적소양이 높아 질것이기때문이다.》

《역자는 원작자의 서기가 아니다》

내가 대학 3학년때였다.

나는 8학년때 번역하다가 집어던졌던 영문소설 《폭풍의 길》의 번역문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 동안 영어수준도 일정하게 높아 졌고 원문을 대어 첫번 반복하여 읽는 과정에 작가에 대하여, 작중 인물들에 대하여 어지간히 깊이있게 알게 된지라 새롭게 신심이 생겼던것이다.

8학년때 번역한것을 다시 읽어보니 <야,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었는가? 이것도 몰랐던가?> 하면서 어학상, 번역상 부족점들이 수두룩한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새 종이에 다시 써나가면서 번

역을 해나갔다. 한달만에 나는 제1장부분을 다시
번역해서 강좌장선생에게 가져다 보였다.

그는 《그래 이제 좀 제대루 만들었나? 내 인차
봐줄게.》 하고 말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는데 립학수강좌장은 일
요일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것이였다.

나는 흥부동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 갔다.

《아유, 이제 웬일인가. 려명이야 우리 집엘 다
오구, 어서 들어 와.》 하면서 이미 학원때부터
안면이 있는 그의 부인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처녀이상으로 쾌활하고 상냥한 부인은 나를 늘
쌍 <려명>이라고 불렀다. 그게 더 부르기 좋고
듣기도 좋다고 아예 이름을 고치라고까지 했다.
참으로 유모아가 많은 부인이였다.

《려명이, 앞으로 번역작가가 되면 말야. 필명
을 <려명>이라구 해. 어때?》하면서 부인은 청
높은 고운 목소리로 쉬임없이 룡담을 하고 강좌장
선생은 《허, 별소리 다 하는군.》하면서 빙그래
웃기만 하고 어린 막내딸 채성이는 《오빠 왜 얼
굴이 새빨개 졌나?》하면서 당돌하게 내 얼굴을
뽀히 들여다 보고... 참으로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점심식사까지 한 다음에 강좌장선생은 나에 대한
개별 《번역강의》를 시작했다.

《많이 나아졌어. 하면 할수록 느는게 번역이야.
확실히 원문을 여러번 읽어 보구 작가의 립장에서
서 자료작업을 하구 번역하니까 훨씬 쉽지?》

《예.》

《이 사람이 회화체루 쓰면서 함축된 표현을 많
이 썼는데 동무, 번역을 정확히 했어.》

《어려운 표현구는 뒤에 있는 주해를 보구 번역
했습니다.》

《주해가 로어루 뻘었는데 겸사해서 로어공부두
했구먼.》

번역할 때 주해부터 불러구 하지 말구 우선 문
맥을 따져서 의미를 짐작해 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겠는데. 내가 작가라면 이런 말을
시켰겠는데> 이렇게 짐작을 해보구 그걸 확인하
기 위해서 사전을 들치던가 주해를 보란 말이야.
그래야 영어어감이 생기거든.

프랑스에서 한 30년 살다가 귀국한 사람이 있
는데 말야, 그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리해 못하
는 프랑스어문장을 읽어 보구는 <이걸 우리 말루
어떻게 옮겨야 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런 뜻이다>라구 한대. 그건 그 사람이 어감으로
프랑스어를 리해하기때문이야.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번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건 역
자의 문학적소양에 달려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세련된 모국어로 번역해야 해.

이것 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난로에 불을 피울 때 신사
옷차림의 아들이 어머니를 도우려고 나와서 난로
앞에 쭈그리고 앉으니까 어머니가 <마인드 요 클

로드즈>라고 말했는데 동무는 그 말을 <옷을 주
의 해라!>고 번역했구먼. 이 말이 우리 말답지
않아. <옷을 더럽힐라>든가 <옷 마칠라>라구 해야
생동하단 말이야. 그렇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인드>라는 단어를 정황에 따라서 잘 번
역해야 돼. 아무때나 <주의해라>, <조심하라>라구
번역하면 어색하단 말이야. 가령 캄캄한 밤에 걸
어 가면서 <마인드 요 스텔. > 하면 <걸음을 조심
하라>는 뜻이니까 <넘어 질라>라든가 <살피서 걸
으십시오>라구 우리 말답게 번역해야 돼.

이 문장두 그래. <그런데 이것 봐라. 내가 여기
서 말만 하고 있다니> 이걸 수태 생각해 보구 번
역한게 알려. 영어원문대루 직역하면 <그러나 여
기서 말을 하며 서 있는 내 말을 들어 보라>라구
해야 되는데 동무 의역을 잘했어. 하지만 좀 더
우리 말답게 <아이구, 내 정신 봐라. 서서 말만
하구 있다니>라구 하면 더 자연스럽단 말이야.

원작자가 쓴 단어나 표현구를 직역하거나 거기
에 너무 매여 달려서 우리 말로 어색하게 옮겨
놓을바에는 아예 번역을 하지 않는게 좋아.

우리 사람들이 읽을 때 번역소설을 읽는다는감
이 전혀 없게 만드는게 번역작가의 기교이구 재
간이구 임무란 말이야.

쏜련사람들이 우리 말로 번역한 쏜련소설들 읽
어 왔지? <차빠예브>요 <새 언덕으로>요 <조야>
요 하는거. 사상적내용들이야 얼마나 좋아. 현대
번역이 망측해서 어디 읽을 맛이 있어? 직역투,
고어투, 마우제식 조선탈투성이란 말이야. 읽다
가 너무 역정스러워서 탁 집어 던지기에 심상이
야.

하지만, <고요한 돈>이요 <고난의 길>이요. <
불타는 강>이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
<청년근위대>랑 우리 사람들이 번역한것을 보면
정말 잘했거든. 신통히 우리 작가들이 쓴걸 읽는
맛이란 말이야.

번역을 하려면 문학을 잘해야 돼. 그래야 번역
의 예술성을 살릴수 있어.

의역을 하는데서 중요하게 무언고 하니 첫째로
원문의 사상을 정확히 전달하되 말마디나 문장표
현은 우리 말답게 가공하는거야. 원문의 말마디
에만 매여 달리다간 뉘뉘두 번역 못해. 한땀자
아무 쓸모가 없어. 반대번역두 같아.

그런데 의역을 한다구 해서 원문에 없는 말을
마구 넣어서 말만 번지르하게 해선 또 안돼. 그
러면 영어문장의 맛이 살아 나지 못한다 말이야.

이 문장을 봐.

원문대루 하면 <말 없는 호상 합의에 의하여
래니와 목사는 천천히 하이 스트리트거리를 따라
걸었다>라구 해야 되는데 동무는 번역을 아주 그
릴듯하게 했어.

<래니와 목사는 천천히 하이 스트리트거리를

따라 걸었다. 비록 그 거리를 따라 걷자고 서로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원문의 문장구성과 너무 차이가 난단말이야. 원작가는 한 문장으로 내용을 서술했는데 이걸 두 문장으로 만들어놓았거든. 경우에 따라서 원작자가 강조하려는 사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문장을 두개로 갈라서 번역할수는 있어. 이 문장에서는 <서로 말로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을 따로 문장을 만들어 강조까지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원작자도 문장서두의 한마디로 서술했을거란 말이야.

차라리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래니와 목사는 하이 스트리트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라구 하면 원문의 문장구성과 서술방식을 그대로 살려 주면서두 우리 말답게 번역할수 있을거야. 사상두 그대로 전달하면서 말이야.

원문에 충실한다구 해서 직역은 하지 말라. 직역은 오역이다, 그러되 될수록 원문의 구성범위에서 의역하라, 이걸 명심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원문의 사상감정, 문체와 개성을 살리되 세련된 우리 말투 의역해서 번역하는거야.

내가 손질한걸 잘 보구 번역을 계속해.)

그후 림학수는 번역에 관한 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끝으로 나는 번역작품의 예술성과 역자의 창작적기능에 대하여 한마디 하려 한다. 예술번역에서 역자는 원작자의 서기의 역할을 하는 실무자가 아니다.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번역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외국어문장을 축자역하여 모국어표현이 어색한 번역과 마찬가지로 번역문장을 부드럽게 한다고 하여 있는 단어도 빼고 없는 말도 마구 넣어서 조선말은 번지르하면서도 뜻이 원문과 달라진 번역은 찬성할수 없다. 예술번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원작자의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양식, 표현수법과 즐겨쓰는 말씨 등 그의 문체와 개성이 살아나고 개개의 단어와 표현이 가지는 색채와 음영이 그대로 반영되면서도 세련된 모국어로 번역하는것 - 이것이 예술번역에서 요구되는 원칙이다.》

사색중에 당한 봉변

내가 림학수의 강좌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어스해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대학에서는 학부별예술소품경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날 학부예술소품준비를 맡은 학생이 나에게 가사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를 가지고 와서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는것이였다. 나는 혼자서 노래를 불러 가며 단어의 령점과 음의 자리를 맞추어 번역하느라고 온밤 신고해서야 완성하였다. 그런데 번역된 가사를 곡에 맞추어 아무리 불러봐야 《우리 수령 만경대에

탄생하셨네》라는 부분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영어번역문의 음절수가 9개밖에 되지 않아서 늘 구면서 부르게 되는것이였다. 그렇다고 단어를 보충해서 음절수를 곡에 맞게 더 늘이자니 보충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

《우리 수령 만경대에서 탄생하셨네》라는 말이야 영어로 《에서》라는 전치사까지 합해서 6개 단어면 되는데 그 이상 무슨단어를 더 넣을수 있겠는가?

할수 없다. 영어로 부르니 음절수가 딱 맞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한 나는 번역된 가사를 림학수강좌장에게 보아 달라고 주었다.

그도 역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였다. 그는 공연날자가 박두해서 빨리 학생들에게 암기시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하여간 이대루련습시켜.》 하면서 가사번역문을 돌려 주는것이였다.

그후 나는 그 가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벌써 내가 번역해 준대로 영어가사를 다 암기하여 제법 곡에 맞추어 부르고 있었다.

4월 18일 학부에서는 준비된 예술소품시연회를 하였는데 반주에 맞추어 녀학생들이 중창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것을 들으니 별로 어색하지 않은듯싶어 나는 은근히 흡족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식 공연을 이틀 앞둔 날 점심시간이였다.

림학수강좌장은 점심시간이면 무궤도전차를 타고 지금의 개신문앞 서평양백화점아파트에 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곤 하였는데 그날따라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참후에야 강좌장이 땀을 씻으며 강좌실에 들어섰다. 그는 나에게 종이 한장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것이였다.

내가 일전에 번역한 그 노래가사였다. 어색한대로 내버려 두었던 바로 그 대목을 고쳐서 번역한것이였다. 음절수를 13개로 늘여서 곡에 딱 맞게 만들었던것이다.

림학수는 《우리 수령 만경대에서 탄생하셨네》라는 가사를 《우리 수령 만경대에 그이의 탄생지될 영광을 주셨네》라고 영어단어를 보충해서 번역함으로써 가사의 내용을 더욱 훌륭한 형상적수법으로 강조하면서도 곡상요구를 만족시켜 자연스럽게 부를수 있게 만들었던것이다.

《선생님, 정말 멋지게 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다 뭐야. 내 원 참, 오늘 그것때문에 미산동종점까지 두번씩이나 왔다갔다 했어.》

알고 보니 그날 점심시간에 그는 집에서 어느때보다 일찌기 무궤도전차를 타고 대학으로 향했는데 그 가사번역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쳐 보고저렇게 고쳐 보며 골몰하던 나머지 대학앞정류소

에서 내리지 못하고 미산동종점까지 갔던것이다. 그래서 다시 종점에서 탔는데 그 짧은 시간에마저 가사번역문수정작업에 정신을 팔다보니 또 정류소를 지나쳤다. 다시 타고 가다가 또 제 정류소에서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갔던것이다.

《아 글썄, 내리고 보니 미산종점이잖아. 아이쿠, 야단났구나 하는데 마침 올라가는 전차가 굴러오더라 말이야. 제각 올라 앉아서 이젠 정신을 바짝 차리구 지나치지 말자 했지. 그런데 글썄 <탄생지될 영광주셨네> 라는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제각 종이에 써놓구 밖을 내다보니 이게 뭐야, 정류소에 섰던 차가 문을 닫구 막 떠나더라 말이야. 운전수 보구 나 좀 내려주소 하구 소리치긴 창피하구 해서 에라, 그냥 앉아 있었지 뭐. 허참, 기가 막혀서. 종점까지 두번씩이나 갔다 왔다, 정신 빠진 사람처럼 말이야. 허허허.》

우리는 따라 웃었다. 어떤 녀 선생은 눈물까지 짜면서 허리를 그러안고 웃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웃을수가 없었다. 남이 번역한 가사, 그것도 출판할것도 아니고 그저 불러버릴 학생들의 노래가사번역에서 자연스럽게 못한 구절이 마음에 걸려 남모르게 원심을 쓰며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다가 끝내 기발한 착상을 발견하고 완성시켜 준 그 랑심, 그 열정, 그 책임성에 나는 머리가 숙여짐을 금할수 없었다.

이야말로 번역작가, 교육자 림학수의 체질화된 특성이 맑고 깨끗한 당적랑심과 높은 책임성, 창작적열성이 낳은 하나의 교양적인 일화가 아닌가.

나는 급히 학생들을 찾아가 노래가사의 그 부분을 고쳐서 부르게 했다. 처음에는 시연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가사를 고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시뚱해서 웅알거리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그대로 불러 보니 꽤 자연스럽고 유순해서 좋다고 박수까지 치는것이였다.

《확실히 림학수가 림학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가 말없이 가르쳐 준 번역작가로서의 참다운 품성을 따라 배우리라 마음 다졌다.

꽤 후에 림학수는 한 글에서 그 노래가사번역을 실례로 들면서 이렇게 썼다.

《이것은 물론 직역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곡에도 맞고 내용도 외곡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번역에서 작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자가 창작적기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많다.

수많은 소재가 다 좋으나 그것을 조립하였을 때 기계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볼수 없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주의해 듣다가 요긴한 나사 하나를 조여 기계가 훌륭히 가동하도록 하는것, 그림에서 레를 든다면 룡을 그리고 붓으로 한점 눈을 찍어 그 그림이 생동하도록 하는것- 이것이

바로 예술성이다. 예술성이란 당사자의 평소의 소양과 자질의 총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글을 쓰거나 번역하는데서 소재는 단어요, 작품을 완성시키는 매듭은 바로 이 예술적소양이다. 이것이 있어야 범을 그려도 범이 된다.

이것을 못할때 그 소재가 아무리 좋고 그 소재를 능숙하게 조립하는 기량이 있다 해도 범을 그려서 고양이가 되는것이다.》

뜻 깊은 민족적명절 1월 15일, 대학강당무대에서 우리 학부 녀학생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옆에 앉은 림학수강좌장을 보니 그는 굳어진 사색의 습관대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었다.

주름진 입가에는 흐뭇한 만족의 기색이 감돌고 그의 발은 선물에 맞춰 장단을 치고 있었다. 그는 분명 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다함 없는 흠모의 노래, 충성의 노래, 그 노래번역에 바쳐진 자기의 심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듯 싶었다.

번역작가 림학수, 그는 이렇게 한생을 살았다.

시인 림학수

림학수는 번역작가이기전에 시인이였다.

나는 림학수가 1930년대 말까지 유명한 향토시집을 여러권이나 세상에 내놓은 시인이였다는것을 학생때는 물론 교원이 되어서도 한동안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저 영어에 박식한 교수, 번역작가로서 시도 잘 아는분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강좌장선생의 시적재능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주체 49(1960)년 망년회때였다.

그해 말에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영어과는 일부 다른 학과들과 함께 새로 창립된 국제관계대학(후에 평양외국어대학으로 개칭)서방 어학부에 편입되였는데 온 학부가 처음으로 대학 식당에 모여서 망년회를 하였다.

그때만해도 아직 낡은 생활양식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망년회에서는 서양옛말에 나오는 《싼타크 로스할아버지》처럼 백발의 긴 수염을 코밑과 턱에 붙이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나이 지숙한 프랑스어과 상급생 리계수(유교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 4권의 역자)가 과자, 사탕, 사과 등을 기숙사백포에 담아 지고 장내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쥐여 주며 싱겁을 떨었다.

《싼타크로스할아버지》란 서양사람들이 우리의 설명절대신에 크게 쇠는 종교적명절 《크리스마스》(12월 25일)전날밤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보따리를 지고 굴뚝으로 들어 가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맡에 선물을 놓고나간다는 종교적 신화의 인물이다.

학과별 예술소품공연이 끝나고 오락회가 시작

되었는데 그 《싼타크로스할아버지》가 웅글은 목소리로 《가만, 림학수영어강좌장선생님을 보지 못했나요? 어디에 앉아 계시노?》하며 능청을 부리면서 장내를 휘 둘러 보는것이였다. 그는 주탁에 앉아있는 림학수강좌장을 보자 장내를 향하여 《우리 영어강좌장선생님의 노래부터 듣는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렁찬 박수갈채가 퍼지는 가운데 강좌장선생이 일어 섰다. 그는 《난 노래는 영 부를줄 몰라. 노래대신 시를 하나 읊겠어.》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자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 졌다.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이어
출발점우에 선 경기자들처럼
활시위를 갖 떠난 화살처럼
희열과 약동으로 충만된
생이여라

분필을 쥐고 교단에 서면
꽃사과처럼 싱싱한 못얼굴들
총창을 그러쥐여 고지를 지키고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들이었으며
과학탐구의 길에선들
수도복구의 로력동원에선들
어찌 피로할줄이 있으랴
그들은

바다속 같은 정적속에서
달리는 펜소리 뿜고 뛸는 누에 같은데
그들과 나는 하나
한뜻으로 뭉친
동지요 전우
정성껏 끌어 주자 밀어 주자
그리고 나는 뒤떨어 지지 말자
앞날을 위하여

그래 나는 이렇게
근엄한 얼굴속에
석류알 같은 심장을 지니고 산다
청년들에 못지 않는 새빨간 구슬을
지니고 산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림학수강좌장의 시랑송이 끝나자 요란한 박수갈채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우리들은 그의 시적재능에 대하여 감탄하기전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단순한 학생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혁명동지요 전우로 여기며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 유능한 민족간부로 키우려는 확고한 신념에 대하여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학생들은 그의 시랑송을 들은후부터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꽃사과처럼 싱싱한 얼굴들》, 《바다속 같은 정적속에서 달리는 펜소리 뿜고 뛸는 누에 같은데》, 《석류알 같은 심장》, 《청년들에 못지 않는 새빨간 구슬》이란 어구를 즐겨 되뇌이곤 했다. 그래서 나의 기억속에는 이 시구들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시를 즉흥시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글을 쓰려고 그의 딸을 통하여 찾아 낸 한 학습장에서 그 시의 원고를 발견하였던것이다.

시의 제목은 《나도 함께》, 쓴 달은 주체 47(1958)년 1월 5일이였다. 글씨로 보아 그의 부인이 정서해 두었던것이다.

당시 인민학교학생들이 쓰던 줄칸이 있는 《국어학습장》, 표지에 《시3편, 림학수》라고 쓴 부인의 글씨, 당과 수령께 바친 남편의 그 깨끗한 혁명적 량심과 열정, 충성의 녀이 그리도 귀중해 출판도 되지 않은 그의 작품을 한자한자 정성들여 정서해 놓은 부인이였다.

이제는 부인도 우리곁에 없지만 그의 다심한 지성이 있어 림학수의 그 시가 오늘은 이렇게 이 글의 한페지를 장식하게 된것이다.

그후 내가 교원을 하던 때였다.

당시 교원민청초급단체 위원장이였던 나는 강좌의 젊은 교원들의 결혼식때면 《의식》을 주관하곤 하였다.

어느 한 젊은 교원의 결혼식때였다.

당시만 해도 관혼상제례식에서 낡은 관습이 농후하게 남아 있어 결혼식에서는 《사회》요 《주례사》요 《축사》요 뭐요 하면서 허례허식이 많았다. 주례사와 축사는 될수록 길게 하면서도 요란하게 과장된 미사려구로 하는것이 하나의 틀에 박힌 관례로 되어 있었다.

강좌교원들의 결혼식때 주례사는 의례히 림학수 강좌장이 하였는데 주례사에서 언급할 신랑과 신부에 대한 자료는 내가 그에게 제공해 주었다. 림학수가 주례사를 할 때면 나는 사회자로서 그의 곁에서 있곤 하였다.

림학수의 주례사는 그대로 시랑송을 방불케 했다. 정치적환경과 계절의 자연미, 신랑신부의 인품이며 경력, 지어는 수양버들 휘늘어진 대동강 유보도에서 사랑을 속삭이며 뒹아하던 장면까지 눈에 선하게 엮어 가는 그의 주례사를 듣는 사람들은 강좌장선생이 아마 며칠동안 품을 들여 썼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의 곁에서 있던 나는 주례사의 내용은 물론 그 어구가 너무나 현란하고 감동적이어서 슬그머니 그가 한손에 들고 《읽고》 있는 종이장을 들여다 보았다.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아무것도 쓰지

얇은 백지 한장을 들여다 보면서 그렇게 오래동안 거침없이 미사려구를 엮어 가고 있는것이였다.

강좌장선생의 얼굴을 보니 그의 눈길은 여전히 백지를 들여다 보고 있었고 그는 천연스럽게 사랑송조로 한번 더듬지도 않고 《읽고》 있는것이였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우스운 일인가.

신랑신부는 물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강좌장 선생이 빈 종이를 들고 그렇듯 아름다운 시구들로 엮어 진 훌륭한 주례사를 하고 있는줄도 모르고 감동어린 표정으로 묵묵히 듣고 있는것이였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았다.

의식이 끝나고 술이 열근히 취했을 때 나는 강좌장선생에게 넌지시 말했다.

《아까 선생님은 빈 종이를 들고 주례사를 하시더군요.》

《그럼, 말이란 종이가 하는것이 아니라 심장과 두뇌가 하는거니까.》

《그럼 왜 종이를 들고 말씀하셨나요?》

《형식은 형식대로 갖춰야 하니까.》

《난 웃음이 나서 겨우 참았습니다.》

《사실 나 자신도 겨우 참았어. 허허허.》

시인 림학수, 그가 자기의 옛 시들중의 한편을 처음으로 공개한것이 바로 이날이였다.

그날도 림학수강좌장은 오락회에서 지명을 받아 노래대신 시를 읊겠다고 하면서 일어 섰다.

《내 옛날에 쓴 시를 하나 읊겠어요.》 하더니 그는 청 높은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분홍저고리와 긴 치마자락
기름도 안 바른 머리단과 솟된 마음새
한마디 묻는 말에도 가벼이 낮 붉히고
때때로 눈 쳐들면 그 맑은 웃음마저
너무나 수집은 조선의 소녀
오직 그대만이 나의 사랑이외다

원망이란 모르고 한갓 믿을뿐
몸과 팔 연약하면서도 절개일랑 굳나니
내 만일 조심스레 그 손을 어루만지면
양처럼 고개 숙이고 다시 들줄을 몰라
너무나 유순한 조선의 소녀
오직 그대만이 나의 사랑이외다

봄 오면 둔덕에 올라 아지랑이 나는 새로
한가히 허리 굽혀 나물캐기 노래하며
가을들 금이랑에 철 늦은 잠자리 쫓아
어린 사슴처럼 어여뻐 그 다리 뛰노는양
너무나 천진스런 조선의 소녀
오직 그대만이 나의 사랑이외다

이 시는 그가 해방전에 쓴 서정시 《조선의 소

녀》이다.

일제가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말도 못하게 하고 민족적인 모든것을 짓밟아 버리며 조선민족의 《황민화》를 떠들던 그 암담한 시기에 림학수는 《조선의 소녀》를 노래했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우리 민족, 우리 녀성들, 일제의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속에서도 아릿다운 조선녀성의 고유한 그 자태를 잃지 않고 귀중한 민족성을 곳곳이 간직하고 살고 있는 그들이 더없이 고와 보이고 눈물겹게 자랑스러워서 《오직 그대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오직 조선민족만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림학수는 소리높이 부르짖었던것이다.

1930년대에 그가 쓴 시들은 내 나라 금수강산과 슬기로운 우리 조선민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감정이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 타는 증오심을 바탕으로 하여 열렬히 노래되고 있다.

동방에 한 령산이 있었다
만 2천봉
허위허위 날으는 구름

충암우에 단벽, 단벽우에 물
그우에 또 충암, 푸른 숲, 수리개

휴우 번득 개여
개여 흐르는 안개, 보라 자주

동방에 한 령산이 있었다
만의 소가 만의 단장
천의 폭포에 천의 꽃잎

한줌 흙 한울 풀이
이모두 하늘의것, 그윽히
바람끝에 걸린 구슬

동방에 한 령산이 있었다
골짜마다 묻힌 금은, 봉우리마다 쌓인 보옥
굽이굽이 무지개, 두견, 은은한 석경소리...

그아래 사는이들 흰 옷 입어 발 갈어
레질을 숭상하고 참혹한것 아니 즐겨
반만년 긴 세월에 침략이란 앓던이들
아, 어여뵈사 이산천, 착할사 이 백성!

이 시는 주체37(1948)년에 출판된 그의 시집 《필부의 노래》에 실린 서정시 《동방의 령산》이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애국애족의 불 같은 감정을 마음껏 노래할수 없었던 그 시절 림학수는 시들에서 은유의 수법을 많이 썼다. 《동방의 령산》은 바로 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였다.

이제는 나라마저 일제에게 빼앗겼으니 그는 동방에 한 령산이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썼던 것이다.

림학수의 초기시들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증오와 분노, 가슴속깊이에서 용암마냥 이글거리는 그 감정을 화산처럼 터뜨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로부터 언제나 비애속에 몸부림치는 식민지 지식인의 심정이 력력히 표명되고 있다.

병어리

우리모두 장님
우리모두 병어리
수많은 꽃 발밑에 피었으나
너는 그를 못 보고
수많은 별 가슴에 빛나나
나는 그를 말할수도 없다
(시집 《후조》)

백합

그대는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그대 웃음은 너무나 희고 흔적 없기에
백합아, 골짜에 핀 백합아
그대 간 가을날
내 다시는 아무도 사랑할수가 없노라
(시집 《후조》)

하지만 림학수는 언제까지나 절망과 비애속에서 몸부림치고만 있지 않았다. 그의 시에서 반일감정은 더욱 승화되어 일제를 타도하는 피어난 싸움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 투쟁을 지향하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

하이커의 노래

전선은 뿔뿔 소나무가지는 휘휘
검은 골짜기를
나래 퍼덕이는 소리 파도치는 소리
억천의 기발이
부딪쳐 부딪쳐 꺾여 펄럭이고
온 한밤을 발 맞추어,
사라져 가는 소리... 달려 오는 소리...
개는 짖고 달은 더욱 더욱 푸르게
...

오 자옥히 눈보라-바람!
흰 곰같이 웅크려 폭신한 장둥이들
어느덧 일면에 빙하
저 칼날 같은 봉우리들

《형제여 가야만 하느냐?

너는 이런 반에 꼭 가야 하느냐?
벌써 배낭을 지고 피켈을 들고서-
어느 골짜기 어느 퍼덕이는 날개속
부르는 소리에 그리도 마음 끌린다는 말이나?

그러나 나 슬퍼 하지 않으려다
이윽고 날이 새면
저 먼-메뿌리
눈우의 한점 피를 나는 곧 따를것이므로!
눈우의 적은 발자욱을
나도 곧 따를것이므로》

림학수는 눈보라 사나운 백두의 밀림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항일대전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 시를 썼다. 배낭을 지고 《피켈》(등산용 지팡이)을 든 《하이커》(등산가)로 묘사된 그 《형제》는 다름아닌 항일혁명투사를 넘두에 둔 형상적인물인것이다. 항일의 피어난 자욱을 따라서 자신도 함께 가리라는 시인 림학수의 신념의 맹세가 암시되어 있는 이 시는 그의 해방전 시가들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 선 시였다.

림학수의 처녀작은 주체 20 (1931)년에 발표된 서정시들인 《고요한 밤》과 《근심》이었다.

그가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원고료를 벌여 학비를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그의 할머니는 3대의독자로 태어난 손자가 열다섯살 잡히던 해에 소학교를 마치자마자 장가를 보낼 잡도리를 하고 있었다. 이를 뿌리치고 단연 서울로 올라 가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림학수는 시를 써서 신문, 잡지에 내고 한푼두푼 원고료를 벌여 학비를 물었다.

이 시기에 그는 《파랑새》, 《눈 오는 날》[주체 21(1932)년, 《봄이 오면》[주체22(1933)년] 등 서정시들을 내놓았고 서사시 《견우》를 발표하였으며 영문소설도 번역하였다.

뒤이어 주체26(1937)년에는 시집 《석류》, 《팔도 풍물시집》, 주체28(1939)년에는 시집 《후조》, 주체 37(1948)년에는 시집 《필부의 노래》를 세상에 내놓았다.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이 강렬하게 반영된 시집 《팔도풍물시집》은 《사상적으로 불온한》 도서로 낙인되어 림학수는 일제의 《총독부》요 경기도《경무부》요 하는 따위의 폭압기관들에 끌려가 가혹한 문초를 받기도 했다.

일제가 패망한후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피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는 진보적문필활동에 종사한 림학수는 주체36(1947)년 3월부터 신문 《광명일보》사에 들어가 편집을 맡아 보았는데 피뢰도당의 탄압으로 신문이 강제폐간되자 그해 8월부터는 《고려문화사》의 편집국장으로 초빙되어 월간잡지 《민성》

과 주간지 《어린이신문》을 편집하였다. 그러나 남조선피괴도당은 잡지 《민성》마저 《좌익적》이라는 이유로 강제폐간시키고 립학수를 비롯한 진보적인 기자, 편집인들을 련행하여 피괴 《수도경찰청》에 감금하고 갖은 악형을 다하던 끝에 출판사에서 쫓아 냈다.

이 시기에 그가 쓴 대표적인 시들이 《즐거운 설날》, 《데모크라씨》, 《언제나 오느냐》이다.

립학수는 이 시들에서 미제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끝 없는 동정과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통치제도에 대한 규탄의 사상감정,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 공화국북반부의 인민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동경심을 열렬히 토로하였다.

언제나 오느냐

언제나 살기 좋은 날은 오느냐?

모든 기관을 우리 손으로

3홉의 쌀은 배급되고

겨레의 줌들 말끔히 쓸어 내

오리라 오리라 하는 단어는 없어 지고

전차는 타기 쉬웁고

기차려행은 즐거웁고

뜰에는 풍년가 들리고

공장은 연기 뿜고

언론과 집회는 자유

아이들 다 학교에 가고

뜰에는 장미 피고

너인들 쾌활해

일하기 즐거웁고 살기 즐거운

언제나 보람 있는 날은 오느냐?

(시집 《필부의 노래》)

그가 그렇듯 동경하던 참다운 인민의 세상, 인민의 자유와 행복,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꽃 피는 인민의 락원을 립학수는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와서야 처음 보고 직접 체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존엄과 영예를 마음껏 누리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는 북 반은 근로인민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는 시에 담아 노래하였다.

승리자의 야회

손이 아름다와라

근로하는 손이 아름다와라

새별 같은 눈

승리자의 자랑

미제를 무찌르고

5개년계획을 8년반에

기적을 창조한 세기의 주인들이
더 높은 봉우리로 출발을 앞두고

우리모두 한자리에 모였도다

...

지배인도 조사공도 손에 손 잡고

늘어 진 가지밑에 웃음 지며

제가꿈의 초과생산량

창의창안의 경험담도 자랑스러워라

우리모두 씨클에서 다진 솜씨

노래 부르며 노래 부르며 노래 부르며

선풍처럼 춤 추며 돌며

폭소와 환성으로 이 한밤을 즐기자

분기별 작업을 총화하고

자랑찬 마음이 한곳으로 모여

저절로 벌어 지는 춤과 노래

가락은 높아 지고 밤 깊은줄 모르는데

《완충기가 앞으로 반년 ,

두번째 맞을 다음 고지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리라!》

가슴마다에 새론 결의 용솟음쳐

우뢰처럼 터져 나오는

박수와 갈채

직포공은 영웅과 손을 맞잡고

조립공은 천리마작업반동무를 불러

화려한 새 프로에 꽃보라도 무색할제

달빛은 스러지고

먼 동이 터온다

(《조선문학》 주체 49(1960)년 8월호)

《근로하는 손》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이는 곧 로동계급적립장과 견해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단순한 애국애족을 부르짖던 향토시인으로부터 내나라, 내 조국의 근로하는 인민, 로동계급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노래하는 로동계급의 시인으로 성장한 오랜 지식인 립학수의 사상정신세계를 우리는 이 한편의 시에서 충분히 엿볼수 있다.

남녘에 두 딸을 남겨 놓고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온 립학수는 언제나 조국통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안고 살았다. 그는 암흑의 남녘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자식들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조국통일의 열망을 담아 시를 썼다.

일어 서라

눈보라치는 밤에는

불빛이 유난히도 눈에 부서

꼈다 컸다 다시 눕고

기적소리
목이 댜 기적소리
아득히 들끝에서는
천병만마 몰아 가는 바람소리

그러다 그도 저도 똑 그치면
가깝고도 멀어라
밤은 더욱 깊어 가고
달리나니 남으로 나의 생각
...

눈보라치는 밤에는
잠을 영영 이룰수 없어
일어 났단 눕고 누웠단 되일어 나
가슴을 그러쥐고 이렇게 웨친다

일이 서라 일이 서라
아들 잃은 어버이여
부모 잃은 어린이여
남편 빼앗긴 안해여
산지사방 흩어 진 형제여
일어 서라 일어 서라

김제만경벌에 새재 오솔길에
땅을 치는 원성이여 억눌렸던 분노여
똑 터진 노도여 한데 엉킨 얼굴과 얼굴
펼쳐이는 피구름이여 번지는 불길이여
더는 어이 참으리
-미제는 물러가라
이 땅에서 물러가라

[주체 47(1958). 1. 8]

눈, 바람, 달

눈이 내린다
까마득히 하늘을 덮고 눈이 내린다
평평 쏟아 지나 숨 막히도록 날린다

바람이 분다
까마득히 지평선을 박차고
바람이 휘몰려 간다
하치 않은 분계선, 조작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휩쓸어 간다

달이 비친다
눈우에 포근히 달그림자가
비친다 북쪽땅도 남쪽땅도
뒤산 눈 앞뜰 눈이 다룰수 있으라
불어 오는 바람을 막을
어느 직선과 곡선을 그을수 있으라
달빛도 그렇다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인민의 념원도 그렇다

민족은 하나 산과 들 메우며 나갈
대오의 선두에 나뵈기는 기치는 하나

가까웠어라, 감격의 날은
동이 트면 우리
5개년계획의 둘째 해
우리모두 그 길로 달리자
통일로 뚫린 그 길우로...
주체 47(1958). 1. 1

이상에 소개한 시들은 림학수가 생전에 쓴 수백편의 시들중에서 대표적인 몇편에 불과하다.

림학수가 생전에 쓴 시작품들중에는 가사 **《김일성장군의 노래》**도 있었다. 서울에서 조국광복의 날을 맞이한 그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찾아 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개선하실 날을 손 꼽아 기다리면서 남녘땅인민들과 함께 매일같이 서울역에 나가 밤을 새우다싶이 하였다. 그 나날에 그는 가사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썼다. 그러나 당시 **《문학가동맹》**에 들고 앉아 있던 림화 등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목살해 버리는 바람에 그 가사는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했다.

비록 그 가사는 반동들의 모략으로 세상에 발표 될수 없었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자기의 다함 없는 흠모와 충성의 한마음이 담겨진 그 가사를 심장으로 부르면서 한생을 살았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영어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짬짬이 외국문학작품들을 우리 말로 번역하고 대외선전을 위하여 우리의 혁명적인 시와 가사, 소설들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전념한 림학수였기에 그는 1950년대 이후시기에는 시들을 많이 쓰지 못했다. 아마 직업적인 시인으로서 시창작에 전념하였다더라면 우리 시단에 참으로 좋은 시들을 더 많이 남겼을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8 월한가위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에 쇠는 민속명절로서 한해 민속명절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쇠는 명절의 하나였다.

한가위란 가을저녁이라는 뜻으로서 오곡이 무르익는 좋은 계절인 가을철의 달 밝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기는데서 생긴 이름이다.

한가위는 우리 인민들이 한해농사를 지어 놓은 기쁨을 안고 즐기는 날이었고 돌아 간 조상들을 위하여 지성을 표시하는 날이었다.

한가위는 《가위날》, 《가배날》이라고도 하였으며 이미 삼국시기부터 큰 명절로 맞았다. 가위라는 말은 가을의 중간이라는 뜻이다.

한가위는 풍요한 가을철에 맞는 명절인것으로 하여 보다 풍성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민속경기와 놀이들이 진행되어 이채를 띠었다.

한가위명절의 첫 의례는 조상의 무덤을 돌아 보는것이었는데 이것을 성묘 또는 산소보기, 묘보기라고 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한해농사를 다 짓고 가을걷이를 앞둔 8월 한가위날에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 보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풍습으로 지켜 왔다. 먼저 여름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잔디를 깎고 무덤을 손질한 다음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그 자리에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것은 한해농사를 지은 햇곡식을 조상에게 드리고야 먹을수 있다는례의 풍속이였으며 레절 밝고 의리깊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적풍모의 반영이였다.

한가위날 저녁은 달이 유난히 밝다. 이날 저녁 사람들은 정월대보름날처럼 달구경을 하였다. 대체로는 마당에 명석을 펴고 둘러 앉아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았다.

한가위명절의 독특한 음식으로서는 햇곡식으로 만든 술과 송편, 시루떡, 떡, 밤단자 등이 이름났으며 여러가지 과일도 한가위음식의 하나로 되였다.

술로는 흔히 청주를 만들었는데 찹쌀술을 으뜸으로 쳤다.

송편은 한가위날에 빠져서는 안되는 음식이였다. 5월보름명절라면 쑥떡을 생각하듯이 8월추석이라면 의례히 송편을 생각할만큼 송편은 추석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송편이란 술잎을 사이사이에 끼고 그사이에 떡을 놓고 찢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때의 송편에는 햇콩, 햇팥, 햇밤, 햇참깨, 대추 같은것을 속으로 넣었다.

시루떡에는 흔히 무우나 호박 오가리를 넣어 만들었다.

찹쌀떡 (잡아 당겨서야 끊어지는 떡이라는 뜻)은 찹쌀을 찌서 떡판에 놓고 쳐서 콩가루, 깨소금 같은것을 묻혀 만들었다. 우리 나라에서 찹쌀떡으로 이름난 고장은 연안, 배천 일대이다.

밤단자는 찹쌀가루를 찌서 닭알처럼 둥글게 빚어 삶은 밤을 꿀에 개어 만든 고물을 묻힌것이였다.

평양지방에서는 특산음식으로 노치를 만들어 먹었다. 노치는 찹쌀가루와 엇길금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지진것이였다.

한가위명절에는 여러가지 민속놀이로 즐기였다. 한가위날의 민속놀이로는 녀성들의 그네뛰기, 남자들의 씨름이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곳에 따라 바줄당기기, 소놀이, 거부기놀이, 강강수월래, 길쌈놀이도 하였다. 그네뛰기와 시름은 봄명절처럼 고을이나 마을단위로 황소나 그밖의 물건을 상으로 걸어 놓고 경기를 크게 조직하였다.

한가위날에 바줄당기기도 여

러 지방에서 진행되였다.

소놀이, 거부기놀이는 소탈, 거부기탈을 만들어 쓰고 집집마다 돌아 다니며 춤 추고 노는것이였다. 이 놀이들은 농사일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소와 수백년씩 사는 거부기의 형상을 통하여 풍년과 장수를 념원한데서 생긴것이였다.

강강수월래는 남해안일대의 부녀자들이 8월한가위를 계기로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원무형식으로 춤을 추는 놀이였다. 강강수월래는 그 유래가 임진조국전쟁시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시기 적들에게 해안을 지키는 우리 군사가 많다는것을 보여 주며 적이 상륙하는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남해안일대의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바다가의 산에 올라 가 《강강수월래》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것이 점차 퍼져서 남해안일대에서 한가위날 하나의 풍습으로 되었다고 한다.

길쌈놀이는 근로인민들속에서 널리 진행되어 온것으로서 공동길쌈도동을 총화하는 녀성들의 놀이였다. 공동길쌈은 음력 7월 15일에 시작하여 8월한가위에 와서 총화하면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놓고 먹으며 가무로써 즐기였다.

한가위날 중도보기를 하는데도 있었다. 중도보기는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 또는 안사돈끼리 두 집사이의 중간에서 만나보는것이였다. 중도보기는 봉건사회에서 녀자들이 일단 시집 가면 마음대로 친정에 갈수 없었던 불합리한 인습의 후파로 생긴 풍습으로서 근대에 들어 오면서 자연히 없어지고 말았다.

한가위는 가을철의 가장 큰 민속명절로서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인 민속명절의 하나로 되고 있다.